천년을 세우다
묘연계좌 : 농협 301-0248-0882-41
예 금 주 : 아름다운 동행
대한불교조계종 미래본부

현대불교 30
창간 30주년
1994~2024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77호 hyunbulnews.com (불기 2568년 음력 2월 18일) 2024년 3월 27일 수요일

조계종 조직 개편 첫 걸음 종헌 개정안 지지 속 가결

조계종 중앙종회 제230회 임시회 찬성 72표로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조직 개편의 첫걸음인 종헌개정안이 중앙종회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교육원과 포교원은 내년 4월 1일부터 종헌에서 삭제된다. 총무원은 앞으로 중앙종무기관 조직 개편을 위한 세부 작업에 착수해 연내에 결과물을 내놓을 계획이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는 3월 19일 개원한 제230회 임시회에서 가장 핵심 사안으로 평가된 종헌개정 건을 상정해 무기명 비밀투표에 부쳐 가결했다. 투표에는 재적의원 79명 가운데 76명이 참여했다. 투표 결과 찬성 72표, 반대 4표.

총무원장 · 종회의원 각각 발의
발 빠르게 여러 의견 수렴해
축조심의 과정 이의제기 없어
진우 스님 "정말 열심히 노력"

종회의원 겸직금지 완화 다룬
종헌개정안은 이월되다 철회
총림 운영현황 살필 특위 구성

종헌개정안은 앞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중앙종회의원 발의안으로 제출됐다. 종단미래대비를위한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총무원, 중앙종회, 교구본사주지 등의 의견을 공통적으로 모았지만 중앙종무기관 조직 개편이라는 사안의 엄중함을 강조하기 위해 총무원과 중앙종회 차원에서 각각 발의가 이뤄진 것이다. 특히 심우 스님이 대표 발의한 종헌개정안은 총 74명의 의원이 서명하면서 종헌 개정에 대한 낙관적인 분위기가 형성됐다.

조직 개편 종헌개정안은 앞서 교구본사주지회의, 원로회의 등을 거쳐 다방면으로 의견을 수렴한 만큼 축조심의 과정에서도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었다. 부칙으로 종헌개정안 시행일을 2025년 4월 1일로 정한 것에 화평 스님이 "종법이 너무 방대해 1년 안에 조직 개편안을 다 마련할 수 있는지 우려된다"고 견해를 밝혔지만 미래특위 위원인 만당 스님이 "매주라도 모여 회의하면서 빠르게 결과물을 내놓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종헌개정안이 통과되고 찬성 72표라는 결과가 나오자 회의장에는 탄성이 터져 나왔다. 종헌개정안이 이처럼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통과된 전례가 드물기 때문.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종헌개정안 가결 이후 중앙종회에 감사를 표했다.

진우 스님은 "반대 4표는 더욱 분발하라는 뜻으로 삼겠다. 앞으로는 교육원과 포교원뿐만 아니라 종단부서 전체를 놓고 다시 정리해야 한다"며 "94년 개혁 때 만든 조직으로 종단이 운영돼왔지만 불교는 더욱 거듭나야 한다. 조직 개편에도 의원스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반영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제228회 임시회부터 이월돼온 중앙종회의원의 겸직 금지 완화를 골자로 한 종헌개정안은 대표발의자 만당 스님이 철회했다. 스님은 "아직까진 절대 다수의 공감이 형성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겸직 금지 완화' 종헌개정안 연동법인 중앙종회법 개정안도 같은 이유로 철회됐다. 또한 교구본사주지의 중임을 2회로 제안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종정법 개정안도 철회됐다.

이어 산중총회 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에도 소집권자가 산중총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를 예방하는 내용을 담은 산중총회법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산중총회 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에도 30일 이내에 산중총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 소집요구자 중 법계·승납·연령이 높은 순으로 산중총회를 소집할 수 있게 됐다.

첫날에 이어 20일 속개한 회의에서는 대종사·명사 법계 특별전형 동의의 건이 통과됐다.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동의 대상자는 △동훈·오철·도서 스님(직할) △종일·성법 스님(용주사) △성대 스님(동화사) △돈증 스님(은해사) △도현 스님(해인사) △덕운 스님(쌍계사) △수불 스님(범어사) △원행 스님(금산사) △원진·일수·정연 스님(백양사) △종국·명섭·종열·진만·종고·종걸 스님(화엄사) △화범 스님(봉선사)이다. 명사 법계 특별전형 동의 대상자는 △일수·혜윤·본각·혜원·상덕 스님(직할) △정엽 스님(월정사) △상덕 스님(직지사) △혜강 스님(해인사) △경희 스님(통도사) △능인 스님(봉선사)이다.

중앙종회는 총림실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재안 스님이 대표발의한 이 건은 출가자 감소와 승가 고령화로 교육·수행기관 운영이 어려운 총림이 늘어남에 따라 현장을 점검하고 발전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동국대 단과대 첫 불교동아리가 탄생했다. 사회과학대 재학생 84명을 주축으로 창립한 '템플애플'은 3월 20일 창립법회를 봉행하고 재미있는 불교로 학생사회에서 부처님 법 전할 것을 서원했다.

동국대 사과대 불교동아리 '템플애플' 창립

3월 20일 창립법회…첫 단과대학 불교동아리

사회과학대 재학생 84명 주축으로
'애플' 사회과학 줄임 '사과'서 따와
"불교와 함께 놀며 가르침 체득" 강조
14개 단과대 동아리 창립 목표 진력

"우리 사과대 학우들은 불교문화를 즐기고 향유하며 우리 학생사회에 부처님 법을 전하길 희망합니다. 부처님 진리를 따르는 우리는 템플애플의 모든 존재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결돼 살아갈 수 있길 서원합니다."

동국대 사회과학대학 재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불교동아리 '템플애플'을 창립했다. 동국대 단과대 단위에서 불교동아리가 만들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회과학부 학부생 73명과 대학원생 11명 등 총 84명이 주축이 된 '템플애플'의 애플(apple)은 사회과학의 줄임말인 '사과'에서 따온 것이다. 시작부터 통통튀는 아이디어로 불교계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템플애플(회장 문정민)은 3월 20일 서울 동국대 정각원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하고 대학생불자로서 팔정도 교리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서로 간의 화합과 믿음을 통해 전법에 전력할 것을 서원했다.

이날 창립법회에서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은 118년 동국 역사상 단과대 첫 불교동아리인 '탬플애플'에 운영 활성화 기금 1000만원을 전달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스님은 "애플템플의 애플은 오늘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마음으로 지은 이름이 아닐까 한다"면서 "오늘은 동국대에 사과나무 한 그루가 심어진 아주 역사적인 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역사가 큰 힘이 돼 동국발전과 불교중흥으로 발전되길 기대한다"면서 "불교동아리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장학금 지원과 취업 활동에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재웅 동국대 총장도 "부처님 학교에 입학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청년불자답게 재미있고, 활발발하게 움직이며 행동해 한국불교의 가치를 전 세계에 널리 전파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월결사 사무총장 일감 스님도 금일봉을 전달하며 각자 본래 간직한 불성을 일깨워 아름답고 평화로운 대학사회를 만들어갈 것을 응원했다.

이날 창립법회에서는 템플애플을 이끌어갈 지도법사와 교수 위촉식도 진행됐다. 지도법사에는 동국대 서울캠퍼스 정각원 교법사 자헌 스님이, 지도교수에는 김용현 북한학전공 교수와 민세진 경제학과 교수, 현정환 국제통상학과 교수가 위촉됐다.

템플애플은 앞으로 법문·템플스테이·사찰음식 체험·부처님오신날 행사 참여 등 다양한 불교문화 활동을 통해 불교문화의 정수를 체득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부처님 가르침 실천을 통해 용기와 희망, 치유와 행복을 경험하고 창의성과 리더십을 개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문정민 템플애플 회장(정치외교학과)은 템플애플이 추구하는 것은 '불교와 함께 놀자'라고 강조했다. 문 회장은 "불교는 따분하다는 일반적 통념을 넘어 불교문화를 학우들과 함께 향유하며 불교와 함께 즐겁게 노는 것"이라며 "불교가 책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책 밖에서 학생들과 함께 놀면서 체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수 템플애플 부회장(북한학과)도 "사회과학대 학우들과 함께 불교의 문화를 즐기면서 학생사회에 부처님 법을 전하길 희망한다"면서 "부처님 진리를 따르면서 템플애플의 모든 존재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결돼 살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법회 후 돈관 스님은 학생 한 명 한 명의 손목에 단주를 채워주며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창립법회는 '부처님 법 전합시다' 전법선언 제창으로 마무리됐다.

한편 동국대는 앞으로 서울 캠퍼스 14개 단과대에 개별 불교동아리 창립을 목표로 진력한다는 계획이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최고급제품 & 착한가격 & 친절상담 & 빠른배송
동호불교물류센터
전국 최대규모 500평 매장에 불교용품의 모든것
2024 초파일 미리 준비하세요
동호불교용품물류센터는 모든 불교 용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동호불교 검색 NAVER 에 동호불교를 검색하세요.
대량 구매 시 전화 문의 054-762-8200 / 010-9748-3366 ■ 계좌번호 : 농협 010-2082-2100-89 (임건순) ■ 찾아오시는길 :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공정길 55-36

‘신흥사·불국사’ 관련 총무원 행정력 질책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 종책질의서 문제제기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신흥사-경내지 미승인 임대 논란
불국사-주지직무대행 6차례 품신
의원스님들 “총무원 미온적 태도”
통계청 인구조사·선암사 패소 등
각종 현안으로 6시간 동안 질의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조직 개편을 위한 밑바탕인 종헌개정안은 중앙종회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통과됐지만, 이와 반대로 총무원의 행정력을 질책하는 목소리는 생각보다 컸다. 일부 교구본사주지 임명 과정에서 총무원과 교구본사의 이해관계가 얽혀 종헌종법 준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는 3월 20일 오전 속개한 제230회 임시회에서 중앙종무기관·산하기관 및 직영·특별분담사찰 결산검사의 건을 마치고, 각 부서별 종책질의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는 서면으로만 총 28개의 종책질의가 접수됐는데, 총무부에 관한 내용만 8개로 가장 많았다. 총무부는 구두 질의까지 합쳐 2시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종회의원 스님들의 질책을 받아야 했다.

총무부 종책질의에서 가장 비중을 차지한 건 총무원의 인사행정 지적이었다. 보화 스님은 제3교구본사 신흥사 주지 지혜 스님 임명과 관련해 신흥사 경내지 미승인 임대 건을 언급하며 “본말사주지인사규정을 적용하면 본사주지에 임명할 수 없는데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총무부장 성화 스님은 “사실상 상위법령인 종무원법과 산중총회법의 위임 범위를 초과하는 내용이기에 결격사유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종무행정에 일대 혼란이 발생될 우려가 높다”고 해명했다.

상위법에서 경내지 미승인 임대를 본사주지의 결격사유로 명문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하위법인 종령을 그대로 적용하긴 어렵다는 취지다. 하지만 보화 스님은 “종무원법이나 본말사주지인사규정을 제정한 건 삼보정재를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망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런 취지로 볼 때 절대 적용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본다”며 “다수의 종회의원들이 총무부를 비롯한 각 부서의 준법정신이 결여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신흥사뿐만 아니라 불국사의 반복된 주지직무대행 품신도 도마에 올랐다. 주지직무대행 임명은 차기주지 선출을 위한 3개월간의 임시직임에도 불구하고 총무원이 6차례나 반복해 직무대행을 임명했다는 지적이다.

진화 스님은 “불국사 주지직무대행만 6차례에 벌써 15개월째다. 최근에 임명할 때 산중총회를 할 수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걸 제대로 확인한 건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성화 스님은 “관련 규정을 바꾸기 위해 교구본사주지협의회 의견을 구했지만 특정 본사에 해당하는 사안이어서 적절치 않다는 답을 받았다”며 “직무대행은 주지후보를 뽑지 못했을 때 임명하는 것으로 해석해 앞으로는 1회만 하는 걸 원칙으로 삼으려고 한다”고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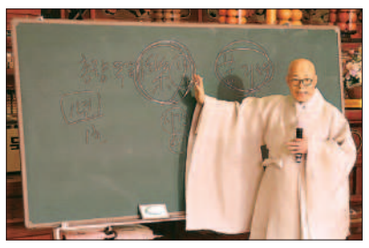
“본사주지가 말사주지 품신을 악의적으로 미루는 경우도 있다”고 밝힌 선광 스님은 “교구본사 내규가 종헌이나 종법보다 앞설 순 없다. 종헌종법보다 교구 관습법을 먼저 인정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종회의원스님들은 이뿐만 아니라 총무부에 선학원 관계, 송담 스님의 탈종 문제, 선암사 소송 대응, 통계청 인구센서스 대비 등 다양한 현안을 질의하고 총무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후 각 부서별 종책질의가 오후 6시까지 이어졌으며, 기획실에는 징계자에 대한 ‘사면 조치’ 검토 주문이 나왔다. 기획실장 우봉 스님은 “검토한 적은 없지만 총무원장스님께 보고 드리고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명상 일타강사’ 변신한 진우 스님

출가재일 선명상 주제 법문…“명상으로 업장소멸”

법상 대신 칠판 판서하며 열강
전법 위한 선명상 중요성 강조



“선명상은 마음을 고요하게 해서 삼업청정을 이루고, 고락이라는 감정에서 벗어나 업장소멸을 이루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사진〉이 3월 17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부처님 출가·열반재일 특별정진주간을 맞아 사부대중에게 정진을 당부하고 선명상의 필요성과 목적을 설했다. 이날 진우 스님은 평소와 달리 가사를 수하지 않고 사자좌에도 오르지 않았다. 대중 앞에 선 진우 스님은 열정적인 모습으로 직접 판서강의를 진행하며 이해를 도왔다.

진우 스님은 전법에 있어 명상의 중요성과 보급의 필요성을 짚었다. 스님은 이어 명상을 잘 하기 위해 먼저 인과법과 연기법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우 스님은 “이 세상에 원인 없는 결과와 결과 없는 원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좋은 것이 생기면 반드시 나쁜 것도 생기기 마련”이라며 즐거움과 괴로움은 인과에 따라 공존한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또 “세상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 인드라망처럼 얽혀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 때문에 모든 인과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며 “필연적인 인과는 옳고 그름이 없다”고 강조했다.

인과법과 연기법에 따라 나타나는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은 단지 현상 그 자체일 뿐이라는 진우 스님. 하지만 사람들은 그 현상을 보고 제각기 다른 감정을 느낀다. 진우 스님은 여기서 ‘감정’에 주목했다.

진우 스님은 “부처님께서 세상의 모든 현상은 환영의 일부이자 물거품이라고 말씀하셨다. 즉 아무 것도 아닌 것이 바로 현상이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좋고 싫은 감정을 느끼기 위해 현상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하나하나 시비를 따지고 본다”며 “이러한 감정 때문에 중생은 괴로움을 느끼면서도 업장소멸하지 못한 채 윤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우 스님은 고락의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이 바로 명상 수행임을 강조했다. 명상을 통해 감정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잡념을 버림으로써 삼독을 제거해야 업장소멸을 이룰 수 있다는 것. 스님은 “명상으로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외부의 현상은 그저 인연에 맡겨 그 자체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민우 기자

비구니·우바이, ‘수행정신 회복’ 운동 펼쳐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3월 18일
‘청정승가공동체 수행결사’ 출범
광용 스님 “지금은 수행 시대”



청정승가공동체 수행결사 출범식에서 위빠사나 명상을 수행하는 스님과 불자들.

“나모 땃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쌈 붓다싸.”(모든 번뇌를 떠나서 스스로의 지혜로 사성제의 진리를 깨달으신 거룩한 부처님께 두 손 모아 머리 숙여 예경 올립니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광용 스님)는 3월 18일 서울 법룡사 만불전에서 ‘청정승가공동체 수행결사 출범식’을 봉행하고 청정승가공동체 결사의 주인공으로서 함께 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비구니스님과 재가여성불자들이 함께하는 이번 수행결사는 비구니 승가 위상을 높이고 여성불자들에게는 새로운 수행 방향을 제시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출범식에서 “지금은 수행시대”라고 강조한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은 “귀한 수행자로서 혼탁한 세상을 맑히고 공생을 위한 마음을 내 자기 치유와 돌봄, 내면 정화가 필요한 현대사회에 수행결사의 의미와 가치를 알릴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비구니스님과 여성불자들이 함께하는 수행결사는 첫 시도인 만큼 많은 가능성과 동시에 불확실성을 갖고 있다”면서 “그만큼 서로 배려하고 서로의 수행을 위해 감내해야 할 부분을 나눠 마지막까지 함께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비구니회 수석부회장 수경 스님은 대표 낭독한 수행 결사문에서 △출가수행자 본분을 잊지 않기 위해 정기적으로 함께 모여 경전을 독송하고 수행정진 할 것 △청정승가공동체 순수성 보호를 위해 진실한 수행으로 세상을 맑히는 붓다의 제자 될 것 △수행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청정승가공동체 일원으로 함께 한다는 자긍심과 수행가풍을 회복하기 위해 수행청규를 만들어 각자의 처소에서도 동참할 것을 다짐했다.

출범식 후에는 법사스님인 범라 스님과 함께하는 위빠사나 명상 수행이 이어졌다. 범라 스님은 태국 촌부리 위백아솜 위빠사나 수행센터 창마이 왓람뻥에서 수행했으며 이후 10년 동안 미얀마 양곤 마하시센터에서 지낸 위빠사나 명상 수행 전문가다. 이날 ‘정견’을 강조한 범라 스님은 “수행하는 방법을 바르고 정확하게 배워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할 수 있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청정승가공동체 수행결사는 매월 둘째, 넷째 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다. 위빠사나 수행에 이어 간화선, 법문과 실참, 명상 수업 등으로 4년간 이어진다. 조계종 비구니스님, 조계종 단체 및 소속사찰 여성불자 누구나 신청 가능. 02-3411-8103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제5교구 법주사 주지 정덕 스님 임명

진우 스님 “대중 화합” 당부



조계종 제5교구본사 법주사 주지에 정덕 스님이 임명됐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3월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정덕 스님에게 법주사 주지 임명장을 수여했다.〈사진〉 정덕 스님은 3월 8일 열린 산중총회에서 주지 후보자로 당선된 바 있다.

진우 스님은 임명장을 전달한 뒤 정덕 스님에게 “정정당당히 대중의 지지를 받았고, 본사에서 소임도 그동안 충실히 해왔다. 앞으로 교구장 소임도 잘 할 것이라 기대한다”며 “조실스님을 비롯해 어른스님들을 잘 봉양하고 대중화합에 중점을 둬 가람수호와 포교발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정덕 스님은 “총무원장스님 뜻을 잘 받들어 5교구가 힘을 보태겠다. 교구 대중을 잘 모시겠다”고 답했다. 스님은 또 종단 핵심 종책사업인 ‘천년을세우다’에 기금 3000만원을 기탁했다. 윤호섭 기자

김오곤 한의사가
강력 추천



그린에너지 전속모델
한의사 김오곤

★ 일반황토보다 187배가 넘는 고농축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는 게르마늄 황토알파토(사계절용) ★

온열요법 건강매트 · 방석

36.5 체온이 올라가면 면역력을 높여주고 면역력이 올라가면 자연치유력을 강화시킵니다.

2만개의 게르마늄황토알파토 볼이 촘촘히 박혀있어

체온을 올리고 세포를 활성화하며 독소를 배출함으로써 체온이 1도 상승하면 림프구 계통인 세포, NK세포가 활성화되고 면역력은 5~10배 강해져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세균을 없애고 모세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과 세포조직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노화방지, 신진대사 촉진,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예방에도 큰 효과를 보입니다.

매트 99만원(SS사이즈 : 1100×2000)



게르마늄황토알파토
건강매트 · 방석의 효능

- 혈액순환개선, 피로회복, 면역력강화
- 근육통완화, 세포활성화, 퇴행성협착증 개선
- 교통사고후유증, 디스크치료에 도움
- 혈액순환촉진, 신진대사 원활
- 통증완화(신경통, 관절통, 견통예방)
- 숙면(불면증, 피로회복, 좌골신경통) 효과
- 생체의혈류개선(고혈압, 저혈압)
- 암예방(온열에 의한 악성종양 사멸) 효과



방석 35만원

황토알파토 건강베개

- 수면의 질이 높아지면 삶의 질도 높아집니다.
- 경추척추통증개선
- 코골이 개선
- 목디스크 효과
- 지압효과
- 거북목 통증완화

베개를 선택할 때 보통 6~9cm 높이의 베개가 가장 적당합니다. 옆으로 누웠을 때 목뼈가 위나 아래로 휘지 않고 등뼈와 일직선으로 유지되어야만 목에 무리가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인 남자의 경우 바로 누운 자세에서 7.9cm, 옆으로 누웠을 때는 9.5cm의 높이가 적당합니다. 여자는 바로 누웠을 때 6.3cm, 옆으로 누웠을 때 7.3cm가 적당합니다. 너무 낮은 베개를 베면 몸이 불편하고 일자목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베개를 벨 때는 머리를 받치기보다는 목을 받친다는 느낌으로 베는 것이 좋습니다. 목의 근육이 이완돼 편안한 느낌을 주며 목뼈가 정상적인 C자 곡선을 유지할 수 있어야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베개 20만원

그 린 에 너 지
GREEN ENERGY COMPANY

제품문의 031-542-2735
010-3576-6802

계 좌 : 농협 1186-02-058581
예금주 : 그린에너지(이도연)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319-16 (무봉로 15)

전제품 국내산

봉선사, 청년 함성 속 전법 싹 틔우다

경동대 이어 3개 대학 4개 불교동아리 창단

남양주 봉선사=윤호섭 기자

3월 17일 청년연합법회 봉행
양주시 서정대, 한 대학에서
국내·국제 불교동아리 만들어
기독교 사립 신한대서도 결실
상월결사 운영지원금 전달해



경동대에 이어 서정대, 경복대, 신한대 불교동아리 창립을 이끈 봉선사. 3월 17일 동아리 창단식을 겸한 연합법회가 끝나고 스님과 학생들이 청풍루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경동대 불교동아리 창립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학생 전법에 나선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남양주 봉선사가 이달에만 인근 지역 3개 대학에 4개 불교동아리 창단을 이끌며 운악산을 청년들의 함성으로 가득 채웠다.

봉선사(주지 호산 스님)는 3월 17일 경내 청풍루에서 대학생 불교동아리 창단식과 정기 청년연합법회를 봉행했다. 이날은 양주시 서정대, 남양주시 경복대, 의정부시 신한대에 각각 불교동아리가 탄생한 것을 기념하고, 동아리 운영을 돕기 위한 법석으로 마련됐다. 특히 서정대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위한 불교동아리를 따로 창단하고, 신한대는 기독교학교에서 50명이 넘는 회원을 모아 정식 동아리로 등록해 의미를 더했다.

사단법인 상월결사가 대대적으로 추진 중인 대학생 전법의 결실을 맺은 만큼 법회에는 많은 스님들이 동참해 대학생불자들을 격려했다. 법회에는 사단법인 상월결사 이사장인 돈관 스님과 조계종 포교원장 선업 스님, 능엄학림학장 정원 스님과 전 교구장 철안 스님, 광동학원 이사장 인묵 스님, 상월결사 사무총장 일감 스님, 서울 수국사 주지 보관 스님, 파주 보광사 주지 혜성 스님, 양주 석굴암 주지 도일 스님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가운데 보관 스님과 혜성 스님, 도일 스님은 교구본사에 전법기금 각 2000만원을 전달하며 원활한 대학생 전법이 이뤄지길 기원했다.

각 동아리 임원진 임명은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을 대신해 상월결사 이사장 돈관 스님이 맡았다. 스님은 5개 동아리 회장과 부회장, 총무에게 각각 임명장을 수여하며 대학생불자로서의 새 출발을 응원했다. 스님은 또 동아리마다 상월결사의 운영지원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돈관 스님은 "감동이라는 말을 평소 잘 쓰지 않는데 이곳에 와서 큰 감동을 느낀다. 전국 대학이 400개 정도 있는데 기독교대학에서도 불교동아리를 만들었다고 해서 저 자신부터 용기가 난다"며 "상월결사의 정신이 전법이었기 때문에 더 노력하겠다. 여러분을 보면서 한국불교의 큰 미래가 보인다는 자부심을 갖게 됐다"고 격려사를 전했다.

돈관 스님에 이어 상월결사 사무총장 일감 스님은 각 동아리에 창립지원금 100만원씩을 전달하고, 호산 스님도 교구본사 차원에서 각 대학에 500만원, 봉선사 청소년법회에 300만원, 광동학원 산하 중고등학교에 100만원씩을 지원했다.

포교원장 선업 스님은 자승 대종사의 '부처님 법 전합시다' 친필 액자를 동아리마다 전달하며 신심 깊은 청년불자로 거듭날 것을 기원했다. 선업 스님은 대학생들과 함께 "우리는 청불인, 미래불교 지킴이. 지금 행하고 바로 전하고 함께 누리고 부처님 법 전합시다"라고 외친 뒤 "이 구절을 잘 명심해 마음에 새기면 좋겠다. 동아리 창립을 축하하고 또 축하한다"고 말했다.

주지 호산 스님은 각 동아리 지도법사를 임명했다. 서정대 국제 불교동아리는 인공 스님, 서정대 국내 불교동아리와 신한대는 혜명 스님, 경복대는 묘수 스님이 각각 지도법사를 맡았다.

호산 스님은 "무엇보다 오늘의 주인공은 동아리 교수님과 회원들이다. 여러분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 진정한 불자가 되길 당부한다"며 "다음 연합법회는 법당 밖에서 더 많은 학생들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 입장 명확히 하라"

조계종 중앙종회 종교특위
이승만기념관 건립 관련
서울시 관계자들과 면담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송현녹지광장 부지에 이승만기념관 건립을 추진한다고 밝힌 데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히 한 종교편향불교왜곡특별위원회(위원장 선광 스님, 이하 종교편향특위)가 오세훈 시장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종교편향특위는 3월 15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최경주 서울문화본부장, 박찬구 정무특보와 면담을 갖고, 서울시가 종교 중립의 자세를 가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위원장 선광 스님은 "이건희기념관 외 송현동을 시민공간으로 남겨두겠다는 서울시의 약속이 무색해졌다"며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승만은 역사적으로 공이 하나도 없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송현동을 시민공간으로 남기겠다는 약속을 확언할 때까지 저항하겠다"고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

최경주 문화본부장은 "이승만기념관 부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다. 다만 소통이 잘 안 돼 오해를 산 것 같다"며 "잘못된 전달로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스럽다"고 전했다.

하지만 오 시장은 지난 2월 23일 제32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현재로서는 (이승만기념관 부지로) 가능성이 가장 높게 거론되는 곳이 송현광장"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종교편향특위는 마치 송현광장이 이승만기념관 부지로 확정된 것처럼 언급한 오 시장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선광 스님은 "오 시장의 발언은 분명 송현광장을 부지로 확정하고 이를 공론화하겠다는 뉘앙스였다"며 "이에 대해 오 시장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또한 "불교계는 공론화 이후에 설득하면 된다는 오 시장의 논리는 문제가 많다"며 공론화 과정에서 불교계를 배제하려는 오 시장의 태도에 불쾌감을 표했다.

종교편향특위는 서울시의 태도도 지적했다. 부지 마련 등 이승만기념관 건립과 관련된 모든 사안은 건립추진위원회가 맡아야 함에도 이를 서울시가 대신 해주고 있다는 것. 선광 스님은 "서울시가 건립추진위원회의 일을 대신해줄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종원 스님(중앙종회의원)은 "종교편향특위는 종교를 떠나 이승만이 시민공간에 기념관을 세울만한 인물인가에 대해 의견을 전하는 것"이라며 이번 사안이 종교계뿐만의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종교편향특위는 조속한 시일 내 오 시장의 입장 표명이 없을 시 행동으로 나설 것을 예고했다. 이민우 기자

"신불산 케이블카, 자연훼손 막대"

통도사 · 시민환경단체 연대해
울주군 케이블카 사업 반대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가 "영남알프스 케이블카는 자연과 문화유산을 망치는 개발사업이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통도사는 3월 21일 울주군청 앞에서 영남알프스(신불산)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개최했다.〈사진〉 궐기대회에는 통도사 영축환경위원회를 비롯해 울산불교환경연대, 영남알프스(신불산)케이블카 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 울산기후위기비상행동이 연대했으며, 통도사 본말사 주지 스님 및 신도 300여 명이 참석해 케이블카 사업을 규탄했다.

영축환경위원회 위원장 현범 스님은 "영남알프스 자연경관은 길이 보전해야 할 공공재다.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한 전유물로 허가하는 것은 공익보다 사익을 우선하는 특혜"라고 성토했다. 이어 "울주군 스스로 환경적으로 좋지 않은 노선이라 평가한 곳인데도 추진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영축환경위원 진각 스님은 "케이블카 설치는 통도사 수행환경의 훼손을 초래하고 세계문화유산 산지승원 통도사의 자연적 문화적 가치에 심각한 침해를 가할 것"이라 우려했다. 조계종 환경위원장 화평 스님도 "통도사 수행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지역경제를 위한다는 개발의 공업은 현 세대는 물론이고 후대의 자손들이 짊어질 큰 짐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사부대중은 다라니 기도와 정근, 〈자애경〉을 함께 독송하며 생명나눔 기도를 이어갔으며 케이블카 사업을 반대하는 결의를 굳건히 다졌다. 규탄은 계속돼 안승찬 영남알프스케이블카반대범시민대책위 공동대표와 울산환경연대 천도 스님, 원각사 반산 스님의 성토로 이어졌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더불어민주당, 총선 앞 불교공약 발표

전통문화불교특위 출범…전통사찰 규제완화 강조

지난달 국민의힘이 불교분과위원회를 출범한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역시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불교계 표심잡기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3월 20일 중앙당사 4층 회의실에서 전통문화불교특위 출범식을 열고 불교계와 관련된 공약을 발표했다.

김부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불교계가 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데 그동안 정치권의 지원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전통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을 만큼 중요한 불교문화 발전과 개선에 앞장서겠다. 규제를 과감히 없애고 다양한 정책을 펼쳐 미래세대에 우수한 불교문화가 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영배 전통문화불교특위 위원장은 "불교문화를 포함한 전통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일을 민주당이 해내겠다"며 "불교의 화쟁 정신을 비롯해 불교적 가르침대로 평화와 화합의 세상을 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 전통문화불교특위는 이날 불교계를 위한 공약으로 △전통사찰 기능 회복을 위한 토지 이용 제한 등 규제 완화 △불교문화유산 지원 사업 강화 △사찰림의 공익적 가치 보전을 위한 제도 개선 3가지를 발표했다.

김영배 위원장은 "불교정책공약은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와 긴밀한 협의를 마치고 발표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전통문화불교특위와 함께 불교계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전통문화의 지속적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출범식 전 당사를 찾은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우봉 스님은 전통문화불교특위에 지난 13일 발표된 〈국민 행복과 전통문화 전승을 위한 정책 제안〉 자료집을 전달했다.

이민우 기자 alsdn285@naver.com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인증 승려연수과정

2024년 승려연수교육

현대인을 위한 생활 수행과 포교



▶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 생활 속 참선 수행의 원리와 교육방법
- 4차 산업혁명의 불교적 의미 고찰
- 대승기신론의 시각으로 본 일심 / 마음과 과학
- 변화하는 시대의 사찰 운영 사례
- 세대별, 대상별 다채로운 법회프로그램 등

일 정 : 2024년 8월 28일(수) ~ 30일(금) 2박 3일
장 소 : 경주 황룡원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
강사진 : 한자경 교수(이화여대), 박종래 교수(서울대),
이창수 교수(경희대), 황수경 교수(동국대) 등
교육비 : 20만원 (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선원과학원)
조계종 승려연수인증과정(30점)
정 원 : 50명 (선착순 마감)
문 의 : 031-470-3200 (월요일 휴무)
웹사이트 : http://www.hansi.org

QR코드를 스캔 하시면
바로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대행 선사 한마음 사상, 번뇌 원인 제거하는 치유철학”

대행선연구원, 3월 16일 제18회 계절 발표회 개최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치유철학 관점 한마음 사상 조명
일심 개념을 한마음, 주인공으로
주인공은 마음수행을 돕는 개념
내맡겨 괴로움 근원 해결해 치유

“처음 공부할 때 아무 방편이 없으면 허망해 어떻게 할 줄 모르기에 주인공이라 한 것이다. 마음이 주인으로서 모든 것을 형성시켰어도 모든 것이 또한 실답지 않기에 주인이자 빌 공(空) 자 ‘공’이니 주인공(主人空)이다. 문이 열려질 때까지 주인공을 잡고 가라. 주인공은 대문 빗장이다.”
–〈한마음요전〉 514~515쪽



대행선연구원은 3월 16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서 제18회 계절발표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발표회에 참석한 (사진 아래 왼쪽부터) 대행선연구원장 혜선 스님 ·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주지 혜솔 스님 ·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 · 한마음선원 제주지원장 혜묘 스님과 발제자 · 논평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는 모습.

묘공당 대행 선사(1927~2012)가 주창한 생활선 수행법인 ‘한마음 주인공 관법’이 “인간의 근원적 괴로움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 치유철학 체계로 구성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마음선원(이사장 혜수 스님) 부설 대행선연구원(원장 혜선 스님)은 3월 16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3층에서 제18회 계절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회에서 지혜경 연세대 철학연구소 전문연구원은 ‘치유철학으로서의 한마음 사상 연구’를 통해 대행 선사의 한마음 사상 전반이 중생의 치유에 초점이 맞춰진 사상·철학 체계임을 분석했다.

지혜경 연구원에 따르면 마음이라는 개념은 초기불교와 대승불교를 거치면서 ‘분별하기 이전의 생명의 본능’이라는 의미를 포괄하게 됐고, 이는 불성과 여래장 개념으로 발전됐다. 유식계열에서는 아뢰야식이 인간의 심층의식인 일심(一心)이고, 〈대승기신론〉 등에서는 여래장을 ‘일심’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지혜경 연구원은 “일심에 대해 원효는 모든 존재의 근원으로 이해했으며, 실상·진여·아뢰야식·불성·여래장 등과 동일시했다”며 “대행선은 원효의 일심 개념을 선불교의 전통 속에서 재해석하고 치유에 활용할 수 있는 개념으로 발전시킨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대행 선사가 보인 한마음 사상은 전통적인 마음담론과 용어를 수용하면서 ‘한마음’과 ‘주인공(主人空)’이라는 개념을 통해 기존 선불교와 차별화되는 새로운 철학체계를 세웠다.

지혜경 연구원은 “한마음이라는 용어를 통해 심층의식은 개인을 넘어 전체의 심층의식으로, 모든 존재 전체의 본원적 생명, 근거, 근원으로 확장된다”면서 “이 개념은 나와 타자를 분리시킬 수 있는 사유의 가능성을 제거하고, 나와 타자를 평등하게 볼 수 있게 도와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인공은 수행자를 위해 방편적으로 세운 이름이다. 대행 선사는 주인공에서 마지막을 ‘공(空)’으로 표현함으로써 수행 주체를 실체로서 집착하게 되는 것을 방지한다”면서 “주인공은 수행의 직접적인 주체이며 대상이 되면서도 실체가 아니다. 주인공은 업을 소멸할 힘이 있는 개인의 수행을 위한 한마음의 다른 이름”이라고 강조했다.

주인공의 힘을 이끌어내는 방법은 참나(주인공)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대행선의 수행법은 간단하다. “주인공을 모든 것의 근원으로 믿고, 고통·슬픔·기쁨 등 모든 것을 주인공에게 내맡기고 돌려놓는 것”이다.

그렇다고 맡긴다는 것이 절대자에게 구복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지혜경 연구원에 따르면 구복적 기도는 “맡기는 나(거짓 나)가 받아들이고 소원을 들어주는 나(주인공)를 분리하기 때문에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한다는 주인공 수행에 어긋나는 방식”이다. “주인공이 모든 일의 주체라는 굳건한 믿음을 갖고 나의 욕심을 내려놓되 자신의 몫을 그냥 하는 것”이 대행 선사의 ‘한마음 주인공 관법’의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지혜경 연구원은 “주인공 수행은 모든 것을 주인공에게 맡긴다. 내맡기는 방법은 언제든 ‘주인공’이라고 마음속으로 외치면 된다”면서 “믿음에 의한 주인공 수행은 주인공을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로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과 내가 하나가 되게 한다. 주인공은 바로 한마음이기에 그 순간 우주 근원으로부터 분리됐던 내가 근원으로 다시 결합하게 된다. 이것이 주인공에게 내맡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마음과 실천적 수행 이론인 오공법을 통해 모든 존재가 하나임을 알려주고, 주인공을 한마음과 에고의 매개 개념으로 세워 수행을 용이하게 돕는다”면서 “이처럼 대행 선사의 한마음 사상은 인간의 근원적 괴로움과 불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치유철학 체계”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날 발표회에서는 김성옥·이관수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교수가 공동으로 ‘자타의 구별 없는 한마음의 이해’를 발표했다. 이들은 사람을 비롯한 여러 생명체들의 마음이 독립적인 단일체일 수 없다는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나의 마음은 항상 다른 마음의 영향을 주고받으며 변화하는 것이어서 자타의 구분이 없는 것임을 강조했다.

발표회의 좌장은 윤종갑 동아대 초빙교수가 맡았으며, 논평자로는 안환기 서울불교대학원대학 교수, 이병욱 보조사상연구원장, 오진영·최원섭 대행선연구원 연구원이 참여했다.

또한, 2023년부터 시작한 한마음선원 지원 소개에서는 제주지원장 혜묘 스님이 제주지원 도량 현황과 불사 과정을 소개했다.

발표회에 앞서 진행된 개회식에서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대행 선사의 한마음 사상이 다양한 연구를 통해 널리 알려지길 기대했다.

혜수 스님은 “대행 선사께서 설하신 ‘한마음’이 얼마나 많은 주제로 돌아갈 수 있고 쓰일 수 있는지 학술대회와 계절 발표회를 하면서 수없이 느낀다”면서 “대행선연구원이 발간하는 학술지 〈한마음연구〉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한마음연구〉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가 될 수 있도록 사부대중이 마음을 모아달라. 〈한마음연구〉가 등재지가 된다면 선사의 가르침을 전 세계에 증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행선연구원장 혜선 스님은 개회사에서 “한국연구재단 등재지가 되려면 90여 가지의 등재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현재 5월까지 심사에 등록하기 위해 서류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대행 선사의 가르침을 기록하고 연구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세대 전승을 담보할 수 없다. 그래서 〈한마음연구〉가 국가 학술지로 등재되길 발원하고 또 발원한다”고 밝혔다.

“인종차별 뛰어넘어 함께하는 한국 사회 되길”

조계종 사노위, 3월 21일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유엔에서 인종차별을 막고 다양한 인종이 함께 화합하는 세상을 위해 제정한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매년 3월 21일)을 맞아 불교계가 서울 한복판에서 인종차별 철폐와 화합의 메시지를 전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스님)는 3월 21일 서울 조계사에서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인종의 벽을 뛰어넘어 사랑과 자비의 정신으로 모두가 함께 어울리는 한국 사회를 기대했다.

기자회견은 사노위스님들의 인종차별철폐의 마음을 담은 기도로 시작됐다. 사노위원장 지몽 스님은 “부처님은 인종의 차별뿐만 아니라 어떠한 형태의 차별도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화합과 평화를 강조하셨다”며 “배고프고 추운 짐승들도 보호해 주어야 하거늘 땅바닥에 내몰린 사람들을 더 궁지로 내모는 지금 인류의 모습은 사람의 참 모습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사회의 인종차별도 정부가 적극 나서서 해소해야 하지만 역대 정부는 이주노동자, 난민 등에 대하여 아주 배타적이고 반 인권적이었다”며 “정부는 경제적 수치만을 가지고 선진국이라는 이름을 붙여서는 안 되며, 소수자, 약자들에 대한 배려, 자비, 더불어 삶이 국가의 중요한 지표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사회에서 누구보다 인종차별의 벽을 마주했을 이주민 대표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사라 한국이주인권센터 여성아동지원팀장은 “누구나 신체적,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을 순 있지만 그러한 차이를 근거로 특정 집단을 멸시하고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차이를 빌미로 일부 집단을 차별하고 박해하는 현상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노위가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모두가 함께 어울리는 한국사회를 기원했다.

이주민 대표들의 발언이 끝난 후 혜문 스님과 박정형 한국이주센터 사무국장이 대표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지구상의 인종차별이라는 어리석음이 사라지고 인종문제로 벌어지는 모든 폭력, 고통이 없어져, 모든 인류가 평등, 평화, 평온의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기도한다”고 전했다.

이민우 기자

범어사·해봉문도회 ‘천년을세우다’ 동참

범어사 1억원 · 해봉문도회 5000만원 희사

조계종 제14교구본사 금정총림 범어사와 해봉문도회가 종단 핵심 불사인 ‘천년을세우다’에 각각 기금을 희사했다.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은 3월 18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기금을 전달했다.〈사진 왼쪽〉진우 스님은 감사를 표한 뒤 “주지스님 취임 이후 금정총림과 범어사가 안정화되고 대중들도 잘 화합해 나가는 것 같아 마음이 놓인다. 한마음 한뜻으로 부산불교를 선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오 스님은 “부산불교 중흥과 종단 숙원사업 참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정오 스님은 “오는 10월 5일 범어사와 부산불교연합회 신도들이 함께 경주 마애부처님을 친견하고 불사의 원만회향을 위해 기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봉당 자승 대종사 제자들의 모임인 해봉문도회도 3월 20일 ‘천년을세우다’에 5000만원을 기탁했다.〈사진 오른쪽〉 예방에는 문도회 운영위원장 탄원 스님을 비롯해 탄암·오심·허허·탄보·탄정·탄무 스님이 참석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어른스님(자승 대종사)께서 계실 때 여러 불사와 포교, 전법을 위해 애쓰셨고, 그 뜻을 종단차원에서도 잘 받들어 이뤄나갈 것”이라며 “문도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호섭 · 이민우 기자




수원 봉녕사, 승가대학·대학원 입학식

3월 16일, 경내 대적광전서
승가대학 7명 · 대학원 9명



묘엄 스님의 유지를 이어 비구니 교육에 힘쓰고 있는 계율도량 수원 봉녕사(주지 진상 스님)가 3월 16일 경내 대적광전에서 ‘봉녕사승가대학 및 봉녕사금강율학승가대학원 신입생 입학식’을 거행했다. 올해 봉녕사에는 승가대학 7명, 승가대학원 9명(전문과정 7명·연구과정 2명) 등 총 16명이 입학했다.〈사진〉

봉녕사 주지 진상 스님은 환영사에서 “지금까지 받는 삶을 살아왔으니 앞으로는 내가 가진 것, 고집, 번뇌, 나쁜 습관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음을 닦아 주는 삶으로 바꾸어야 한다”며 “여러분들이 입학해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수행의 기틀을 만들고 실천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모든 이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수행자가 되길 기원한다”고 축하했다.

재학생을 대표해 승가대학 입승 능현 스님은 “처음 겪게 될 강원 생활이 낯설고 어렵겠지만 도반스님들과 화합하고 스스로를 살피다 보면 무시이래 쌓아 온 내 습관들을 조금씩 바꿔나갈 수 있는 인욕의 복밭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함께할 즐겁고 어려운 모든 순간이 좋은 인연, 좋은 날이 되도록 처음 마음속에 발원했던 신심을 버리지 않고 열심히 생활하자”고 격려했다.

이날 입학생들에게 봉녕사는 합격증서와 꽃다발을, 봉녕사 신도회는 입학축하금 등을 전달했다.

김내영 기자

“RHS명상상담, 보살 삶 실현 도와야”

조계종 포교원, 포교종책 연찬회 개최

“RHS명상상담은 ‘고통의 완화와 치유’라는 상담의 목표는 같으나 도달하는 방식에서 차별화된 특징이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고통 완화에 초점이 맞춰지긴 했지만, 그다음 단계인 연기적 삶, 보살의 삶을 실현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담자들을 안내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한국명상심리상담연구원장 서광 스님이 조계종 포교원(원장 선업 스님)이 3월 15일 개최한 ‘제83차 포교종책 연찬회-명상상담의 현황과 과제’ 발제자로 참여해 이같이 말했다.〈사진〉

서광 스님은 ‘명상상담에 대한 이해·전망·과제:RHS명상상담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RHS명상상담의 정의와 특징, 활용방안, 지향점 등을 제시했다. ‘RHS(Recovering the Human Spirit)명상상담’은 인간 본연의 정신(영성)을 회복한다는 의미로, 전통 불교수행을 기반으로 서양의 정신치료와 명상과학(뇌과학)이 결합된 다양한 명상기법을 사용해 현대인들이 당면한 심리적, 사회적, 대인관계 등 삶의 문제를 통찰하고 해결하도록 돕는 것을 말한다.



이날 서광 스님은 RHS명상상담의 활성화 방안으로 △상담의 목적이 치유에서 깨달음을 향한 수행으로 발전할 것 △기존 상담이 갖는 접근성과 대중성의 한계 극복을 위해 어플리케이션, AI 등 4차 산업과 연계 △RHS명상상담 전문가 훈련·배양 시스템 개발을 제안했다.

김내영 기자

문화사업단, 외국인 1천명에 템플 할인

1박 2일 3만원에 제공
공식 홈페이지서 접수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외국인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만당 스님, 이하 문화사업단)은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외국인 특별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3월 18일부터 템플스테이 공식 홈페이지(www.eng.templestay.com&www.templestay.com)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외국인에 한해 선착순 1000명을 모집하며, 1박 2일 템플스테이를 3만원에 체험할 수 있다.

사찰별 대표 체험 프로그램은 서울 화계사의 범종체험 및 스님과의 대화, 인천 연등국제선원의 선명상 및 걷기명상, 강원 낙산사의 108배와 108염주꿰기, 경북 김천 직지사의 명적암 암자 포행, 전남 구례 화엄사의 스님과의 차담 등 28개 사찰이 참여하고 있다. 자세한 프로그램은 템플스테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화사업단장 만당 스님은 “템플스테이는 나이와 종교, 국적을 불문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한국 대표 전통문화 콘텐츠”라며 “지난해 2023 한국방문의 해 연계 외국인 특별 템플스테이에 이어 올해도 외국인들에게 한국 전통문화를 알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행복하기 위한 선택이었던 출가, 참 잘했죠”

조계종 미래본부 공동기획 **출가를 말하다** 한산 스님&무여 스님

3월 17일은 부처님 출가절이다. 한 나라의 왕자로서 남 부러울 것 없는 삶을 뒤로 하고 진리를 체득하기 위해 ‘위대한 포기’를 시작한 날. 하지만 한국불교는 출가자 급감이라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속세와의 연을 끊어야 한다든지 또는 난해한 교리 공부와 수행이라는 인식이 출가를 더 멀게만 느끼게 하는 건 아닐까. 이에 본지와 조계종 미래본부는 출가를 더 현실적이고 대중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공동기획 ‘출가를 말하다’를 두 차례에 걸쳐 게재한다. 두 번째 순서로 한날한시에 출가한 속가 자매이자 출판이라는 사회 경력을 살려 많은 이들의 행복을 서원하는 한산 · 무여 스님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울산시립미술관 내 북카페에서 만난 한산 스님(사진 왼쪽)과 무여 스님. 행복한 삶을 위해 출가했고, 출가의 결과로 마주한 행복을 감사한 마음에 담아 회향하고 있다. 출판사 그봄을 운영 중이며 〈100일 감사일기〉 〈지금 여기 감사일기〉와 불교 컬러링북 〈날마다 부처님〉을 출판했다.



〈지금 여기 감사 일기〉를 펴낸 한산 스님이 저자와의 북토크를 하는 모습.



컬러링북 〈날마다 부처님〉 도안을 손수 그린 무여 스님.

하성미 기자 jayanti@hyunbul.com

20대 나이에 제법 성공한 출판사 편집자.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하는 일도 잘 풀리니 어느샌가 콧대가 높아졌다. 하지만 나름대로 이른 성공을 만끽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전혀 행복하지 않다는 느낌이 늘 남아있었다. ‘도대체 왜 그럴까?’

그렇게 2008년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던 어머니를 모시고 대구 유가사 템플스테이에 참여했다. 평생을 불자로 살아온 어머니와 달리 불교가 낯설었던 20대 젊은 여성은 태어나 처음으로 스스로의 마음과 마주하는 기회를 가졌다. ‘내가 평소에 이렇게 많은 생각을 했었나?’

길지 않은 템플스테이를 마친 그는 집에 돌아가지 않았다. 직장에 휴가를 내고 봉사를 하면서도 그 후 1년 동안 꾸준히 템플스테이 지도법사 스님들과 만남을 유지했다. 연년생 동생은 이런 언니의 모습이 그저 생경하기만 했다. 어려서부터 막역하게 많은 것을 나누며 살아온 자매. 편집디자이너로 평범한 직장생활을 하던 동생도 어느새 언니를 따라 자연스럽게 스님들과의 만남을 이어갔다. 그리고 2010년, 자매는 한날한시에 같은 은사스님을 모시고 양산 내원사에서 출가해 각각 한산·무여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처음엔 사이비에 홀린 게 아닌가 의심했다니까요.”

3월 17일 출가재일을 맞아 울산시립미술관 북카페에서 만난 한산 스님과 무여 스님. 출가인연을 읊어가던 동생 무여 스님의 한마디에 한산 스님이 함박웃음을 지었다. 종교라고는 관심도 없던 둘째 언니가 직장까지 관두고 스님들을 만나는 모습이 동생으로서 보기에도 적잖이 당황스러웠나보다.

“템플스테이를 하면서 출가한 스님들을 뵙게 되잖아요? 그 모습이 제 눈에 너무나 행복해보였습니다. 저도 행복하게 살고 싶었거든요. 스님들의 모습을 꾸준히 보면서 자연스럽게 출가를 결심했어요.”

행복하기 위해 출가했다는 한산 스님. 그 말에 중생구제라는 대발심과 진리를 향한 정진을 다지는 거룩한 결의가 있어야만 할 것 같은 고정된 출가 관념이 사라지는 듯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수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행복을 목표로 출가를 꿈꿔도 되는 걸까?’라는 물음이 뒤따랐다. 이런 기자의 표정이라도 읽은 듯 한산 스님은 미소 지으며 ‘자리이타(自利利他)’의 정신을 설명했다.

“스스로 먼저 행복해야 해요. 자신이 행복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 할 수 있다고 해도 그건 의미가 있는 일일까요? 내가 행복해야 또 다른 사람을 행복의 길로 안내할 수 있잖아요.”

사회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성공’을 위해 청춘을 밤낮으로 내던졌던 한산 스님이 내뱉은 ‘행복’이라는 단어는 평소와

출판사 편집자로서 성공했지만
행복함 느끼지 못한 한산 스님
모친과 함께 템플스테이 참가해
스님들 모습에서 행복함 느껴
동생 무여 스님에게 출가 제안

달리 조금 더 진하게 다가왔다. 돈이야말로 행복을 가져다주는 열쇠라고 생각했던 시절,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애쓰던 모습. 그 뒤에 찾아온 건 행복이 아니라 마음 깊은 울화통과 분노, 원망이었다.

매일 밥 먹듯이 야근하고 대중교통이 끊겨 택시를 타고 퇴근하는 삶을 살던 무여 스님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때는 그저 많은 직장인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괜찮다는 생각으로 지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버틴 것이었다. 그래서 언니가 제안한 출가 권유도 저항보다는 수긍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저는 정말 수많은, 평범한 직장인 중의 한 명이었어요. 야근은 당연한 일이고 내 삶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해볼 여유도 없었죠. 한산 스님에게 출가 권유를 받았을 때 ‘지금이 아니면’이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어요.”

두 눈으로만 보던 스님들의 삶을 시작한 한산 스님과 무여 스님. 중앙승가대에 입학한 두 스님은 우연한 인연으로 출가 전 경력인 출판 경험을 살릴 기회를 맞았다. 출가 인연이 된 스님과 함께 대중생활을 하면서 직접 책을 만들면 좋겠다는 의견이 모였고 출판사 편집자였던 한산 스님, 편집디자이너였던 무여 스님의 재능기부가 만나 빛을 발했다. 책 자체도 판매용보다는 법보시에 중점을 두고 제작하면서 복잡한 절차도 거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출판사 ‘이층버스’다. 대승(大乘)의 의미를 담아낸 표현이다.

출가 전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었던 재능이 새로운 변신을 맞이한 순간이었다. 한산, 무여 스님의 삶이 참된 행복의 길을 걷기 시작하자 재능도 함께 변해 가치를 더했다.

이후 스님들의 행보에는 편집과 출판이 당연한 듯 뒤를 따랐다. 그 자체가 행복 법문의 소통 도구가 된 것. 스님들은 많은 이들의 행복을 서원하며 ‘창작집단 일상다감사’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네이버 카페에 100일 동안 일상을 함께 나누는 공감의 장을 운영하고, 그 결과로 나온 책이 〈지금 여기 감사 일기〉다.

〈지금 여기 감사 일기〉는 모두와 함께 나눈 감사일기 수행법을 정리해 낸 책이다. 이어 무여 스님은 불교 컬러링북 〈날마다 부처님〉을 출판했다. 〈날마다 부처님〉은 사경과 사불을 함께 할 수 있는 컬러링북이다. 부처님을 생각하며 무여 스님이 평소 그린 그림을 모은 것이다.

이 책들은 2022년 스님들이 정식으로 만든 출판사 ‘그봄’에서 출간했다. ‘그대로 봄’, 지관(止觀)을 의미하는 출판사를 통해 스님들은 이제 더 많은 이들과 행복을 나누기 시작했다.

“이 책들과 함께하면서 나름대로의 행복을 찾고, 그로 인해 출가의 길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출가를 너무 어렵고 힘든 것으로만 여기지 마시고, 한번쯤 나를 진심으로 돌아보는 기회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행복 찾아 떠나는 여행, 그것이 바로 출가입니다.”



지안 대종사, 제자 12명에 강맥 전수

통도사 반야암서 전강식 봉행
백파 긍선, 설두 유형 맥 이어
비구·비구니 각 6명 전강 제자
"부처님 가르침 더욱 창달되길"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요산 지안 대종사가 반야암 반야보전에서 전강제자들에게 강맥을 전수하고 있다.

요산 지안 대종사의 강맥전수 전강식이 3월 20일 통도사 반야암 반야보전에서 개최됐다. 지안 대종사는 '부종수교(扶宗樹敎) 전법도생(傳法度生)'을 강조하며 "부처님의 혜명(慧明)을 잇고 수행 정진해 일방(一方)의 사표가 될 것"을 당부했다. 전강식에는 지안 대종사를 비롯해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과 전강 제자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전승강맥은 백파 긍선(白坡 亘璇), 설두 유형(雪竇 有炯), 설유 처명(雪乳 處明), 한영 영호(漢永 映湖), 운허 용하(耘虛 龍夏), 월운 해룡(月雲 海龍)에서 요산 지안(樂山 志安)으로 이어졌으며, 이날 법회에서 설곡 정인(상주 황령사 주지), 허웅 탄대(서울 원통사 주지), 무악 신경(통도사 포교국장), 허암 인경(울산 신흥사 주지), 성담 법본(서울 약사사 총무), 석륜 성구(진주 백운사 주지), 설향 혜봉(남해 불지암), 은담 규정(의정부 여래사 주지), 천해 현산(진안 천황사 주지), 각륜 도업(동국대 미래융합교육원 강사), 소하 돈각(조계종 교육아사리), 월조 효신 스님(조계종 포교원) 총 12명에게 전승됐다.

지안 대종사는 제자에게 전강게를 수여하며 게송이 지닌 의미를 설명하고 전법을 펼쳐 교화의 공덕을 세워갈 것을 강조했다. 지안 대종사는 "소납이 강맥을 전수하는 또 한 번의 인연을 만난 것이 기쁘면서도 한편으로 자신의 부덕함을 생각하면 송구스럽기도 하다"며 "다만 이런 인연을 통해 새로운 신심과 원력으로 부처님 법이 더욱 창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전강식은 수행 이력을 쌓아온 스님들이 또 하나의 성숙한 자취를 남기는 자리다. 앞으로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면서 교화의 공덕이 더욱 높아지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은 "지안 스님은 큰 스승이시며 많은 스님들을 지도하고 가르치신 대강백"이라고 상찬한 뒤 "제자스님들이 그동안 수행 정진의 결과로 전강을 받았다 여기며 진심으로 축하한다. 앞으로 큰스님께서 더욱 건강하셔서 많은 제자를 길러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은 "지안 큰스님께서는 승속을 막론하고 가르침을 주셨고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오늘 또 모여 축하를 하고 있다"며 "스님께서는 마지막 전강이라 하셨지만 그 말이 무색할 정도로 부처님 가르침을 잇는 전강식이 지속적으로 열리길 기대한다.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축사했다.

요산 지안 대종사는 1970년 벽안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통도사 강원에서 경전을 공부한 후 15년간 통도사 강주를 지냈으며, 10년간 은해사 승가대학원장을 역임했다. 한문불전대학원장, 조계종교육원 부설 서울불교전문강당, 서울불학원 원장 등을 맡아 오랫동안 승가교육에 힘써왔다. 이뿐만 아니라 교육원 역경위원장으로서 역경불사에도 앞장섰다. 또 승가고시가 시행된 이후 오랫동안 고시위원장을 지내 각급 승가고시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했다.

지안 대종사는 '비유컨대 어둠 속의 보물은 등불이 없으면 볼 수 없듯이 부처님 법을 설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비록 지혜로운 이라도 알지 못한다'는 〈화엄경〉 게송을 마음에 담고 승가교육 발전에 앞장서 왔다. 〈금강경 이야기〉 〈금강경 바로 읽기〉 〈경전으로 시작하는 불교〉 〈기신론강해〉 〈기신론신강〉 등 다양한 경전을 번역하고 20여 권의 저서를 펴냈다.

범어사 "대학생 전법 꾸준히 지원" 약속

부산대 동아리 부산바라밀과
대학생전법단 지정법회 봉행



금정총림 범어사의 대학생전법당 지정법회.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과 지도법사 정수 스님을 비롯해 대학 불교동아리 회원들이 합장하고 있다.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정오 스님)가 대학생 전법의 첫 시작을 알렸다.

범어사는 3월 16일 경내 보제루에서 '리부팅 리붓다(Rebooting Rebuddha) 금정총림 범어사 대학생전법단 지정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법회는 대학생 전법을 위한 범어사의 구체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선포였다. 법회에는 주지 정오 스님과 지도법사 정수 스님(호법국장)을 비롯해 김건우 부산대 불교바라밀 회장과 불교바라밀 학생들, 진주 경상대 불교동아리 학생들이 참석했다.

주지 정오 스님은 "오늘 불교와의 인연은 과거부터 이어온 중요한 만남의 결과이고 앞으로도 귀한 인연으로 삶이 행복하시기를 기원한다"며 "범어사는 대학생 전법을 위해 지원을 약속하고, 여러분이 부처님 법을 통해 인생을 더욱 아름답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도법사 정수 스님은 "도량에 핀 매화를 만난 것처럼 여러 학생들과의 인연이 행복하다"며 "앞으로 부처님 법을 알아가면서 더욱 의미 있는 삶의 행복을 마주하시길 바란다. 저도 여러분과의 더 좋은 만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환영했다.

불교바라밀 학생들은 발원문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저희들은 건전한 청년 문화를 가꾸어 나갈 것"이라며 "진정한 자신의 존재를 바탕으로 이 땅에 불국토를 성취하는 참다운 불자가 되겠다"고 서원했다.

부산대 불교동아리 부산바라밀은 1985년 창립해 현재 학부생 및 대학원생 등 총 11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부산대 중앙동아리에 등록된 공식 동아리이다. 범어사는 불교바라밀의 지도법사 부재 문제를 해결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전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원을 약속했다.

금정총림 방장 정여 대종사는 안양암으로 찾아온 학생들을 격려하고 염주와 다포를 선물했다. 학생들은 감사 인사로 삼배를 올렸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이도경 부산지사장

행복선명상 김해서 '명상지도사 양성'

김해 바라밀선원 2급 과정
3월 15일 개강…15명 동참

〈대념처경〉의 가르침 '알아차림'을 근본으로 불교명상을 지도하는 행복선명상이 김해지부로 확산해 본격적인 명상지도사 양성에 돌입했다.

영도문화복지재단(이사장 하림 스님) 부설 CM명상상담센터(센터장 홍순하)는 3월 15일 부산 미타선원에서 제7기 명상지도사 2급 자격과정을 시작했다. 특히 김해지부인 김해 바라밀선원에서도 3월 19일 시작을 알리며 가야국제명상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처음 진행했다. 경남지역에 김해지부를 연 이후 정식으로 시작된 명상지도자 양성 과정이다. 이번 7기 명상지도사 과정에는 총 52명이 신청했으며 미타선원에서는 37명이, 김해바라밀선원에는 15명이 수업한다.

CM명상상담센터는 2019년 9월 행복선명상지도사 자격과정을 설립했으며 이후 활발한 활동을 통해 불교명상을 알려왔다. 현재 2급은 178명, 1급은 79명 총 257명의 명상지도사를 배출했다.

CM명상상담센터는 "부산에서도 사찰 두 곳에서 행복선명상 운영을 준비 중이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명상을 모두 함께 알고 행복의 길로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이윤희 부산불교연합신도회장 임명

2 · 3대 회장 이어 6대 회장에



부산불교연합신도회 제6대 회장으로 이윤희 태금정 대표이사〈사진 오른쪽〉가 임명됐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정오 스님)는 3월 15일 범어사 선문화 대강당에서 '부산불교연합회 제 54차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이윤희 태금정 대표이사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총회는 108명 가운데 총 71명이 참석했으며 14명이 위임했다.

이윤희 신도회장은 "과거 회장직을 맡았지만 이번에 다시 소임을 맡기신 것은 당시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라는 의미라고 생각한다"며 "포교에 앞장서서 많은 불자들이 부처님 앞에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부산불교연합회장 정오 스님은 "여러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도 우리 부산불교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여래선원 여여불교대학 344명 입학

도심 속 교육도량 자리 잡아



도심 속 포교도량인 부산 여래선원 여여불교대학(학장 효산 스님)이 3월 17일 여래선원 대법당에서 '2024년도 입학식'을 봉행했다.〈사진〉 올해는 불교대학 전문반 주간반 71명과 야간반 74명, 경전반 주간반 81명과 야간반 98명, 온라인반 22명으로 총 344명이 입학했다. 행사에는 학장 효산 스님과 최용규 총동문회장, 추현철 동의대 교수 등 내빈과 입학생들이 함께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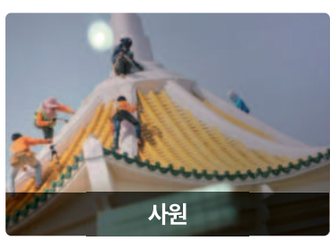
학장 효산 스님은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출가재일에 입학한 불교대학 5기 여러분들과 함께하니 정말 행복하고 좋은 날이다.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출가인 심출가를 하는 것"이라며 "부처님 말씀 잘 배워가면서 감사한 마음의 씨앗을 뿌리면 언젠가는 훌륭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체질 개선과 건강 회복을 위한 합리적 조건
당신의 날씬한 건강이 시작되는 곳
'초록원웰빙'
since 1984
프리미엄 효소 제품과 다이어트 제품을 만나보세요
02-578-1708 강남점 (도곡동 467-24)
010-7384-1708 김영숙 대표


NAVER 초록원웰빙 검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만나요

PREMIUM 싸이렌 SAIREN
since 1996 DONGWHA INDUSTRIAL 동화특수산업(주)
유해 조류, 해충 및 동물 기피제
제품상담/시공문의 동화특수산업(주) 조류방제사업부
031-451-6232 / 010-3747-2111
조류 기피제 구조물용 건축물 등에 피해를 주는 조류를 대상으로 개발된 제품입니다.
모기·해충 기피제 천연 고급향료를 사용하여 개발된 제품입니다.
쥐 기피제 쥐를 해치지 않는 친환경 성분들로 개발된 제품입니다.
파충류 기피제 뱀, 도마뱀 등 파충류를 대상으로 개발된 제품입니다.
멧돼지 기피제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을 대상으로 개발된 제품입니다.
유해 조류(새)에 의한 피해 예방

문화재·사찰

사원

관음상

“송만공대선사구휼송덕비, 1931년 세워졌다”

경허록만공법어편찬위가 확인
비문 연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아
지난해 6월부터 조사·연구 진행
1931년 매일신보 기사 내용 동일
덕산면 주민에 의해 비문 세워져

신중일 기자 · 유재상 충청지사장

그동안 언제 조성된지 알 수 없었던 ‘송만공대선사구휼송덕비(宋滿空大禪師救恤頌德碑)’의 연원이 1931년으로 확인됐다.

경허록만공법어편찬위원회(상임위원장 도신 스님)는 “수덕사 만공기념관 옆에 위치한 ‘송만공대선사구휼송덕비(이하 만공선사송덕비)’가 1931년 덕산면 주민들이 중심이 돼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고 3월 19일 밝혔다.

만공선사송덕비는 1999년 수덕사 인근 마을 주민들의 제보를 받아 정묵 스님(동국대 불교학술원장)과 주경 스님(조계종 중앙종회의장)이 마을에 묻혀있던 비석을 발굴해 현재의 자리로 옮겨왔다. 하지만, 만공 선사의 공덕을 기리는 이 비석이 어떤 연유로 언제 세워졌는지는 알 수 없었다.

이후 동국대 불교학술원과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 수덕사가 협약을 맺고 경허록만공법어편찬위원회를 출범하면서 지난해 6월부터 만공선사송덕비와 관련된 조사와 연구들이 빠르게 이뤄졌다.

편찬위는 고신문아카이브에서 확보한 신문기사 중 1931년 5월 27일자 매일신보 기사에서 “정혜사 만공 선사가 덕산면 8개 리의 우박으로 인한 재난구제를 위하여 백미 17석(260원)을 베풀었으며 이에 대한 고마움으로 덕산면 8개 리 수백호의 가구들이 12전(100전=1원)씩 모아서 선사의 송덕비를 ‘덕산면 대동리 홍성통로’에 건립하는 중”이라는 기사를 발견했다. 이에 편찬위 실무진이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결과 만공선사송덕비의 내용과 당시 기사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

김민규 동국대 불교학술원 문화재연구소 전임연구원은 “일부 파손이 됐지만, 비석의 뒷면에 새겨진 신미년은 1931년이고, 비석을 보수한 부분에 가려진 글자와 마지막 6자는 소화 6년(1931)으로 볼 수 있다”며 “고휘도(HDR) 촬영을 통해 탁본하지 않고도 글자를 정확하게 판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덕사 만공기념관 옆에 있는 ‘송만공대선사구휼송덕비’의 모습.

전 덕숭총림 방장 설정 스님은 “수덕사에는 만공 선사의 유훈을 받들어 사리를 수습하지 않는 특별한 전통이 있다”며 “이러한 비석에 대해 만공 선사 당신은 부끄럽다 하실 것이나, 후손들에게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제대로 된 정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허록만공법어편찬위원회는 경허·만공 문도 사찰들의 지원 아래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경허록〉, 〈만공법어〉를 편찬·간행하고, 경허·만공 선사와 관련된 자료들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과 자료집 출간 등의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편찬위 실무위원장 주경 스님(동국대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장)은 “경허 선사께서 남긴 말씀 가운데 선과 관련된 내용을 별도로 뽑아 〈경허록〉으로 간행하고, 만공 선사의 법어집은 기존의 번역을 다듬고 새로운 자료를 추가해 〈만공법어〉를 간행하는 것이 1차적 목표”라며 “더불어 경허·만공 선사와 관련된 제반 자료를 모아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그 가운데 중요한 내용들을 뽑아 자료집으로 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편찬위 상임위원장 도신 스님(수덕사 주지)은 “〈경허록〉과 〈만공법어〉의 편찬에 있어 현대적인 번역과 옛 스님들께서 남긴 시대적 분위기와 철학을 잘 보존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조 혜명 잇는 정진, 대선사 추모하는 길”

덕숭총림, 원담 대선사 열반 16주기 추모다례

‘덕숭산 천진불’로 불렸던 원담 선사를 기리는 자리가 마련됐다.

덕숭총림 수덕사(주지 도신 스님)는 3월 20일 경내 대웅전에서 경허·만공 스님의 맥을 이은 ‘덕숭총림 제3대 방장 원담 대선사 열반 16주기 추모다례’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추모다례는 덕숭총림 방장 달하 우송 대종사와 전 조계종 총무원장 송원 설정 대종사를 비롯해 수덕사 주지 도신 스님, 동국대 불교학술원장 정묵 스님, 김종구 수덕사 신도회장과 본·말사스님들이 동참했다.

원담 선사의 제자인 설정 대종사는 “남아있는 후학들이 불조의 혜명을 이어가는 수행 정진을 하는 것이 은사스님을 추모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원담 선사는 근대 한국불교의 선맥을 세운 경허·만공 스님의 법맥을 계승했으며, 항상 자애롭고 천진하게 웃음을 띤 모습으로 인해 ‘덕숭산의 천진불’로 대중에 알려졌다.

한편, 수덕사는 ‘만공 대선사 탄신 153주년 다례’를 오는 4월 15일 오전 정혜사에서 봉행하고, 오후 수덕사 대웅전에서 보살계 수계산림 법회를 봉행할 예정이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쌍계사, 고산 대선사 열반 3주기 다례재

“방장실, 기념관으로 설계”

쌍계사(주지 지현 스님)가 고산당 혜원 대선사 열반 3주기를 맞아 3월 20일 경내 부도전과 팔영루에서 추모 다례재를 봉행했다.〈사진〉

이 자리에는 쌍계사 회주 영담 스님과 주지 지현 스님, 전계제자 덕민 스님, 보리암 성조 스님, 칠불사 도응 스님, 용문사 승원 스님을 비롯한 문도스님들과 쌍계사 본말사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고산문도회 문장 영담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고산 스님이 주석하시던 방장실은 먼 여행에서 다시 돌아온다는 의미를 담아 기념관을 설계중”이라며 “앞으로 쌍계사 가람수호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산 선사의 사리분배 봉정식도 진행됐다. 사리는 석왕사, 혜원정사, 보리암, 연화사, 용화사, 문수암에 분배됐다. 추모 다례재에 앞서 대중스님들은 영모전을 참배하고 고산 선사의 다비식 당시 재를 묻은 나무 3곳과 부도탑 가는 길 ‘불식촌음’ 안내 표지석을 제막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화엄불교대학 36기·수현불교대학 7기 입학식

51명 · 25명 각각 입학
걸음마 학당에도 7명

조계종 제17교구본사 금산사에서 운영 중인 전주 대표 신도전문교육기관 화엄불교대학(학장 일원 스님, 금산사 주지)과 수현불교대학(학장 일원 스님)이 일제히 입학식을 봉행하고 본격적인 교육과정에 돌입했다.

화엄불교대학은 3월 18일 전북불교회관 4층 큰법당에서 제36기 입학식을 봉행했다. 입학생 51명을 대표한 김경옥 불자는 신입생 선서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할 것을 서원했다.



3월 18일 전북불교회관에서 열린 화엄불교대학 제36기 입학식.

화엄불교대학장 일원 스님은 “오늘 입학한 신입생 불자들은 배움을 어떻게 이웃에게 되돌려 드릴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며 “불교에 정통한 강사님들을 초청해 불교를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여러 신행활동을 통해 정신적인 완성도와 잠재적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전주혁신도시 금산사 포교당 수현사 수현불교대학도 3월 20일 수현사 3층 큰법당에서 입학식을 거행했다. 수현불교대학 7기에 25명이, 불교 걸음마학당 1기에 7명이 입학했다.

학장 일원 스님은 신입생들의 입학을 허가 한 후 입학 치사를 통해 “여러분이 불교대학에 다니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마주할 수 있다”며 “내 마음이 나와 이 우주의 주인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내 마음과 내 발걸음을 항상 살펴서 궁극에는 성불의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입학식을 마친 화엄불교대학과 수현불교대학은 불교개설, 사찰안내, 부처님 생애, 예불문 강의, 반야심경 강의, 불교기초교리, 찬불가 배우기, 전통등 만들기 등의 강좌를 진행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군산대 ‘불동이들’ 수계법회… “참불자 될게요”

3월 16일 군산 관음사서

지난해 11월 재창립법회를 가진 군산대 불교동아리 ‘불동이들’이 오계를 수지하고 참 불자가 될 것을 서원했다. 군산대 불교학생동아리 ‘불동이들’(회장 김윤하)은 3월 16일 군산 관음사 대웅전에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수계법회에는 군산대 불교동아리 지도법사 도천 스님(관음사 주지)과 종하 스님, 설광 스님, 선운사 포교국장 해봉 스님, 지태 스님과 관음사 신도, 불동이들 회원 10명이 동참했다.

전계아사리 종하 스님은 “계라는 것은 악을 없애고 선을 드러내는 기본”이라며 “범부를 벗어나 성인이 되는 씨앗이 되는 것”이라고 오계를 설했다.

이날 계를 받은 10명의 대학생은 연비의식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성실하게 신행활동에 나설 것을 발원했다.



군산대 불교동아리 지도법사 도천 스님은 “새학기를 맞아 본격적인 신행활동에 앞서 수계법회를 봉행하게 됐다”며 “정식 동아리로 등록된 만큼 본격적인 신입생 모집 등 적극적인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각심’이라는 법명을 받고 ‘불동이들’을 이끌고 있는 회장 김윤하 학생(철학과 4)는 “오계를 수지하면서 이제 비로소 불자가 된 느낌이다”며 “동아리방도 새로 생기고 모범적인 신행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태고종 충북교구종무원 합동용왕대재

3월 17일 충주 중앙탑공원서

태고종 충북교구종무원은 3월 17일 충주 중앙탑공원에서 용왕대재를 봉행하고 충청도민과 국가의 행복과 안녕을 기원했다.〈사진〉

충북교구종무원장 도성 스님은 “부처님 탄생하실 때 연못에 있던 9마리 용이 물을 뿜어 태자의 몸을 씻겼다는 설화가 전해진다. 불교에서 용은 불법과 중생을 지키는 호법신장의 역할을 한다”면서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아 용왕대재를 통해 사회 대중들과 한국불교가 소통하고 가까워지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법문을 통해 “모든 이들의 소원을 이루고자 마련된 이 자리는 부처님 공부를 하는 자리기도 하다”면서 “법석을 열어준 충북교구 종무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태고종 충북교구 종무원은 오는 9월 28일 제2회 합동용왕대재를 충북 청주 무심천 일원에서 봉행할 예정이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고창 선운사불교대학 제3기 졸업식 봉행

3월 16일 선운교육문화회관서

고창 선운사불교대학(학장 경우 스님, 선운사 주지)이 3월 16일 선운교육문화회관에서 ‘선운사 불교대학 제3기 졸업식’을 진행했다.〈사진〉

선운사 불교대학을 졸업하는 서창수 불자 등 16명의 졸업생은 학장 경우 스님으로부터 졸업장과 조계종 신도 ‘부동’ 품계증을 받았다.

이어진 시상에서는 서창수·이지훈 졸업생이 조계종 포교원장상을 수상했다. 또 학장상은 김인숙· 송유진 졸업생, 교구본사주지상은 김익·윤종기 졸업생, 신도회장상은 이종천 졸업생, 원력상은 김광남 졸업생외 5명, 전북포교사단장상은 장혁진·유민정 졸업생이 수상했다.

선운사불교대학장 경우 스님은 “지금까지 익히고 배우는 것은 불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수준이고, 진정한 배움의 시작은 실천을 통해 삶의 지혜를 얻는 것”이라며 “실천이 없는 배움의 결과는 탁상공론일 뿐이다. 배우고 익힌 것을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불자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졸업생을 대표해 윤종기 불자는 “불교대학에서 배운 부처님의 진리를 저마다의 신심으로 승화시켜 불국정토와 전법과 포교, 자리이타행을 실천하는 참 불자가 되도록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 문빈정사·자비신행회, 자비의 떡 나눔

3월 14일 동구 재활용사업장서

광주 무등산 문빈정사(주지 법공 스님)는 (사)자비신행회와 공동으로 3월 14일 ‘법공 스님의 행복나눔 방앗간’을 개설하고, 동구 재활용 사업장을 찾아 작업자 140명에게 떡과 음료를 전달했다.〈사진〉

행복나눔 방앗간은 문빈정사 신도들이 부처님 전에 올린 공양미를 떡으로 만들어 지역 내 열악한 환경에서 작업하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기획되었다.

법공 스님은 “신도들이 부처님 전에 올린 공양미를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하고자 행사를 계획했다”며 “각 가정에서 배출한 재활용품을 분리하는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행복나눔 방앗간은 이날 쓰레기 수거업체에도 방문했으며, 향후 환경미화원 등을 찾아갈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진안 쌍봉사, 소외계층에 자비의 쌀 전달

경로당 등에 쌀 1000kg 기부

진안 쌍봉사(주지 보경 스님)가 사회복지법인 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진)에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자비의 쌀을 전달했다.〈사진〉

사회복지법인 진안읍 지회장을 겸하고 있는 쌍봉사 주지 보경스님은 3월 21일 쌍봉사 큰법당 앞마당에서 자비의 쌀 1000kg (10kg. 100포)를 전달했다. 진안 제일약국도 쌍봉사 자비나눔에 팥양갱 100세트(100만원 상당)를 후원해 그 의미를 더했다.

이날 전달된 자비의 쌀은 진안읍에 50포대, 진안군 10개 면에 각 5포



대씩 홀몸 어르신과 80세 이상 어르신 가정에 전달됐다.

쌍봉사 주지 보경 스님은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모여 식사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자비의 쌀을 전달하게 됐다”며 “쌀과 팥양갱을 받으시는 어려운 이웃들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일본 재가불교교단 신뇨엔을 창립한 개조 이토 신죠. 그는 '신뇨밀'이라는 새로운 법류를 만들어 재가불교 종파를 일으켰다.

"사람들에게 도움 되고 싶다"… 이타행으로 대중교화

이토 신죠(伊藤真乘)와 신뇨엔(眞如苑)

현대일본의 재가불교교단인 신뇨엔은 1936년에 개조(開祖)인 이토 신죠(伊藤真乘, 1906~1989)와 그의 부인이면서 영조(靈祖)인 이토 도모지(伊藤友司, 1912~1967)에 의해 창립돼 올해로 88주년을 맞이했다. 이토 신죠는 11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니는 일본밀교 진언종(眞言宗에)서 출가불교의 엄격한 수행을 마치었으나 재가불교의 길을 선택해 밀교의 수법(修法)이나 의식에서는 출가불교의 전통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대반열반경〉을 소의경전으로 삼아 재가에서의 신앙생활과 수행을 존중하는 교단을 확립했다. 이후 1967년에 영조, 1989년에 개조가 서거함에 따라 현재의 원주(苑主)인 이토 신소(伊藤眞聰, 1942~)로 법통이 계승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도쿄도 다치카와(立川)시에 총본부가 있으며, 한국, 미국을 비롯해 23개국에 약 130개의 사원이 있다. 현재 전 세계에 약 100만 명(일본에 90만 명)의 신도가 활동하고 있다.

이타심으로 출가수행 나서

개조 이토 신죠(이하 '신죠'로 약칭)는 1906년에 일본의 야마나시(山梨)현에서 태어났다. 소년기와 청년기에는 예술적 감성이 풍부했고, 동서양의 다양한 학문과 더불어 사진이나 라디오, 과학 기술에도 많은 흥미를 지녔다. 그의 가계는 불교 신심이 돈독했으며 특히 대대로 '보제이쇼(病筮鈔)'라는 역학이 전승돼 왔는데, 신죠는 부친으로부터 이를 배우게 된다. 20대 초에는 다치가와의 비행기 제작소에 항공 엔지니어로서 일하면서 한편 '보제이쇼(病筮鈔)'에 근거해 사람들의 고뇌 상담에 응하게 되는데, 이것은 그가 종교인으로서의 삶을 결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보다 많은 사람들의 삶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서원이 확립된 것이다.

이후 신죠는 1936년에 30세의 나이로 진언종 다이고파 (醍醐派)의 총본산인 교토의 다이고지(醍醐寺)로 출가 득도했다. 그리고 엄격한 수행을 거쳐 1943년 37세에 진언밀교의 전통법맥인 혜인권정(惠印灌頂)과 금태양부전법권정(金胎両部伝法灌頂)을 이어받아 대아사리(大阿闍梨)가 된다. 아사리란 밀교에서 깊은 교법을 닦아 제자를 가르칠 수 있는 스승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후 신죠는 1948년에 진언종으로부터 독립된 '마고토 교단'을 설립하고, 이를 1953년에 '신뇨엔'으로 개칭, 종교 법인으로 인가를 받게 된다. 여기에서 그는 진언밀교에 출가 수행한 후에 '신뇨삼매야류(真如三昧耶流)'라고 불리는 '신뇨밀(真如密)'의 새로운 법류를 만들어 하나의 재가불교 종파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그는 현대일본의 불교사에서 '개혁자'로 평가받고 있다.

재가자도 깨달을 수 있다

신죠가 재가교단을 설립하게 되는 배경에는 '보통 사회생활을 하는 재가신도도 수행과 정진을 통해 불성을 닦아서 출가승과 같은 깨달음과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하는 문제의식이 있었다. 그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믿었다. 이러한 확신은 특히 석존의 최후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대반열반경〉과의 만남을 통해 형성됐다. 신죠는 1956년부터 교단의 기관지에 열반경의 해설을 연재하기 시작했다. 더불어 다음해부터는 새로운 본존으로 대열반상의 근각에 들어갔다. 그는 이때를 전후로 〈대반열반경〉을 교단의 소의경전으로 삼고 새롭게 교학을 구축하게 된다.

신죠는 특히 다음과 같은 내용을 열반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으로 파악했다. 우선 '여래상주(如來常住)'로, 불타=여래와 불법은 불멸이고 언제나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체중생실유불성(一切衆生悉有佛性)'으로, 살아있는 것은 모두 불타=불법에 이를 가능성이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일천제성불(一闡提成佛)'로 불성과 무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일천제조차 불타=불성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열려있는 것이다.



열반상을 조성하고 있는 신뇨엔 개조 이토 신죠.

1936년 이토 신죠를 개조로 창립돼
개조, 日진언종서 엄격한 수행 마쳐
'真如密'이라는 새로운 法流 만들어
'대반열반경' 교단의 소의경전 삼아
"재가자도 발보리심하면 성불" 강조
현대에 맞는 재가불교 교단을 구현
사람인도, 보시, 봉사 등 실천행과
영능자와 대좌하는 접심수행 정진



진언종에 출가해 수행할 당시의 이토 신죠.

그리고 스스로 내재하는 불성을 깨닫고 그것을 향상시키는 수행으로 불법에 도달했을 때 '상락아정(常樂我淨)'이라는 '열반'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은 불법 한가운데에서 사는 경지이고 환희에 넘치는 세계이다. 이러한 불타=불법이 세계에 드러낸 그대로의 모습이 '신뇨(眞如)'에 다름 아니다.

열반경의 가르침 속에서 모든 사람 즉 일천제까지 포함한 일체중생이 믿고, 서원하고, 수행함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 속에서는 이미 출가나 재가라고 하는 구별이 없어지게 된다. 나아가 석존이 열반에 이를 때, 재가 신도인 춘다의 공양만을 받으셨다는 일화도 누구나 불법을 수지, 상승(相承)할 수 있다는 재가불교의 정당성을 근거지우는 것이다. 신죠는 이러한 열반경 해석을 통해, 보통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재가의 신자여도 부처를 구하는 보리심을 지니는 한, 출가자와 같이 불도를 닦고 성불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현대 사회에서 불도를 구한다고 하더라도 누구나 출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죠는 현대에 맞는 불교의 바람직한 방향으로서 재가교단의 형태를 확신을 갖고 추진한 것이다.

신죠는 1936년 30세에 출가해 득도한 이래 약 20년간 삭발하고 승려의 모습으로 지냈다. 그러나 열반경을 해설하던 이 무렵부터 스스로 재가의 모습으로 돌아가 법의를 벗고 머리를 기르기 시작했다. 더불어 신죠는 이때부터 수많은 조각 작품을 제작하게 된다. 그 효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본존으로 제작한, 입멸을 앞에 둔 석존이 최후의 가르침을 설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대반열반상이었다. 본래 열반상은 80세의 노령의 임종 장면인데, 신죠는 깨달음을 얻은 성도한 시점의 아주 젊은 면영을 근각했다. 이것은 열반경의 '여래상주'를 형태화한 것으로 법의 불생불멸의 경지를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진여에 일여하는 길, 자리이타 실천

신죠는 신뇨엔의 제1교리로서, 부처님의 참모습인 진여에 일여(一如)하는 길이 무엇보다 대승이타(大乘利他)의 실천에 있다고 강조했다. 재가불교로서 사회가 곧 도장이라는 자각 위에서 자비의 마음을 기반에 두고, 자타의 연관을 중요시하면서 우선 남을 위하는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자리이타(自利利他)의 삶을 무엇보다 중시했다. 또한 대승이타의 정진을 위한 고유의 수행법으로서 '세 가지 실천행'과 '접심(接心)'수행을 강조했다.

세 가지 실천은 사람인도, 환희(보시), 봉사를 가리키는데, 이로부터 진정한 덕이 쌓이고 기쁨으로 사는 경애가 얻어진다고 한다. 이것은 대승불교가 보살의 수행법으로 강조하는 육바라밀을, 신죠가 재가신도들이 누구나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실천할 수 있도록 집약해 재구성한 것이다. 접심은 불성개발을 위해 신뇨엔 창립 초기부터 독자적으로 확립한 대표적인 수행법이다. 이는 밀교적인 관상(觀想) 수행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명칭은 선종에서 행하는 접심과 같지만, 기본적인 차이점은 한 사람이 좌선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교단의 영능자(靈能者)와 일대일로 대좌해서 행한다는 것이다. 마치 세 가지 실천행이 육바라밀을 재가신도에 맞게 현대적으로 재구성된 것처럼, 접심 수행도 전통적인 불교의 '계정혜(戒定慧)' 행을 재가에 있으면서 배우고 닦을 수 있게 재구축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신뇨엔은 '밀교적인 수법(修法)이 응용된 현교', 또는 '현교적으로 열려있는 밀교'라고 할 수 있다.

신뇨엔 제등호마,
세계평화를
기원하다



프랑스 샤토

'신뇨엔의 제등호마 (齊燈護摩)'
전통을 바탕으로 창시된 신뇨엔의 독자적인 호마



야마나시 신쇼지(眞澄寺) 별원

眞如苑 신뇨엔

▶ 해외정사 및 포교소 : 24개국 48개
▶ 한국정사 : 서울·부산·제주·창원
▶ 집회소 : 51개국 930여개
▶ e-mail : shinnyoen@hanmail.net
▶ 서울정사 :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97길 46 TEL (02)719-6998
▶ 부산정사 : 부산광역시 연제구 반송로 47 TEL (051)892-6998

산과 돌이 이룬 한국 산천의 아름다움

한경혜 개인전 '우리산 우리물'
설악산 · 운주사 석불 주제로
4월 1일까지 갤러리인사아트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설악산 희운각. 한지에 수묵담채. 147 x113cm. 2024


2023년 설악산에서. 작가는 "설악산은 2023년 나의 친구가 돼 줬다"고 말했다.

한경혜 한국화가가 우리나라 산천의 아름다움을 실경 산수화로 표현한 작품을 선보인다. 3월 27일~4월 1일 서울 인사동 갤러리 인사아트 본 전시장에서 열리는 '한경혜 개인전 : 우리 산, 우리 물'을 통해서다.

한경혜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현장에서 체험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림으로 전달하고자 했다. 이번 전시의 주제는 설악산과 운주사 석불이다.

작가는 지난해 내면의 갈증을 느끼고 산소가 가득한 물을 마시고 싶다는 생각에 설악산으로 향했고 거기서 희운각과 천불동계곡의 오련폭포를 만났다. 대청봉까지 올랐다가 내려오면서 웅장한 산세를 마주한 가운데 만난 아주 자그마한 희운각. 작가는 눈 내리기 전, 눈이 시리도록 청아한 늦가을의 정경을 수묵담채와 부감법으로 표현해 '설악산 희운각'을 완성했다.

한 작가는 "대화의 대상을 자연에서 찾는다"고 말했다. 설악산으로 향한 작가는 "설악산은 수려하고 화려한 산세와 변화무쌍한 날씨가 한몫해 도착지까지 긴장감을 느끼게 하고 집으로 돌아와야 안도의 한숨으로 순간의 생명이 지탱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독실한 불자이기도 한 한경혜 작가의 작품에서 불상도 빠질 수 없다.

이번 전시에서 또다른 신작 '운주사 석조불감' '천불천탑 운주사'을 공개한 한 작가는 "운주사의 각기 다른 석불들은 한없이 끝없는 고달픈 민초들의 삶, 카르마에 얽매여 벗어나지 못하는 삶이었고 그 속에서 민초들의 염원은 평등과 평화였다"면서 "각기 다른 형상들이 말하는 부처님의 모습은 평범한 인간세계에 사는 사람들, 즉 우리들의 모습이었다"고 설명했다.

한경혜 작가는 물과 돌 등 자연을 표현하는 작가로 알려졌다. 계곡의 물속이나 바닷속 모습을 수묵담채로 생생하게 묘사해 왔고 전국의 명산과 섬을 찾아다니며 물과 돌을 한지에 담았다.

한 작가는 "전국 명산, 섬, 사찰을 다 돌아보지는 못했지만 차츰 범위를 넓혀서 그림에 담으려고 한다"면서 "어릴적부터 사람보다 자연을 좋아했고 그것이 그림을 그리는 계기가 됐다. 산과 물은 우리들을 말없이 반겨주고 품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경혜 작가는 날마다 1000배를 하는 화가이자 수행자이기도 하다. 갓 돌이 지났을 때 앓았던 뇌성마비로 사지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었던 그는 일곱 살 때 해인사 백련암에서 성철 스님을 만났다. "하루에 1000배씩 하면 오래 산다"는 스님의 말에 매일 절을 한 결과 비틀렸던 몸이 풀리며 균형을 잡고 제대로 걷기 시작했다. 2009년엔 자신의 절수행 체험기 〈오체투지〉를 출간해 화제를 낳기도 했다. 지금도 매일 빠짐없이 1000배를 하는 한 작가는 "절하는 것도 내 신체의 일부가 됐다"고 말했다.

국난극복 상징 '해인사 대장경판' 웹으로 만난다

문화재청, 정밀촬영 · 디지털 거쳐
내년부터 대국민 웹서비스 구축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 사진제공=문화재청

합천 해인사 팔만대장경을 웹에서 만날볼 수 있게 됐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3월 18일 국보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의 디지털 자료를 구축하고, 누구가 쉽게 활용 가능한 웹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정과제인 '팔만대장경 디지털 DB 구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팔만대장경(八萬大藏經)은 고려 고종(高宗) 때 부처님의 힘을 빌려 몽골의 침입을 물리치고자 1236년에서 1251년까지 16년 동안 불교 경전을 목판에 새겨 만든 경판(經板)이다. 해인사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건물인 장경판전(藏經板殿) 안에 보관돼 왔다. 대장경판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2007년 등재), 장경판전은 세계유산(1995년 등재)으로 각각 등재돼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대장경판에 새겨진 내용을 널리 알리고자 경판을 먹으로 인쇄해 책으로 묶은 인경본(印經本)이 고려시대부터 전국의 주요 사찰 등에 봉안된 바 있었다. 현재는 국내 일부 보관본과 고려시대에 일본에 전해진 본만이 남아 있고 쉽게 열람할 수 있는 통로도 드물었다.

문화재청은 올해 '팔만대장경 디지털 DB 구축' 사업으로 경판에 대한 기초학술 조사(경판의 정밀 기록, 보존상태에 대한 과학적 조사)를 통한 보존대책 마련, 각 경판 정밀사진 촬영, 전통방식의 인경본 제작 후 디지털 자료화(스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렇게 마련된 활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2025년부터는 누구나 쉽게 경판을 열람하고 그 가치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대장경판 활용 웹서비스 개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임은호 기자

쉽게 이해하는 조선시대 발원문

〈불상이 만든 염원 발원문1〉 출간



도해 스님 譯
최선일 編
도서출판 온샘
4만 원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성공적인 삶을 꿈꾸며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부처님을 조성하고 각종 불사를 할 때 시주와 보시를 하는 것도 행복한 인생을 위한 것이다. 각 사찰의 수많은 불상은 각자의 지극한 발원과 간절한 마음으로 이루어진 불사다. 그런 마음을 담은 발원과 원력을 기록한 발원문을 부처님 복장에 안치하는 것은 불교의 오랜 전통이다.

조선시대 발원문을 번역한 책이 간행됐다. 최근 도해 스님의 풀이로 출간된 〈불상을 만든 염원 발원문1〉은 문자의 벽이 높고 난해해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웠던 발원문(發願文)을 이해하기 쉽게 번역한 책이다. 17세기 전반에서 20세기 전반까지 조성과 중수된 불상의 발원문을 대상으로 한다.

경전에서는 중생의 지위에서 처음으로 발심한 수행자가 스스로 원대한 수행목표를 세우고 불과(佛果)인 보리를 증득하려는 서원을 발원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는 어떤 일의 성취를 맹세하고 소망하는 결의문들을 모두 발원문이라 통칭한다. 수행자가 보리를 득하고 중생을 교화·제도하고자 시작된 발원문이 세속의 중생들이 선을 닦고 복을 짓고자 하는 자신의 마음을 담아 그 취지의 전후를 자세하게 기록하면서 발원문은 불심과 불사의 모든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성보문화유산으로서 상징적인 지위를 가지게 됐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전래의 기록도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문자의 벽이 높았다. 때문에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글로 풀어서 역사적 이해를 폭넓게 가져다 준 책의 출간은 의미를 더한다.

여수 달마사 주지 도해 스님이 난해한 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글로 풀어서 정리했다. 최선일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장이 옥고를 다듬고 직접 촬영한 발원문 사진을 공개해 확인할 수 있게 했고 송광사 박물관장 고경 스님이 감수를, 수안 스님이 윤문했다. 임은호 기자

도일 스님 108 청룡전…3천일 기도회향

3월 27일~4월 8일 서울 인사동 한국미술관서 봉축 특별전시



오봉산 석굴암에서 두문불출 3000일 기도를 회향한 오봉 도일 스님이 부처님 원력으로 청룡의 힘찬 기운을 담은 청룡 108 서예 걸작품을 공개한다.

3월 27일부터 4월 8일까지 2주간 서울 인사동 한국미술관 2층에서 개최되는 '한국미술관 초청 오봉 도일 스님 108 청룡전'은 부처님 가피와 원력으로 국가번영과 시민들 가정, 사업체에 청룡의 힘찬 기운이 함께 하는 마음으로 준비됐다.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특별기획으로 준비된 이번 전시는 오봉 도일 스님이 기도와 신심으로 준비한 108점의 용(龍) 작품으로 꾸며진다. 청룡의 힘찬 기운을 담은 청룡 108 서예 걸작품과 함께 청룡의 기를 담은 옻칠목 항아리, 옻칠 다기, 달항아리, 청룡등, 선묵화, 도자필, 칠서품 등 다양한 용 작품으로 전통예술의 미적 묘경을 전한다.

한편 이번 특별전시회에서 마련된 수익금은 종단에서 추진하는 열암곡 부처님 바로모시기 불사를 비롯해 청소년 장학금, 노인복지관 운영기금, 경로잔치 등 자비나눔으로 회향할 예정이다. 임은호 기자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법당 전선시공 전문
승하강 장치시공(신형)



도량(만월등)조립식 프레임(간편한 설치 및 높낮이 조절)





공단연등(고리용)


노랑(오렌지) 진분홍 백색 연분홍 금색

전선간격
22㎝, 25㎝, 28㎝, 30㎝, 40㎝, 50㎝,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LED태양광 솔라 (국산정품)



LED전구 국산인증 (정품)


고추구 12E 인지구 26E

KC 안전인증 ISO9001 ISO14001 특허청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 대원 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본사 · 공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3/20~3/26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불교입문(조계종신도교재1/입문)	조계종 포교원	조계종출판사	6	8정도 수행체계(팔정도수행체계)오리지널 붓다수행 기술	붓다빠라	SATI PRESS
2	명상심리치료(불교명상과 심리치료의 통합적 연구)	인경스님 지음	명상상담연구원	7	네가지 마음챙기는 공부*대념처경과 그 주석서(초기불전001)	각묵옮김	초기불전연구원
3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시리즈1)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8	아주 오래된 시에서 찾아낸 삶의 해답:혼자라도 걱정없는 삶	원철	불광출판사
4	보리도차제광론1(나란다 불교학술원 총서1)	쫑카파	도서출판나란다	9	원빈스님의 금강경에 물들다	원빈스님 강설	이층버스
5	중관학특강:색즉시공의논리	김성철	오타쿠	10	아사나쁘라나야마무드라반다	사라스와띠	한국요가출판사

책세상

이젠 '문해력' 시대…종교를 '문해력'으로 읽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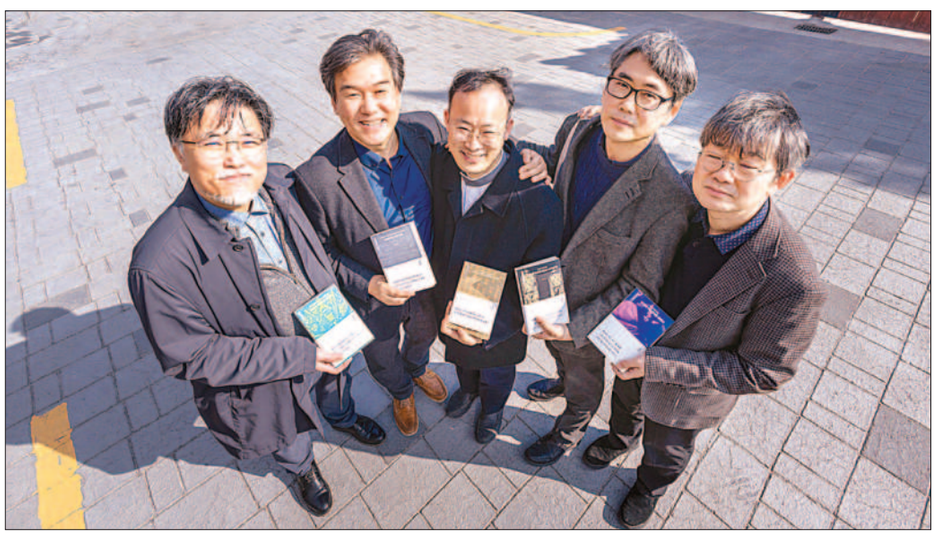
마인드랩, 불광출판사 공동
'종교문해력 총서' 5권 출간
종교 창시자 삶을 중심으로
삶 근본 문제, 해답 풀어내
종교, '맹목적 믿음'이 아닌
'이성적 이해' 이젠 선행돼야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는 종교계에 여러 파장을 남겼다. 불교의 경우 인구조사 이래 처음으로 개신교 인구가 불교를 추월해 엄청난 충격에 빠졌다. 또한 종교 전체로 보면 무종교인이 종교인을 처음으로 추월한 조사이기도 했다. 당시 조사에 따르면 종교가 있는 인구는 전체 인구의 43.9%였고, 무종교인 비율은 56.1%였다. 종교가 있는 인구 비율은 10년 전인 2005년에 비해 9%가량 줄어들었다. 사실상 한국사회가 '탈종교사회'에 진입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현재, 한국사회의 탈종교화는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특히, 지난 3년간의 코로나19 팬데믹은 종교계에 여러 파장을 가져왔고, 종교의 위기라는 말까지 나왔다. 그렇다고 인간이 종교를 믿지 않을 수 있을까. 마음의 평안을 위해 사람들은 명상을 하고, 템플스테이를 하며 쉬고,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으며 사유한다. 탈종교시대지만, 인간은 종교를 내려놓지 않았다. 전통적 형태의 종교 소위 제도 종교에 대한 신앙을 하지 않을 뿐이다. 다시 말해 '믿음'만을 강요해서는 앞으로의 사람들에게 종교를 신앙하게 할 수 없다.

마인드랩(이사장 조성택)이 (재)플라톤아카데미의 지원으로 불광출판사에서 펴낸 '종교, 문해력 총서'는 '믿음'에 구애받지 않고 종교를 '이해'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인문학 총서다.

문해력(文解, literacy)은 글을 아는 능력을 넘어 최근에는 그 의미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통칭하고 있다.



'종교문해력 총서' 저자들. 사진 왼쪽부터 강성용 교수 · 박현도 대우교수 · 장진영 소장 · 정경일 연구교수 · 성혜영 교수.

종교문해력에 대해 조성택 마인드랩 이사장은 "종교를 단지 '믿음'의 문제로서만이 아니라 이성적 '이해'의 문제로 인식하는 능력을 뜻한다"면서 "종교 문해력이 강조하는 비판적 성찰과 모색의 힘은 올바른 종교의 선택과 바른 신행의 지향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종교문해력이 요청하는 이해와 활용 능력은 다원적 사회를 살아가는 오늘날 불필요한 종교 간 긴장과 갈등을 해소하고 종교 간 대화를 촉진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공동선을 위해 함께 협력하고 연대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종교문해력 총서'는 종교학을 비롯해 붓다·예수·무함마드·소태산 등 주요 종교 창시자들의 삶을 중심으로 그들이 고민한 인생의 근본 문제와 해답을 새로운 시각으로 풀어내고 있다. 또한 탈종교, 기후 변화와 팬데믹, 4차산업혁명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종교의 의미와 가치를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게 한다.

'종교문해력 총서'는 총 5종으로 △〈내 안의 엑스터시를 찾아서〉(종교) △〈인생의 괴로움과 깨달음〉(불교) △〈지금 우리에게 예수는 누구인가?〉(기독교) △〈이슬람교를 위한 변명〉(이슬람교) △〈소태산이 밝힌 정신 개벽의 길〉(원불교)로 구성됐다.

각 총서의 저자로는 성혜영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강성용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교수, 정경일 성공회대 신학연구원 연구교수,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대우교수, 장진영 원광대 마음인문학연구소장이 참여했다.

부처님은 이해없는 믿음을 강요한 바 없다. 오로지 와서 듣고 보고 물어서 확인하라고 했다. 앞으로 '믿음'만을 강요하는 종교는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은 자명하다. 그렇기에 '이해'로 쌓아올린 '믿음'에 기반한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될 것이다. '종교문해력 총서'는 이를 위한 훌륭한 안내서다.



내 안의 엑스터시를 찾아서: 종교 이후의 종교
성해영 지음
불광출판사/ 1만8000원

저자는 종교의 정의와 세계관, 현대 사회의 다양한 종교 현상, 종교의 세 가지 위안, 종교를 넘어선 종교 등 종교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에 관한 설명을 '엑스터시(지복감)'로 접근한다. 이 책은 이제까지 우리가 알았던 종교를 색다르게 바라보는 안목을 열어준다. 플라톤의 에로스 철학과 신비주의, 황홀경으로 해석하는 엑스터시, 무종교의 종교, 종교를 믿지 않지만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SBNR(Spiritual But Not Religious) 등 새로운 개념과 단어들로 종교의 매력을 탐구하는 역설은 우리의 지적 욕구를 자극한다.



인생의 괴로움과 깨달음: 미처 몰랐던 불교, 알고싶었던 붓다
강성용 지음
불광출판사/ 2만원

이제껏 우리가 '불교'라고 믿어온 종교를 신박하게 뒤집는다. 사성제와 팔정도, 연기법, 카르마(업)와 윤회 등 불교의 핵심 개념들에 덧씌워진 각색을 걷어내고 붓다의 진짜 목소리에 다가가려 했다. 그래서 이 책은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붓다'가 마주했던 인생의 괴로움과 깨달음을 탐색하는 추적기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저자가 던지는 불교에 대한 해석들은 새롭다. 나쁜 업이 쌓인 통장을 마이너스 통장에 빗댄 설명은 윤회의 원인으로 보이는 업에 관한 우리의 고정관념에 균열을 낸다.



지금 우리에게 예수는 누구인가?: 길 위의 그리스도
정경일 지음
불광출판사/ 1만8000원

이 책은 예수를 '금발의 백인 남자'로 오해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예수의 초상화다. 또 크리스마스를 예수의 진짜 생일로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한 크리스마스 초대장이기도 하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이 도무지 믿기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예수의 또 다른 부활 이야기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예수는 누구인가?〉는 예수를 '하느님 아들'로만 생각하는 모든 사람에게 던지는 질문이자 답이기도 하다.

'인간 예수'의 심도 깊은 고백을 들려주는 이 책은 기독교와 관련한 거부감을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없애준다.



이슬람교를 위한 변명: 무함마드에 대한 우리의 오만과 편견에 관하여
박현도 지음
불광출판사/ 2만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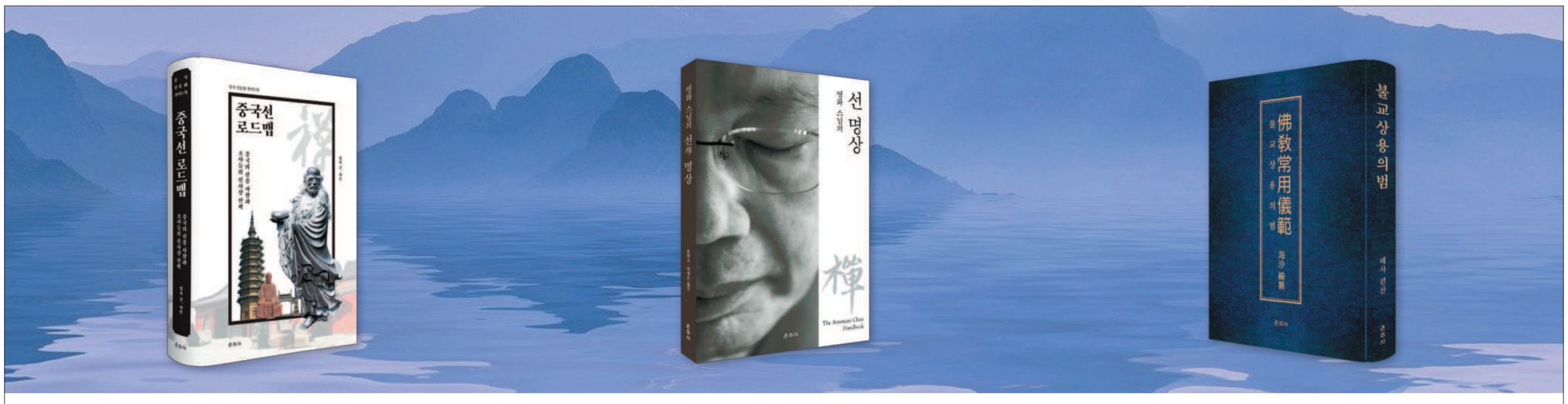
한국 사회에서 접하는 이슬람교는 종종 전쟁 관련 뉴스에서나 등장한다. 그래서 유독 '폭력적인 종교'라는 인식이 강하다. 그러나 묻는다. 전 세계 인구의 30%에 달하는 약 20억명이 믿고 따르는 이슬람교에 폭력성만 있을까? 〈이슬람교를 위한 변명〉은 모두의 이슬람 문맹 탈출을 위해 한 권으로 집약한 모두의 이슬람 설명서다.

이 책은 전쟁유발자, 테러리스트 등 폭력적이고 비이성적인 종교 전통으로 이슬람교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오만과 편견에 종식을 선언한다.



소태산이 밝힌 정신개벽의 길: 일상에서 찾은 원불교의 영성
장진영 지음
불광출판사/ 2만원

저자는 소태산의 의문과 깨침, 그의 꿈과 땀 그리고 그의 가르침에서 영성의 답을 찾고자 한다. 일제강점기 식민지 국가의 변방 청년이 물질문명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찾은 정신개벽의 본질과 소태산이 꿈꾸었던 '개벽의 꿈'을 역추적하는 것. 특히 인생의 모든 문제에 '이게 뭘까?' 의문에서 '이 일을 어찌할꼬'라며 구체적인 방법을 고민하고 실천에 옮긴 점에 주목한다. 이 책은 한 종교의 창시자라고 해서 특별함을 강조하진 않는다. 소태산이 그런 것처럼 누구나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넌지시 알려준다.



중국의 선종 사찰과 조사들의 선사상을 찾아서!
중국선 로드맵
선종 초조 달마대사부터 허운선사에 이르기까지 역대 조사들이 머물던 사찰의 역사와 현황, 선사상을 정리해 놓은, 한권으로 만나는 '중국선종사'이다.
법지 글, 사진/신국판/양장/496쪽/값 33,000원

혼자 명상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입문서!
영화 스님의 선 명상
초심자를 위해 기초적인 앉는 자세부터 경험 있는 수행자를 위한 기본 마음가짐과 주의사항까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명상 안내서이자 지침서'이다.
영화 스님 지음, 윤희조, 박재은 옮김/신국판변형/무선/244쪽/값 15,000원

사찰에서 일상적으로 설행하는 재 의식 총망라!
불교상용의범
조석예불과 사시마지, 각단 예경의식, 천도재나 각종 재회시 설행되는 제반의식문, 각단에 올리는 불공의식문, 각종 시식과 영반 등 누구나 편리하게 집전할 수 있도록 편찬!
해사 편찬/사륙배판/양장/696쪽/값 50,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일엽 스님 사상 담긴 문집 '한자리에'



김일엽 전집
김일엽·박진영 지음/ 김훈 옮김/ 8만3400원

일엽문화재단·김영사, 전집 출간
스님 문집 3권 · 평전 1권 묶어
생명사상과 구도 열정들 확인돼
주요 종단 교육기관 등 증정도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불자들에게 일엽 스님(1896~1971·사진)은 근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비구니스님이다. 하지만 스님은 출가 전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고, 신여성으로서 자유주의 페미니즘 운동을 펼치며 근대기 여성계몽운동에 앞장선 사상가였다. 그러면서 문인이자 언론인으로도 활발히 활동했다.

하지만, 가부장제라는 구습으로 인한 성차별과 존재의 아픔 등은 구도의 길로 이끌었고, 결국 불문(佛門)에 들어 수행자가 됐다. 출가로 이끈 만공 선사는 일엽 스님에게 글을 쓰지 말고 수행할 것을 강조했고, 일엽 스님은 이를 27년동안 지키며 오롯이 수행정진했다.

27년 만에 절필을 깨고 법문과 에세이를 모은 일엽 스님의 첫 저서가 〈어느 수도인의 회상〉(1960)이다.

이후 일엽 스님은 수필집 〈청춘을 불사르고〉(1962)와 수상록 〈행복과 불행의 갈피에서〉(1964)를 잇달아 발간했다. 일엽 스님이 원적한 뒤에도 스님의 저서는 여러 출판사에서 지속적으로 발간했지만, 전집이 나온 적은 없었다.

김일엽문화재단(이사장 월중 스님)은 3월 2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엽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오롯이 담아낸 '김일엽 전집'을 김영사에서 펴냈다"고 밝혔다.

총 4권으로 이뤄진 '김일엽 전집'은 스님의 문집 △〈어느 수도인의 회상〉 △〈청춘을 불사르고〉 △〈행복과 불행의 갈피에서〉와 박진영 미국 아메리칸대학 교수가 저술한 평전 〈김일엽, 한 여성의 실존적 삶과 불교철학〉으로 구성됐다.

〈어느 수도인의 회상〉은 '실성(失性)한 인간'으로 살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묻고 그것은 나를 알아 얻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시작한다. 일엽 스님은 종교 교육을 위한 글이자 포교문인 이 책을 통해 "생(生)의 채비가 곧 사(死)의 대비"라고 말하고 있다.

〈청춘을 불사르고〉는 생사를 초월해 영원한 청춘을 얻고자 했던 구도자 일엽 스님의 치열한 구도기다. 이 책은 전작인 〈어느 수도인의 회상〉에 속한 법문과 글을 갈무리하고 보완해 새로이 엮은 것으로, 출간 당시 수많은 이들을 구도의 길로 이끌었다. 김일엽 문집의 마지막 책인 〈행복과 불행의 갈피에서〉는 사랑이라는 절벽, 행복과 불행의 갈피를 헤맨 여성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김일엽문화재단 부이사장 경완 스님(동국대 불교학술원 전임연구원)은 일엽 스님의 저서를 '서사와 은유로 풀어낸 생명과 깨달음의 법문'이라고 한줄로 평했다.

일엽문중 4세손인 경완 스님은 "생명사상은 현대에 들어와서 사용하는 용어인데 스님은 이미 1960년대 저서에서 사용하고 있다"면서 "생명을 경시하고 갈등을 반복하는 현대사회에 스님의 글은 여러 가르침을 남긴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일엽문화재단은 완간된 전집을 조계종을 비롯한 주요 종단의 승가교육기관과 4년제 대학 도서관, 국공립도서관에 증정할 예정이다.

한류는 이미 천 년 전에 시작됐다



깨달음의 빛, 청자 1·2
정찬주 지음
불광출판사
각권 1만8000원

한류로 대표되는 K-콘텐츠는 세계 문화 시장의 기린아로 평가받는다. 영화, 드라마, 음악, 음식, 패션 등 한국의 고유한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에서 각광받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 대중문화로 대표되는 한류의 시초는 무엇일까. 독실한 불자로 잘 알려진 정찬주 작가는 한류의 시초로 천 년 전 이 땅에 살던 이름 모를 도공들이 빚어낸 천하제일의 명품 '고려청자'를 꼽았다. '고려청자'의 뿌리를 찾기 위한 시도, 그것이 정찬주 작가가 최근 발간한 소설 〈깨달음의 빛, 청자 1·2〉다.

강진 비색청자를 흥망성쇠를 그린 이 책을 통해, 정찬주 작가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정신·자연·세계관이 담긴 청자와 같은 훌륭한 보물이 우리의 역사와 전통 안에 살아 있음을 일깨워준다. 그리고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으로 인정받는 시대에, 과연 무엇이 정말 한국적인 것인지 곰곰이 되돌아보게 한다.

소설 1권은 바다의 왕 장보고가 우여곡절 끝에 당나라 청자 기술을 신라 탐진으로 들여오는 이야기다. 그동안 책이나 드라마 등을 통해 장보고에 관한 이야기가 적잖이 소개됐지만, 그가 고려청자의 대부(代父)이자, 이 땅에 청자 생산기술을 전수한 인물임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소설은 장보고와 청자의 인연을 들려주며, 새로운 관점에서 위인의 삶을 따라가 보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소설 2권은 청자가 세계 최고의 명품으로 인정받기까지의 과정을 그리고 있다. 장보고 피살 후 청해진이 폐쇄되면서 판로가 막힌 탐진청자는 쇠락의 길로 접어든다. 무위사, 보림사, 태안사, 성주사, 쌍보사 등 몇몇 선찰(禪刹)에서 불단에 놓을 청자를 주문하긴 했지만 겨우 명맥을 유지할 정도였다. 고려청자가 중국을 뛰어넘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위정자가 아니라 청자를 만든 수많은 고려 도공들의 장인정신 덕이었다. 그들에게 청자는 생계수단인 동시에 자긍심의 원천이었다.

뿌리 없는 나무는 없다. 지금 것들은 지난 것들의 유산이다. 이 책은 말한다. 한류라는 더없이 좋은 시절인연을 우리가 가진 것 중 진정 가치 있는 것들에 눈 뜨고 그로부터 새것을 만들어 나가자고. 뿌리를 알고 가꾸면 가지가 굳어지고 열매가 야물어지는 법이다.

신중일 기자

고려인이 연근·연잎 먹지 않았던 이유는



꽃과 나무, 어휘 속에 담긴 역사와 문화
김시현 · 신근영 · 이진숙 · 조성덕 · 최승은 지음
따비/ 2만원



부리와 날개를 가진 동물, 어휘 속에 담긴 역사와 문화
기유미 · 신아사 · 이선희 · 홍유빈 지음
따비/ 2만원

사물의 이름(名)을 지어 붙이는 것은 사물의 존재를 나타내면서 일종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식물, 동물의 이름에서는 그 나름의 역사와 문화가 담겼다. 경성대 한국한자연구소가 펴낸 어휘문화총서 시리즈는 우리들이 사용하는 어휘와 문헌 속에서 식물와 동물들이 어떻게 묘사되고 활용됐는지를 살펴내고 있다.

최근 발간된 시리즈인 〈꽃과 나무, 어휘 속에 담긴 역사와 문화〉와 〈부리와 날개를 가진 동물, 어휘 속에 담긴 역사와 문화〉는 각각 식물과 조류에 나타난 어휘들을 살핀다.

불교와 연관된 꽃과 나무는 단연 연꽃이다. 연꽃은 인도가 원산지로 불교와 함께 동쪽으로 전파됐다. 진흙 속에서 자라면서도 깨끗한 꽃을 피운다고 해서 청정함과 서방극락정토를 상징한다.

연꽃은 한반도에 삼국시대부터 심은 것으로 추정되지만, 꽃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가 담긴 기록은 없다. 〈삼국유사〉와 〈고려사〉에 연(蓮)은 대부분 사찰 이름과 지명이며 실제적인 연꽃 내용은 〈삼국유사〉 8회, 〈고려사〉 2회다.

그러다보니 연(蓮)이 포함된 대부분의 어휘들은 불교와 연관돼 있다. 부처를 모신 감실인 연감(蓮龕), 불교를 의미하는 연교(蓮敎), 연방(蓮房·승방), 연화세계, 연화왕생 등 다양하다.

서긍이 저술한 〈고려도경〉에 연꽃에 관한 언급이 있는데, 이 역시도 주목할 만하다. 기록에 따르면 "고려 사람들은 연근(蓮根)과 화방(花房)을 따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불족(佛足)이 탔던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고 한다. 서긍의 언급을 통해 당시 송나라에서는 연근과 연밥을 식용했고, 고려인들은 식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리와 날개를 가진 동물, 어휘 속에 담긴 역사와 문화〉에서도 불교 이야기는 확인된다. 새는 하늘을 자유롭게 난다는 특징으로 인해 하늘과 땅, 신과 인간을 매개하는 존재로서 신성시되기도 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티베트 불교의 조장(鳥葬)이다. 티베트 불교는 사체(死體)를 독수리 등이 먹음으로써 사자(死者)의 영혼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고 믿어 시신을 매장하지 않았다. 하늘을 날 뿐 아니라 물에 떠다니거나 잠수하기도 하는 오리는 천상계는 물론 지하세계와 교통하는 메신저로 여겨졌다.

경성대 한자硏 어휘문화총서
기록 속 식물, 조류 조명 눈길

작은 참새는 한국에서는 귀리를 가리키는 한자어 작맥(雀麥), 어린 찻잎을 따서 만든 작설차(雀舌茶)처럼 작은 것에 붙이는 이름이 되었는데, 일본에서도 쥐꼬리만 한 월급을 참새의 눈물에 빗대 '스즈메노 나미다 호도노겟큐[雀の涙ほどの月給]'로 표현한다. 동양에서는 견우와 직녀를 이어주는 다리를 놓기도 하고 반가운 손님이 오는 징조이기도 한 길조까치는 서양에서 반짝이는 물건을 훔쳐가는 도둑으로 취급받는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새였고 히브리 신화에서는 노아에게 홍수가 끝났음을 알린 비둘기는, 현재 한국에서는 닭둘기, 쥐둘기라고 불리며 수모를 당하고 있다.

이처럼 동물과 식물들의 어휘들을 살피면 인간의 삶과 관계를 맺어온 생명들의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다. 이 책이 주는 재미는 여기에 있다.

신중일 기자

"소원 성취", 사경 독송 공덕

"만일 어떤 사람이 경전을 베껴 쓴다면(寫經) 이것은 곧 부처님 법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받게 되느니라." (대방광불화엄경)

민족사 사경 시리즈의 특징
- 한 권 속에 번역(한글), 원문(한문), 한자 독음이 붙어 있어서 사경과 독송이 동시에 가능!
- 사경의 방법과 목적 등 자세한 안내가 있어 혼자 사경하는 불자들의 길잡이가 됨!
- 책장이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제본되어 사경과 독송하기 매우 편함!



1 금강반야바라밀경 (한글)
지혜 성취 기도
8,500원



2 금강반야바라밀경 (한문)
지혜 성취 기도
8,000원



3 아미타경 (한글·한문)
극락왕생 기도
7,500원



4 관세음보살보문품 (한글·한문)
고난 소멸 기도
7,500원



5 부모은중경 (한글·한문)
효행 기도
8,500원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지상백고좌

조계종 원로의원 ·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두산 일면 대종사**

“불자라면 불살생·자비를 마음에 새겨야”

밤과 낮의 길이가 같아지는 춘분(春分)에 불암산 불암사(佛巖寺)를 찾았다.

봄기운이 완연해서 불암사 경내의 수목(樹木)들에는 새싹이 돋고 있었다. 이제 머지않아 새싹은 자라서 꽃을 피울 것이다. 신록(新綠)이 돋아서 녹음(綠陰)이 우거지고, 단풍이 들어서 조락(凋落) 끝에 나목(裸木)이 되는 사계의 법칙을 관장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해님의 얼굴(日面)이리라.

약속 시간에 맞춰 종무소를 찾으니 두산 일면 대종사가 필자를 반겼다. 일면 스님은 자신의 주석처로 필자를 안내했다. 주석처 앞에서 왼쪽을 올려다보니 기암(奇巖)이 서 있다. 아마도 산 이름도, 사찰 이름도 ‘부처님 바위’를 기린 데서 연유한 듯싶었다.

“새해 봄을 맞아서 불자들에게 희망을 덕담을 들려 달라”고 하자 일면 스님이 손으로 염주 알을 굴리면서 입을 뗐다.

“갑진년(甲辰年)은 청룡의 해이니만큼 불자 여러분의 가정에 용이 승천하는 기운이 깃들어

불살생, 생명 존엄성 자각하는 가르침

생명을 업신여기지 않고 귀하게 대해야

자비, 상대의 아픔 함께 아파하는 마음

타인 생명 소중히 여기는 곳이 ‘불국토’



두산 일면 대종사는… 1959년 해인사에서 명허(明虛) 스님을 은사로 모시고 입산했으며, 1964년 사미계를, 1967년 비구계를 수지했다. 1968년 해인사승가대학 대교과 졸업, 1979년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승가학과 졸업, 2010년 태국 캘리포니아 탐마까야 불교대학교 불교학 명예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운허(耘虛) 스님에게 입실 건당해 두산(斗山)이라는 법호를 받았다. 1983년 수락산 흥국사 주지, 1996년 불암산 불암사 주지, 2001년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 주지, 2005년 대한불교조계종 군종특별교구 초대교구장 등을 역임했다. 9 · 10 · 11 · 12 · 13대 중앙종회 5선 의원을 지내며 중앙종회 사무처장과 수석부의장을 맡아 활발한 입법 활동을 했으며, 조계종 포교부장, 사회부장, 원로회의 사무처장을 거쳐 교육원장을 역임하면 도제 양성 교육의 기틀을 다졌고, 호계원장을 역임하면서 종단 사정기관의 기강을 확고히 했다. 광동학원 이사장을 역임하면서 경기 북부를 대표하는 명문 사학으로 육성 발전시켰으며, 동국대학교 38대 이사장을 역임하면서 교육 불사에 진력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간 이식수술’을 통해 새 생명을 얻은 후 스님은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을 맡아서 장기기증, 조혈모세포 모집, 환자 치료비 지원, 자살예방센터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생명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해 왔다. 스님은 사회활동 경력을 인정받아 대한적십자 박애장 금장, 대원상 대상, 대한불교조계종 제22회 포교대상 공로상, 한국을 빛낸 사람들 대상, 만해대상 등을 수상했다. 현재 조계종 원로회의 원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하시는 일마다 잘 되길 기원합니다. 복은 지은 업(業)을 받는 것이니 자비희사(慈悲喜捨)의 사무량심(四無量心)을 실천하길 바랍니다. 자무량심과 비무량심을 실천하려면 어떤 경우에도 성내지 않아야 하며,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려는 마음가짐을 지녀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고통을 여의고 즐거움을 누리는 희무량심을 지니게 되고, 나아가서는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사무량심을 지니게 됩니다. 욕심이 과할수록 행복은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면 스님은 연기법을 알고, 남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깨우쳐야 한다고 했다.

“코로나19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는 남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할 수 있다는 이치를 몸소 체득하게 되었습니다. 연기법은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 사회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행의 짐을 함께 짊어질 때 행복의 복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증일아함경〉에 이르길, ‘베풂은 중생을 위한 복의 그릇이요, 참된 진리에 이르는 길이니, 누구라도 보시의 공덕을 생각하거든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내라. 베풂은 널리 평등하게 골고루 하되 좋고 나쁨을 가리지 않아야만 베푸는 마음속에서 나를 만나 구제받는 인연을 맺으리라’고 했습니다. 베풀면서 살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이미 불보살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일면 스님은 〈불설죄복보은경〉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육바라밀 실천을 강조하기도 했다. 부유함은 보시의 공덕에서 비롯되고, 신체의 건강함은 지계의 공덕에서 비롯되고, 용모의 준수함은 인욕의 공덕에서 비롯되고, 노동의 근면함은 정진의 공덕에서 비롯되고, 언행의 청정함은 선정의 공덕에서 비롯되고, 사고의 영민함은 지혜의 공덕에서 비롯된다는 게 스님의 설명이다.

일면 스님이 경어를 쓰는 이유

스님은 버릇인지 말하는 내내 경어를 썼다. “말씀을 편히 하시라”는 필자의 말에 스님은 출가인연에 대해 들려줬다.

일면 스님은 1956년에 출가했다. 당시 사라호 태풍이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태풍이 휩쓸고 간 뒤 마을 사람들은 무너진 토담을 보수하느라 분주했다. 그러던 어느 날 탁발승이 일면 스님의 속가를 방문했다. 탁발승은 일면 스님을 유심히 쳐다보다가 말했다.

“이 놈은 법기(法器)의 종자인 걸.”

일면 스님은 탁발승에게 맹랑하게 물었다. “법기의 종자라는 게 뭡니까?”

“중 될 놈이라는 말이다.”

그날 저녁 일면 스님은 탁발승의 뒤를 쫓아서 포항 정국사로 갔다. 탁발승은 정국사에 일면 스님을 데리고 간 뒤 다시 만행의 길을 떠났다. 정국사는 작은 인법당과 산신각뿐이어서 대중도 단출했다. 사찰에는 우물이 없어서 새벽마다 일면 스님은 물지게를 져야 했다. 사찰의 진입로는 경사가 급해서 곧잘 넘어져 무릎이 까지곤 했다. 나무 땔감을 해오는 것도, 때는 것도 모두 스님의 몫이었다. 그렇게 3년을 보낸 뒤 스님은 경전 공부가 하고 싶었던 터라 강원이 있는 해인사를 찾았다. 어린 나이여서 해인사 사중 스님들은 일면 스님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 1주일 동안 사정을 한 끝에 일면 스님은 입산을 할 수 있었다.

일면 스님은 어린 나이인데도 해인(海印)이라는 사찰 이름이 의미심장하게 여겨졌다. 썰물이 빠진 만큼 밀물이 다시 와서 채우는 바다. ‘출렁이다가도 잠잠해지는 바닷물에 어떻게 글자를 새길 것인가’하는 자신만의 화두가 생겼던 것이다.

행자 시절, 일면 스님이 가장 흠모한 스님은 지월 스님이었다. 지월 스님은 소나기가 쏟아져도 뛰어다니지 않는 인욕보살이었다. 온화하고 인자한 성정의 지월 스님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존댓말을 했다. 일면 스님이 만나는 사람마다 경어를 쓰는 이유도 지월 스님에게서 배운 것이다.

2000년 간이식 수술 받고 제2의 삶 살아

이식 공여자 20대 청년은 나만의 선지식

‘선재영가’로 부르며 어디서든 왕생 발원

“내 안엔 수많은 기억들 함께 하고 있어”

일면 스님의 은사는 조계종에서 엄하기로 유명한 명허 스님. 스님이 명허 스님을 자청해서 모신 까닭은 제대로 중노릇을 하고 싶어서였다. 명허 스님은 불암사로 출가해 풍곡 신원화상을 은사로 모시고 득도했으며, 금강산 마하연, 덕숭산 정혜사, 부산 범어사, 선암사, 해인사, 대흥사 선원에서 수행했다.

평생 화두 참구에만 몰두했던 명허 스님은 호랑이 같은 기상으로 후학에게 시주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길 것을 강조했다. 일면 스님은 장을 보러갔다가 사탕을 사먹은 것이 들통이 나서 은사스님으로부터 꾸중을 듣고 참회의 삼천 배를 올려야 했다. 엄한 스님 밑에서 중노릇을 배운 까닭에 일면 스님은 하심(下心)을 몸소 체득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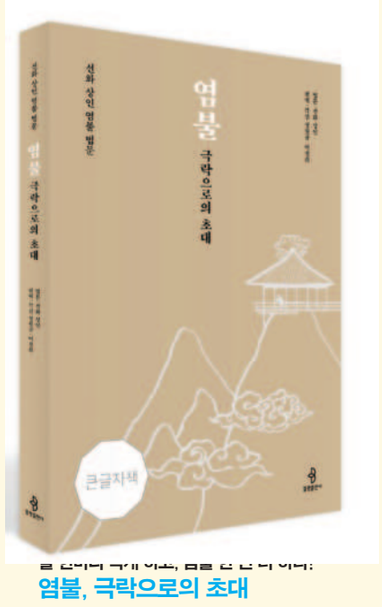
13면에 계속

훨씬 커진 활자로 누리는 선명하고, 행복한 독서 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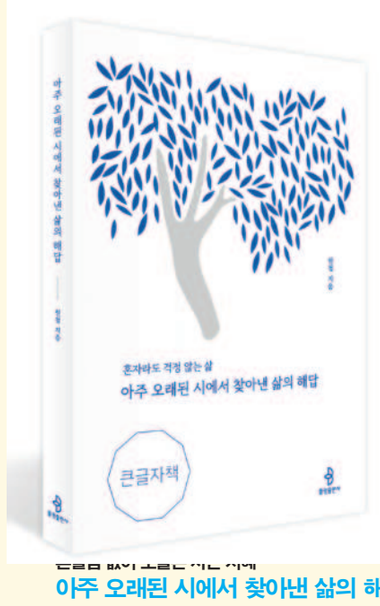
이제 “큰글자책”으로 불광출판사의 대표 서적들을 만나보세요!



4대 종교 성직자가 들려주는 행복 수업
종교는 달라도 인생의 고민은 같다
성진 · 김진 · 하성용 · 박세웅 지음 | 26,000원



염불, 극락으로의 초대
선화 상인 법문 | 각산 정원규, 이정희 옮김 | 2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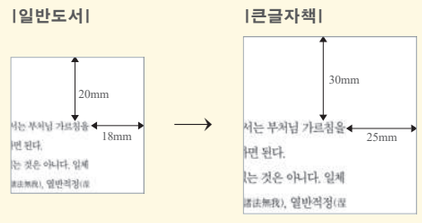


아주 오래된 시에서 찾아낸 삶의 해답
원철 지음 | 29,000원

큰글자책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일반 도서보다30% 이상 커진 더 선명한 활자
|일반도서| 불광출판사 큰글자책
|큰글자책| 불광출판사 큰글자책

판형과 여백을 넓게 설계해 개방감 넘치는 시원한 시각



오래 사랑받는 불광출판사의 책 총 51종 큰글자책 출간
불광출판사의 큰글자책 전체 목록을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비춰주세요.

• 불광출판사의 큰글자책은 계속 나옵니다.
• 불광출판사의 큰글자책은 주요 온라인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지상백고좌

조계종 원로의원 ·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두산 일면 대종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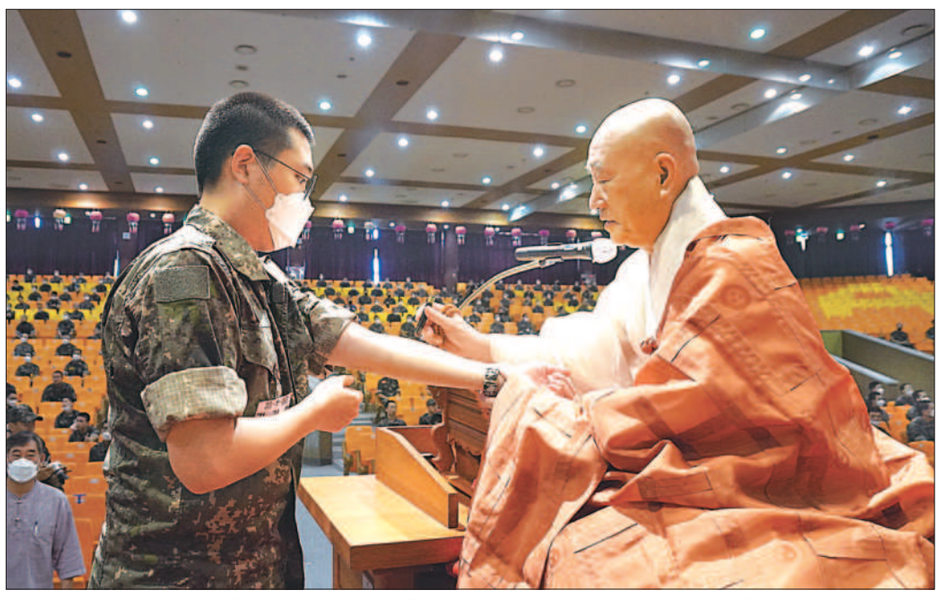
“중생 구제, 수행자가 공히 지닐 원력”

12면에 이어

종단 원로의원으로 후학에게 하는 당부

‘나는 왜 출가했나’ 마음을 항시 지녀야

불자들에겐 “함께 살아가는 지혜 가져라”



지난해 9월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큰법당에서 열린 수계법회에서 일면 대종사가 장병에게 연비를 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열린 생명나눔 걷기명상 플로깅 대회에서 일면 대종사가 가수 이소원 양에게 홍보대사 위촉장을 전달하고 있다.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게

“은사스님께서는 왜 스님에게 ‘일면(日面)’이라는 법명을 내려준 것일까요?”

필자의 질문에 스님은 손가락으로 해가 뜬 방향을 가리켰다.

“해(日)는 이 세상의 두두물물(頭頭物物)에게 이로운 빛을 주는 부처님의 자비광명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런데 햇볕은 양날의 검과 같아서 너무 적으면 만물이 자라지 못하고 너무 많으면 만물을 태워버립니다. 모자라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는 지혜를 얻고 실천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운허 스님께서 내려주신 두산(斗山)이라는 법호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흙을 한 말씩 떠서 옮겨 산을 쌓으라는 의미입니다. 봉선사와 조계종의 일꾼으로서 소임을 다하라는 당부가 깃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흙이 모여서 산을 이루고, 산들이 모여서 산맥을 이루는 ‘일즉다(一卽多) 다즉일(多卽一)’의 심원한 뜻도 깃들어 있는 것이지요.”

“조계종 원로의원으로서 종단 후학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해주십시오.”

필자의 말에 일면 스님은 ‘초발심시변정각(初發心是便正覺)’이라는 〈법성게〉의 한 구절을 인용했다.

“처음으로 마음을 냈을 때가 바로 정각(正覺)을 이룬 때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진여(眞如)의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바로 나타납니다. 처음 발심할 때의 마음만 퇴전하지 않고 정진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원력을 세우지 않으면 중노릇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수행자라면 마땅히 강건한 신념을 지녀야 합니다. ‘백척간두진일보(百尺竿頭進一步)’의 정신을 지녀야 하는 것은 참선 수행자만이 아닙니다. 전법포교 현장에 있는 스님들도, 사회복지 현장에 있는 스님들도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일념을 지니고 살아야 합니다. 종단의 후학들은 항상 ‘내가 왜 출가했는가’하는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스님만의 선지식 선재영가

말을 마친 뒤 스님은 상반신 전체를 가로지르는 십자 모양의 수술자국을 보여줬다. 이어서 자신이 간이식 수술을 받은 경험담을 들려줬다.

2000년 1월 8일, 일면 스님은 간이식 수술을 받았다. 스님이 간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안 것은 일본 유학을 준비하던 1982년. 일본어학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병원 의사는 “지속적으로 간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당시 스님은 조계사 재무 소임을 맡고 있었던 터라 의사의 충고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1993년 간경화 진단을 받은 뒤에야 치료를 시작했지만 이미 건강은 회복이 불가능하게 악화돼 있었다. 그러던 중 일타 스님의 열반다비식에 다녀오는 길에 심한 복통을 일으켜 병원에 입원하였다.

당시 스님의 AST 지수는 8400. 정상인의 경우 AST지수가 20~30인 것을 감안하면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심신의 고통을 견디기 위해 스님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경전을 읽는 것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스님에게 기적이 일어났다. 뇌사 장기기증자가 나타났다. 당시 간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들이 많았다. 앞 차례에 있는 네 사람 모두 장기기증자의 간을 이식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스님이 수술대에 오를 수 있었다. 낮에 수술실에 들어간 스님은 새벽이 되어서야 중환자실로 옮겨질 수 있었다.

병실에 옮겨진 뒤 스님은 염불소리를 들었다. 스님은 영가를 천도하기 위해서 온몸에 퍼지는 고통을 견디면서도 염불을 따라서 외웠다. 하지만 나중에 확인해보니 병원 간호사들은 염불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한다. 간이식수술로 제2의 삶을 살게 된 후부터 스님은 종종 생사일여(生死一如)라는 화두를 떠올리곤 했다. 그날 저녁 스님이 읊었던 염불은 어쩌면 스님에게 간을 보시하고 떠난 영가에게 바친 송가였는지도 모를 일이다.

“스님이 지남(指南)으로 여기는 선지식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필자의 질문에 스님은 환한 미소를 지은 뒤 대답했다.

“지월, 명허, 운허 스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왔습니다. 제게는 저만의 선지식이 있습니다. 바로 선재(善財)입니다. 제게 간을 주고 간 사람은 22세의 강원도 청년이었습니다. 규정상 그 사람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청년의 이름을 선재 영가라고 부릅니다. 어느 절을 가든지 저는 청년의 극락왕생을 발원합니다. ‘선재, 선재영가여, 착하디착한 영가여, 부디 극락왕생하소서’라고. 우연인지 필연인지 저는 법장 스님이 육신마저 보시하고 적멸의 세계에 든 뒤부터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 소임을 보면서 간절히 느끼는 것은 삶은 사계처럼 윤회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선재 영가의 신체 일부를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가슴 속에는 수많은 인연들의 기억들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무엇을 물려주고 갈 건가

차를 한 모금 마신 일면 스님은 자비의 가르침을 새길 것을 강조하며 법문을 이어갔다.

“부처님은 전생에 새끼 밴 어미 사슴을 위해서 자진해서 처형대에 오르는 니그로다 사슴이었습니다. 불자들은 더운 숨을 삼키는 마지막 순간에 이 세상에 무엇을 물려주고 갈 것인지를 항상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출가자든 재가자든 불자라면 그 무엇보다도 불살생(不殺生)과 자비(慈悲)의 가르침을 가슴 속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불살생은 생명의 존엄성을 자각하기 위한 가르침입니다. 자연이 하나의 공동체라고 인식한다면 다른 생명체를 업신여기지 않고 존귀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자비란 상대방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상대방의 슬픔을 더불어 서러워하는 마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명만큼이나 타인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안다면 절로 불국토의 길은 열릴 것입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 길, 필자는 불암사 경내에 걸린 가지각색의 연등들을 올려다봤다. 지증 대사가 창건했고, 도선 국사가 중창했으며, 무학 대사가 삼창했다는 불암사에는 인조 16년(1638) 왕명에 따라 역대 스님들의 법통을 판각한 보물 제591호 석씨원류응화사적책판(釋氏源流應化事蹟冊板)이 봉안돼 있다. 창건 이래 천년 동안 불암사에는 민초들의 염원이 깃든 연등이 환히 불을 밝혔을 것이다.

필자는 시선을 돌려서 불암산을 올려다봤다. 고찰치고 민족의 역사가 깃들지 않은 곳이 있겠는가마는 불암사는 실로 민족의 숨결이 깃든 도량이라고 할 수 있었다. 필자의 속내를 꿰뚫은 듯 일면 스님은 “불암사는 매년 호국의 달에 불암사 유격대를 기리는 천도재를 봉행한다”고 말했다. 불암산 유격대는 한국전쟁 개전 직후 한강 이남으로 철수하지 않고 불암산에 은신하면서 싸운 육사생도 13명과 기간병 7명을 일컫는다. 불암산 유격대가 전쟁 초 수개월간 적진 가운데서 살아남아 혁혁한 전과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은 불암사 사중스님들의 덕분이기도 했다.

일면 스님은 산문까지 따라나서며 필자를 배웅했다. 사하촌에 다다르니 일면 스님이 지은 〈나와 당신에게 꼭 필요한 법문〉의 한 대목이 떠올랐다.

“법화사상에 ‘한쪽 모퉁이를 비추면 천지가 밝아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곳에서 밝은 일이 생기면 그 일로 전체가 다 밝아질 수 있다는 뜻으로 우리 삶과 사회에 지침이 되는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한쪽 모퉁이를 비출 빛은 어디에서 비롯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빈손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양손에 더 많은 것을 움켜 쥐려고는 해도 한 손을 비우려는 생각을 하는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면 한 손쯤 남을 위해 비워두어도 됩니다.”

필자는 불암사를 뒤돌아본 뒤 “내가 죽고서 네가 산다면! 네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라는 미당 서정주의 ‘푸르른 날’의 한 구절을 읊조렸다.

유응오 / 작가

현대불교신문
法보시 신청

부처님 가르침인 ‘佛法’을 보시하는
법보시 공덕은 보시 공덕 중 으뜸입니다.

부처님법을 전하는 현대불교신문 법보시는
독거어르신, 교도소 재소자, 군 장병, 병원 환우들에게
현대불교신문을 보시하는 공덕입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1만원으로 2부 보시.
02-2004-8212



무진 스님의 불국토 경주 남산에 오르다 ❼ 서남산 코스(삼릉~용장골) 〈3〉

▶한줄 요약
경주 남산의 불상이 파괴된 이유는 조선시대 양반들이 경주 남산에 묘소를 만들면서 불보살상을 훼손했기 때문이다. 삼릉곡 마애관음보살입상은 이 같은 풍파를 이겨내고 지금도 중생을 굽어보고 있다.



숭유억불 풍파 이겨낸 신라 관음보살상

용장곡 석조여래좌상을 바라보고 왼쪽으로 계단이 보인다. 이 계단을 오르는 것이 힘들 것 같아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있었다면 이 글을 보고 아쉬움에 잠 못 들 것이다. 눈에 들어오는 계단을 오르면 바로 1000년을 넘게 삼릉계곡을 지키고 계신 관세음보살님이 서 계시기 때문이다. 일명 삼릉계곡 마애관음보살입상이다. 무엇보다 조선 500년 숭유억불의 풍파를 이겨내고 당당하게 서 계신 늠름한 향기가 풍기는 보살상이다.

조선은 불교를 적극적으로 비판하던 주자학을 근본으로 해 1392년 건국된 국가다. 조선에서 불교는 탄압받고 파괴되는 모습을 당연한 수순처럼 밟는다. 조선 초 1406년 음력 6월 조선의 3대 임금 태종은 전국의 모든 사찰을 오교양종(五敎兩宗)으로 통합시키고 242개의 사찰만 공식 인정한다. 불교의 여러 종파를 교종 5개 선종 2개로 통폐합시킨 것이다.

이후 20여 년도 안 된 1424년 음력 4월 세종은 오교양종을 교종 18개 사찰로 통합하고 선종 18개 사찰로 통합한다. 즉 불교 종파를 교종과 선종으로 통합시킨 것이며 242개 사찰에서 36개 사찰로 공식 인정한 것이다. 조선이 건국된 초기부터 불교를 억압하기 위한 이러한 정책으로 그동안 발전돼왔던 불교의 다양한 전통과 수행체계는 무너지고 사라진다. 이러한 불교 억압은 유학자들에게 불교 탄압 즉 도심과 교통 요충지에 있던 사찰 파괴의 불씨를 당길 힘을 준다. 대표적인 예로 조선을 건국한 태조와 국사로 임명된 무학이 기거하며 중창한 양주 회암사를 보면 알 수 있다.

회암사는 창건의 기원에 관해서는 전하지 않는다. 다만 이색이 쓴 〈회암사수조기〉를 보면 1376년에 나옹화상이 회암사를 중창한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조선 초기 회암사에서의 일화가 많이 나온다. 태조 2년 1393년을 시작으로 왕이 된 이성계는 회암사를 자주 방문하고 있다. 특히나 태상왕이던 태종 2년 1402년에는 회암사에 궁실(宮室)을 짓고 사찰을 중창한다. 또한 무학의 부도를 미리 만들라고 명하기까지 하고 있다.

이러한 태조와 연관이 있는 회암사를 명종 21년 1566년에는 유림들이 불태우려 하는 것을 진정시키는 모습이 나온다. 이후 선조 28년 1595년이 되면 이미 회암사는 불에 타서 폐허가 됐으며 회암사의 범종을 녹여 무기로 만들고 있다. 조선을 창건한 태조 이성계의 극진한 보살핌으로 중창된 회암사를 이름 없는 유림들이 불태울 정도로 조선에서 불교의 위상은 땅에 떨어지는 것이다. 조선의 억불정책은 사찰의 파괴뿐 아니라 자생력으로 살아남기 힘든 환경을 조성한다. 조선 초기부터 유림들은 지속해서 여성들의 사찰 방문을 비난하고 있으며, 그런 가운데 세종은 1434년을 기점으로 여성의 사찰 출입을 금지한다.

이러한 숭유억불의 상황 속에서 조선의 사찰들 80% 가까이 파괴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난다. 1592년 발발한 임진왜란이다. 전쟁 기간 조선 승군 활동의 보복으로 일본군은 지나가는 곳에 있는 모든 사찰을 파괴한

> 용장곡 석조여래상 왼편 계단 오르면
> 1천년 넘게 삼릉곡 지킨 보살상 만나
> 양반들 묘지 조성하며 불상들 파괴해
> 고난 이겨낸 신라 관음상 '위풍당당'

다. 이러한 임진왜란의 영향으로 많은 사찰들이 폐허로 남게 된다. 이후 1600년대부터 전국적으로 중창 불사가 일어나지만 경주 남산의 사찰들은 다시는 재건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 말기가 되면 풍수지리의 유행으로 폐사된 사찰 터는 명당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순조실록〉 1821년의 기사를 보면 경기도 광주의 한 유학자가 자신의 아버지 산소를 쓰기 위해 회암사의 지공·나옹·무학의 부도를 파괴한 일이 나온다. 일반 사찰의 일이면 기록 없이 넘어갔을 일이지만 조선 태종이 명령해 만든 무학의 비석이기에 문제가 심각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조선 말기 유학자들이 조상의 무덤을 만들기 위해 전국의 사찰 터에 있던 유적을 파괴하고 산소를 쓰는 일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다면 한낱 경기 광주의 유생이 멀리 파주에 있던 회암사 터의 부도까지 파괴해가며 산소를 쓰지는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경주 남산 삼릉곡 마애관음보살입상. 정병을 든 형상은 8세기 관음보살상의 특징을 보여준다.

이후 처벌을 논하는 자리에서 영의정과 좌의정은 가벼운 법을 주장한다. 그러나 순조는 태종이 정한 비문의 파괴는 국가의 권위의 문제이기에 엄한 처벌을 명령하면서도 혹여 모를 유학자들의 반발을 염려한다. 즉 불교를 위해 엄한 처벌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바꿔 말해 국가의 귀중한 유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사찰 터의 불교 유적을 허물고 무덤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공표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흥선대원군의 만행을 보면 더욱 선명해진다. 흥선대원군이 자신의 아버지인 남연군의 묘를 만들기 위해 폐사시킨 예산군 가야사의 이야기는 웬만하면 모두 알고 있을 것이다. 가야사는 통일신라시대 창건된 대규모 사찰이었다. 황현의 〈매천야록〉에 보면 1844년 가야사를 파괴하고 남연군의 묘를 만드는 과정이 나온다. 흥선대원군이 가야사의 금탑을 허물고 그 자리에 아버지 남연군의 묘를 쓰는 내용이다.

경주 남산의 불탑과 불상 또한 조선 말기에 접어들어 사찰에 조상의 묘를 쓰면 좋다는 이야기가 유행처럼 번지면서 거의 모두 파괴된 것이다. 남산의 폐사된 사찰 터에 유학자들이 불탑과 불상을 파괴하고 조상의 묘를 쓴다고 한들 누구 하나 말리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경주 남산뿐 아니라 전국의 사찰 터 금당 자리나 불탑 자리에는 묫자리가 들어서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니 경주 남산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지금도 폐사된 남산의 사찰 터에는 묘가 자리 잡고 있다.

일본의 사찰 순례를 다니면서 이상한 점을 본 적이 있는가 싶다. 일본에는 700~800년대 아니 그 이후에 조성된 크나큰 동으로 조성한 불상이 많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동으로 조성한 소형의 불상은 남아있지만, 대형의 불상은 하나도 없다. 그 이유 또한 조선 말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 1630년부터 1873년까지 보완해 편찬된 '속리산대법주사사적기'에 보면 속리산 법주사에는 신라시대 동으로 조성된 '미륵금동대불'이 있었다.

사적기를 보면 진흥왕 15년인 서기 554년 법주사의 창건과 함께 장육상을 조성했다. 장육은 '1장6척'을 의미하는데 불상의 높이를 1척을 35cm로 보면 5.6m 높이에 달하는 금동불상이 된다. 진흥왕 대에 조성됐을까 싶은 의구심이 들지만, 신라시대 동으로 조성된 대형의 불상인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조선 말 흥선대원군에 의해 '미륵금동대불'은 몰수돼 사라진다. 신라의 동으로 조성된 유일한 대불이 1000년을 버티다 조선말에 사라진 것이다.

한국불교의 풍파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매서웠다. 이러한 풍파를 뚫고 삼릉계곡 마애관음보살입상은 당당하게 그 자리 그대로 서 있다. 높이는 154cm이고 바위의 윗부분을 깎아 들어가는 양각으로 돋을 새김했다. 얼굴과 함께 입상의 상체는 하체보다 입체감 있게 조각했다. 또한 바위 자체가 광배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왼손을 내려 정병을 들고 오른손은 가슴에 대고 있다. 머리에는 보관의 흔적이 보이고 살짝 미소가 비치는 작은 입술에는 붉은 색감이 남아 맴돈다. 소녀가 서투른 화장법으로 입술만 붉게 칠한 듯 소박한 모습이다. 경주 남산에서 으뜸가는 단아한 자태를 뽐내고 있다. 왼손을 내려 손바닥을 보이며 정병을 든 형상은 8세기 관음보살상의 특징을 보여준다.

〈경기 광주 빛고운절 회주 · 조계종 교육아사리〉

종 단 공 고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제7대 종정 취임 법회

재단법인 대한불교일붕선교종은 4월 3일 12시 제7대 종정 대륜 대종사 취임법회를 총본산 일붕선원 법당에서 거행합니다. 종도님들께서는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길 바랍니다. (02)911-8175

불기 2568년(2024) 3월 27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 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68년(2024) 3월 27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해불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 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010-6219-4757

불기 2568년(2024) 3월 27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

2024년 3월 27일 수요일 | 불기 2568년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477호 | 15 | 전면광고

분노를 끊으면 편안히 잘 수 있고
분노가 없어지면 걱정이 없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출요경》에서

광 진 불 사

•위치 : 서울시내 •부지 : 180평
•법당 : 40평 •요사 : 60
•매가 : 17억2천

•위치 : 인천 •부지 : 200평
•법당 : 60평 •요사:60평
•매가 : 15억5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사찰채권 인수합니다. 사찰컨설팅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 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010-4586-4525

사 찰 안 내

•위치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지 : 약 340평
•건물 : 1, 2층 – 1층 26평, 2층 법당 20평, 요사채 15평(거실2칸, 해우소 3칸)
•가격 : 상담 후 결정

010-8914-1762

사 찰 안 내

•법당 요사채 2개, 방 5개, 임야 2100평
•사찰 밑 아파트 3000세대 거주
•시내 8분 거리
•가격 2억 5천만원(절충가능)
•창원시 마산 합포구

010-4192-0334

사 찰 안 내

•위치 : 전남 해남군 계곡면
•대지 : 350평
•구조 : 철근 콘크리트조
•건물 : 약85평 (법당 요사채) (건물 3층 180평까지 증축 가능)
•가액 : 4억 5천

010-7710-8334

사찰(급)안내

스님 병환으로 급매

•땅(종교부지) 값만 받고 양도합니다.
•위치 : 강원도 삼척시
•대지 : 약 600 평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시내와 인접하여 교통 편리
•집기류 전부 다 줌 •법회 즉시 가능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010-2366-2821

사 찰 안 내

•위치 : 동해시
•여법한 목조건물(법당30평, 산신각, 주지실, 요사채, 공양간, 창고, 주차장) 동해시와삼척 중간지점으로 포교 최적지임 / 인근에 휴양지 근접 (추암, 망상, 증산, 삼척해변)
•원력과비젼을 가진분께 양도함
•주지스님의 건강상 가액은 시세 이하로 협의합니다.
•좋은 인연을 기대합니다

010-9279-454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원(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461-3825

사 찰 안 내

• 위치 : 인천 광역시 서구 신석로 111번길 3–1
• 2층 : 법당 30평
• 1층 : 요사채 30평
• 지하 : 15평
• 가액 4억원
• 스님 건강상 내놓습니다.
• 교통 아주 편리함

010-9286-1008

사찰(급)안내

공기 맑고 아늑하고 영험있는 기도도량입니다. 현재 운영 중으로 좋은 인연 기다립니다. 조정 가능합니다.
• 경북 청송군 현동면
• 대지 143평 (현재 운영중)
• 가액 : 9500만원



010-4180-1788

포 교 당 안 내

•위 치 : 경북 청도군 소재
•대구 1시간, 경산 팔공산 갓바위 30분 거리
•경치좋고 물좋은 곳으로 고찰이 많은 불자동네
•5분 거리내 대형마트 3곳
•법당 · 주방 · 방2 · 화장실2 실평수 약 60평
•비품시설 1800만원, 보증금 500/40
•사주 방편으로 포교 하실 분

010-7942-9015

사찰(급)안내

•위 치 : 충남 부여군 은산면
•임 야 : 2,000평
•기도방 3개, 산신각, 용궁, 선황, 요사채
•매매가 : 2억 7천 (가격절충)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010-4799-9448

사 찰 안 내

•위치 : 제주도 한림읍 금능리 소재
•종교 부지 적합함
•관광산업 단지로도 활용도가 높은 토지
•토지(과수) : 약 2800평 •대지 : 약 200평
•2층 건물 1동 : 약 60평
•매매금액 : 상호 협의하에관심 있으신 분께 영상 보내드립니다. 전화 · 문자 주세요.

010-3119-3351

사 찰 안 내

•위치 : 경남
•규모 : 380평 (법당 30평 및 요사채 공양간)
•가액 : 4억 3천5백만원

010-5316-5669

현대불교신문
후원 나눔 캠페인

법보시 후원은 최상의 공덕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세요.

02-2004-8212



사찰(급)안내

•주소 : 경남 통영시 정량동
•대지 : 106평(텃밭 포함)
공기 맑고 아늑한 절
•가액 : 1억 5천만원
오시면 바로 법회 가능합니다.

010-3344-6667

사 찰 안 내

•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금장리 127–1번지
•총평수 470평(대지 340평, 평밭 130평)
•대웅전 20평, 요사채 50평, 산신각 5평
•칠포해수욕장 차로 7분 거리, 시내 10분, 죽도시장 30분
•가액 : 3억 6천(대출 2억 천육백만원)
•물은 지하수입니다.

010-3741-3567

사 찰 안 내

•장호원 감곡KTX역 10분거리 깨끗한 사찰
•대지 계획관리 1000평, 대웅전, 종각, 휴게소, 연못, 잔디광장, 요사채 3동, 다도실, 리라이트
•광석찜질방, 가온기치료기실, 각종 암환자들 치료 완비
•같이 사찰 운영한 보살이나 도반 스님, 매매나 전세
•가격 상담 후 결정

010-7151-8546

사 찰 안 내

•위치 : 경남 진주시 진주여고 옆 (시내버스 하차하면 5분거리)
•대지 : 100평(비봉산 자락)
•법당 : 27평(삼존불, 신중, 칠성, 영단) 정남향
•요사채(공양간 포함) 45평(화장실 3개)
•가액: 3억 7천(시중은행 1억 5백 담보대출 20년 상환)
•비구니 스님 환영(절충 가능)

010-5229-8445

사 찰 안 내(토굴)

•위치 : 경북 동해안 지역
•대지 : 326평, 40평 건물 2채
•법당 15평, 공양간 17평, 방 7개, 목욕탕 3, 외부화장실 2
•용궁당 노천산신 야외석불 지장입불
•편리한 아파트식
•가액 : 2억 4천만원

010-2008-0377

사찰(급)안내

•위 치 : 부산 연산동
•땅값만 받고 양도 합니다
•대지 124평
•법당 삼성각 용왕당 호심불(소불)
•공양간 종무소 스님방
•가격은 절충

010-7785-5577

사 찰 안 내

•위치 : 익산
•대지 : 약 300평 가량
•건물 : 법당 산신각 요사채
•집기일체 몸만 오시면 됨
•법회 즉시 가능함
•가액 1억 6천

010-5581-3081

사 찰 안 내

도심 포교불사에 함께 동참 운영 하실 뜻있는 출가자 및 재가불자님을 정중히 모십니다.
• 위치 : 충남 부여
• 금강이 시원하게 내려다 보이는 8층 건물에 3층 154평의 넓은 법당
• 시설완비, 주차공간 확보
• 개원식 앞두고 (사정상) 전세 운영 가능
• 절충 협의

010-7174-1711

사 찰 안 내

•사찰 임대합니다
•위치 : 창원시 마산 합포구 어시장 너른마당
•50평, 부처님 삼존불 · 칠성 · 신중 · 용왕 · 영가단
•방1 · 화장실 · 공양간
•보증금 1000만원/월40

010-4327-8688

사 찰 안 내

•위치 :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장현리 411–1, 411–2
•매매금 : 3억원
•올수리, 사찰 장엄 완료, 250평

010-3618-6061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젠 인터넷 뉴스사이트 현불뉴스 hyunbulnews.com에서도
불자정보·생활안내를 생활안내
찾아보실 수 있어요

NAVER 불자정보·생활안내 검색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어보세요

'생활안내'
'불자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2024년 3월 27일 수요일 | 불기 2568년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안내

1477호 | 16 | 전면광고

부지런히 자기 맡은 사업에 힘쓰고
벌어들인 재산을 아끼고 잘 보호하며
어질고 착한 벗을 가까이 하고
균형 있는 생활을 유지하라.



부처님 말씀 읽기 - 《잡아함경》에서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학인모집

1. 부산영산재의 각 전승 교육사 의식 염불, 사물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불교문화 전통불교조계종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사무국 총무원 010-5511-7000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 재판, 암, 질병, 산소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배우가 일찍 죽는 관상, 귀신 붙은 관상,결혼 못하는 관상, 자식이 일찍 죽거나 질병관상, 중풍, 뇌졸중 관상
• 출장개인지도 : 관상학, 성명학, 사주명리, 손금, 상술비법
• 스님,무속인,법사,무당,일반인,공무원 특별 개인지도
• 신을 받았어도 제대로 못하시는 분. 작명 아기이름, 개명

상담문의 010-4014-8822 타로특별비법지도
365일 무료 숙식제공 교육장. 상술, 언변 비법 전문지도

개인 지도 (통변비법 전수)

사주 · 작명 · 관상 · 풍수 · 타로
NAVER 용인 수현 철학원 검색
NAVER 송파 조수현 철학원 검색
010-8436-0056
010-8232-0057



검색-손도사 자전 천기소설 운명
010-5105-5000

의식은 불교의 꽃 (행사대행)

49제, 점안, 기타, 바라, 살풀이
30년 수행 공덕으로 귀사찰에 불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6785-1130 / 010-5270-8260

함께 하실 공양주 모십니다
함께 일할 거사님 모십니다
함께 수행할 행자님 모십니다
부산 만덕사
051-334-3009
010-3840-4355

부전스님 1분
사무장님(여) 1분
공양주님(여) 1분
모십니다
부여 미암사
010-5424-5555

부전 스님 구합니다

경주 우황사
경주시 천북면 새터흥림길1-32
010-2239-0300

스님과 불자님들을 위한 자산관리
상속 · 증여 · 세금 보장자산
(밀착관리/비밀유지)
삼성생명 팀장 오은정
문의 010-9573-4180

양도공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60대 비구니스님입니다.
불사를 성취발전 시켜드립니다.
철학 능통
010-9954-2500 해인합장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수행하며 오래도록 절에 계실 분 공양주를 모십니다

경북 예천 용화사
010-6529-2005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탈종공고

• 사찰명 : 단호사
• 대표자 : 무애 문용수
• 주 소 :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201

위 사찰과 위 본인은
귀 종단의 종헌 종법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0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세상에서 가장 쉬운 건강법' 오행컬러패치 특판 할인가

국민대 스포츠건강재활 전공
심영세원 교수가 개발한 오행컬러패치!!
PDA식약처 검증된
피부 친화 Tpe겔 접착제 사용!!

천연광물의 원적외선 파동에너지 기술과
한의학 14경락 361경혈 기반
색상학, 수리학, 명리학을 접목하여
경직된 세포를 마사지하고 통증을 예방 · 완화하는
기술을 패치(파스) 한 장에 담았습니다.



자면서 저절로 건강해지는 패치(파스)
"취침 전 붙이고, 기상 후 떼세요"

1+1 소비자가 ~~₩99,000~~ 60%할인 ₩39,600 총 80매
3+3 소비자가 ~~₩297,000~~ 63%할인 ₩109,890 총 240매
5+5 소비자가 ~~₩495,000~~ 68%할인 ₩158,400 총 400매

QR코드를 카메라로 찍어보세요
사용법이 자세히 나옵니다
허리통증 무릎통증
어깨/목통증 손목/발목통증

NAVER 마하몰 YouTube 심영세원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의 생활안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공의 세계를 색으로 경험하다



이안의
Media In Buddha

㊱ SF영화 〈듄: 파트2〉



SF영화 〈듄: 파트2〉의 한 장면.

프랭크 허버트 원작 소설 영화화
희소 자원 둘러싼 갈등 등 그려내
허구의 세계, 영화적 장치로 표현

SF는 영어로 Science Fiction, 그러니까 과학에 대한 허구적 이야기를 지어내는 장르이고, 관습적으로는 '공상과학'이라고 번역하곤 한다. 그런데 사실 SF 장르 안에 '공상'과 '과학'에 고르게 방점을 둔 작품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가령, 개봉 전부터 전 세계 흥행을 노린 〈듄: 파트2〉 같은 작품은 원작인 소설이나, 그 소설의 설정을 가져다가 만든 컴퓨터 게임이나 1984년에 데이비드 린치 감독이 연출했던 〈듄〉(이 영화를 당시에는 '사구', 그러니까 '모래 언덕'이라고 소개됐던 작품)이나, 최근작까지 아무리 살펴봐도 설정이나 캐릭터, 서사는 과학의 범주로 해석할만한 내용이 아니다.

이런 장르는 '스페이스 오페라'라고 한다. 클래식 음악에서 오페라라고 하면 대단히 고급스러운 장르의 연희인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치정, 살인, 전쟁, 마법 같은 극단적 상황들을 다룬 작품들이 대부분이다. 스페이스 오페라도 비슷하다. 지금까지 규명된 천체물리학이나 우주과학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의 미래 시점에서 어딘가 우주라고 설정된 배경을 모험과 전쟁이 펼쳐지는 무대로 만들고, 거기서 아주 극단적인 캐릭터들이 지구적 상식을 벗어난 이야기를 펼쳐 나가는 장르다.

스페이스 오페라라는 용어 자체가 음악의 오페라에서 바로 온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카우보이가 소를 치는 것이 아니라 말 타고 총질하며 원주민을 학살하거나 자기들끼리 영역 다툼하며 대결과 정복을 마초 오락물 장르인 호스 오페라(Horse opera)를 빗댄 대중적 '활극' 장르인 것이다. 미국 서부가 배경이면 호스 오페라, 우주가 배경이면 스페이스 오페라.

'우주활극'이라고 옮기는 게 적당한 스페이스 오페라는 이웃 농장이나 갱단과 겨루던 싸움이 우주전쟁이나 외계 침략이라는 스펙터클로 옮겨간 장르인 것이다. SF 가운데도 과학적 연구 결과나 가정, 이론적 정합성, 기존 지식에 대한 고증과 인용을 중시하는 〈마션〉이나 〈그래비티〉, 〈인터스텔라〉 같은 우주 탐사(Space Exploration) 장르보다 대중적이든 매니아 중심이든 오락적 쾌감이 주된 요소가 되기 때문에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으로 비과학적이어도 되는 장르인 것이다.

그러다보니 과학보다는 영화를 만들어내는 '과학적 방법'이 내용이 아니라 형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 원래 영화 자체가 테크놀로지의 예술인데 스페이스 오페라에서는 테크놀로지가 공상을 실현하기 위한 형식의 거푸집이 돼 상상을 스크린에 실현하도록 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인다.

가령 스페이스 오페라 장르에서 가장 유명한 시리즈인 〈스타워즈〉의 경우, 조지 루카스 감독이 자신이 상상한 세계를 구현할만한 테크놀로지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첫 편을 세상에 내놓고는 컴퓨터 그래픽 기술을 영화에 적용하기 위한 회사인 ILM을 설립해서 처음 만들어진 내용 이전의 이야기들인 프리퀄과 그 이후 이야기 연작을 시리즈로 만들었다.

시리즈가 만들어지는 동안 IT산업은 주인공의 성장 속도를 훌쩍 앞질러 발전해 가면서 관객들이 맨 처음 봤던 작품에서 등장했던 깡통로봇이나 우주선과 광선검보다 오히려 영화 속 역사로는 더 이전인 시대가 테크놀로지로는 더 첨단으로 구현되는 동안, 영화의 동일성과 정체성을 지탱하는 것은 동일자를 동일하게 만드는 시각적 재현이 아니라 영화 속 세계를 떠받치는 세계관이다.

우리가 사는 세계가 오랜 시간을 거치는 동안 과거에는 과거의 중생을 제도할 과거불이 있었고, 지금 시대에는 우리 역사에 발자취를 남긴 부처가 있고, 앞으로 인류가 어찌 될지 모를 먼 미래에는 그 시대를 품을 미래불이 있듯이 영화는 각 시대의 테크놀로지가 이끄는 대로 나아간다.

스페이스 오페라가 설정하는 세계관은 현실이 아니기에 '공(空)'과도 같으나 그것이 스크린에 펼쳐지는 순간은 시각과 청각을 사로잡는 '색(色)'으로 이뤄진다. 1984년에 만들어진 〈듄〉은 원작 소설의 세계관을 영화적으로 시각화하기에는 당대의 기술 이상의 상상으로 대중을 끌어들이는데 앞세웠던 것이 감독이나 배우의 이름값이 먼저였다.

스파이스가 뭐길래 그걸 차지하겠다고 항공모함 크기의 모래 벌레가 출몰하는 다른 행성에 가서 원주민을 학살해가며 사막을 차지하려 하는지는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희소 자원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욕망과 저항의 연대기는 별다른 설명이 없어도 몰입할 수 있다.

세상이 어떤 정치적 제도와 권력의 사슬로 얽혀있든 아라키스 사막이나 코리노 제국, 하코넨 가문, 아트레이더스 가문, 프레멘 인들이 얽힌 제국과 식민지, 침략과 저항, 압제자와 해방을 이끄는 영웅, 전쟁과 난민, 정치와 종교의 경합은 저기가 별 세계라는 색을 걷어내고 보면 우리가 아는 색의 세계, 지구별의 역사, 인류의 여러 단면을 반사하고 있다.

그렇다고 스페이스 오페라로 심각하게 자본의 독점, 제국주의 침략, 원주민의 신화까지 훔치는 영웅놀이, 가부장 권력에 저항하는 모계의 여성 해방 전선, 자원 개발로 망가지는 환경, 기후위기와 생태계 파괴, 수행보다 환각으로 구원을 바라는 인류의 암울한 처지 같은 걸 시시콜콜 사회과학적으로 따지는 건 이런 장르 영화에서는 옵션이 될 수는 있어도 영화 자체의 재미가 되기는 어렵다.

블록버스터가 쏟아 부은 제작비는 전 세계를 휩쓸었던 코로나 펜데믹 시기를 거치며 극장 스크린보다 OTT 플랫폼을 더 편하게 여기는 관객들을 다시 극장으로 불러내기 위해 영화만의 무기를 챙겼고, 〈듄: 파트2〉의 무기는 그것이 바로 스펙터클이다.

이 영화의 스펙터클은 아주 섬세하게 조정돼 텅 빈 세계관을 압도적인 색으로 채운다. 이 영화의 본질은 바로 '색' 그 자체인 것이다. 관객들은 화면의 비율과 음향 설비가 제작진의 의도를 가장 생생하게 구현해 줄 상영관을 찾아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예매 전쟁에 뛰어들게 됐다. 하루는 24시간인데 〈듄: 파트2〉의 상영회차를 보면 26시라는 임의의 시간대까지 관객을 모은다.

IMAX 상영관 가운데도 어떤 상영관이 수직과 수평을 오가는 화면의 변주를 잘 담아낼지, 서사를 담아내는 대사보다 음향처럼 울리는 음악이 잘 구현되는 좌석은 어디인지가 영화의 서사보다 더 중요해진다. 영화는 사유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이기도 하다. 오감을 자극하는 '색' 그자체로의 몰입은 합리적일 필요도 없다.

드니 빌뇌브 감독은 '듄' 시리즈를 삼부작으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프랭크 허버트의 원작 소설 6권 가운데 2021년에 발표된 〈듄: 파트1〉이 채 1권도 다 담지 못했고, 〈듄: 파트2〉에서야 1권이 겨우 마무리됐다. 이래서야 〈듄: 파트3〉에서는 나머지 5권을 모두 담는 건 무리지 싶다. 게다가 앞으로 극장이든 영화든 테크놀로지는 또 바뀔 터이고. 그러니 〈듄〉 시리즈를 즐기는 방법은 모처럼 순수하게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영화적으로 경험하며, 감각이 나를 세상과 이어주는 극단적 통로로 만드는 길이 극장이라는 걸 누리는 것이리라.

〈영화평론가〉

나란다축제 불교교리경시대회 완전정복 ⑬

1. 싯다르타 태자의 청소년기 생활상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① 싯다르타 태자는 사문유관 후 출가를 결심하였다.
② 다양한 학문과 무예를 익혔고, 왕자로서의 자질을 닦았다.
③ 싯다르타 태자는 영원히 늙지 않고 죽지 않는 사후세계를 추구했다.
④ 어린 시절 농경제에 참석하여 삶과 죽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였다.
⑤ 사문유관을 통해 생로병사라는 인생의 근본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졌다.
해설 : 싯다르타는 늙고 죽음을 살아서 해결하고자 하였다.

02 싯다르타 태자가 태어날 때 마야왕비가 잡은 나무 이름은?
① 보리수 ② 핍팔라수 ③ 무우수 ④ 사라수 ⑤ 사과나무
해설 : 무우수의 뜻은 근심(고통)이 없다는 말로 마야부인이 태자를 낳을 때 근심과 고통이 없으셨기에 출산 중 잡으신 나무의 이름을 무우수라고 하였다.

3. 부처님의 '하늘 위나 하늘 아래에 내가 오직 존귀하도다. 이 세상은 온통 괴로우니 내가 마땅히 평안케 하리라.[天上天下 唯我獨尊 三界皆苦我當安之]'라는 말씀은 언제 하셨는가?
① 싯다르타가 태어나서
②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면서
③ 싯다르타가 수행을 시작하면서
④ 싯다르타가 깨달음을 이루고 나서
⑤ 부처님이 전도(포교)를 시작하면서
해설 : 부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존귀함과 존귀한 뭇 생명들을 가르쳐 깨닫게 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 그럼으로 태어나시며 '하늘 위나 하늘 아래에 내가 오직 존귀하도다. 이 세상은 온통 괴로우니 내가 마땅히 평안케 하리라.'라고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 하셨다.

4. 싯다르타 태자의 생모인 마야왕비는 태자를 잉태하고 어떤 내용의 태몽을 꾸었는가?
① 흰색의 호랑이가 마야왕비를 업고 하늘로 날아갔다.
② 여섯 마리의 코끼리가 룸비니 동산에서 놀고 있었다.
③ 북두칠성의 7개 별 중에 하나가 떨어져 마야왕비의 옆구리로 들어왔다.
④ 여섯 개의 이빨을 황금으로 치장한 하얀 코끼리가 허공에서 내려와 왕비의 옆구리로 들어왔다.
⑤ 싱싱한 초록빛에 비취색과 붉은색이 뒤섞인 공작 한 마리가 마야왕비에게 다가와 예를 갖추고 물러갔다.
해설 : 코끼리는 인도에서 동물 중 최고이며, 특히 흰 코끼리는 그중에서도 으뜸이기에 부처님을 비유하는 동물이다. 마야부인은 이 동물 중의 최고, 그중에서도 으뜸인 흰 코끼리가 옆구리에 들어오는 태몽을 꾸고 태자를 잉태하였다.

5. 마야왕비는 싯다르타 태자를 출산하고 7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그 후 싯다르타 태자는 이모의 손에 의하여 양육되었는데, 그 이모의 이름은?
① 아르주나 ② 시하하누 ③ 야소다라
④ 마하빠자빠띠 ⑤ 위슈아미뜨라
해설 : 태자를 양육한 이모의 이름은 마하빠자빠띠로 나중에 여성의 출가가 허락된 후 최초의 비구니가 되었다.

6. 다음은 부처님께서 탄생하실 때 선언하신 탄생게 내용이다. 탄생게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하늘 위나 하늘 아래에 내가 오직 존귀하도다. 이 세상이 온통 괴로우니 내가 마땅히 평안케 하리라."

①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최고의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선언이다.
② 오직 나만이 존귀하기 때문에 공경하여 받들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③ 세상을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는 중생구제의 의미가 담겨있다.
④ 생명의 존엄성과 불성을 지닌 인간 각자의 고귀한 가치를 강조한 것이다.
⑤ 인생의 주인이 자신임을 밝혀 나 자신의 주체적인 자존성을 강조한 것이다.
해설 : 부처님께서는 모든 뭇 생명에게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자 하시며, 깨닫는 다면 부처님과 다르지 않게 된다. 그럼으로 모든 사람이 부처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똑같이 존귀하다.

제공 : (재)은정불교문화진흥원 / 감수 : 서정원 박사
정답 : 1. ③ 2. ③ 3. ① 4. ④ 5. ④ 6. ⑤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여 주 환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폐청소법, 치매·중풍 예방법 등 성인병에는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를 위해 여주환을 드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제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불면증, 어지럼증, 이명(귀울림), 두통, 고혈압, 저혈압, 동맥경화, 만성설사, 목이 쉬었을때, 건망증, 협심증, 위염, 변비, 안면신경마비, 졸음병, 실어증, 삼차신경통, 간경화, 황달, 대상포진, 피부가려움증, 생리통, 생리불순, 다이어트, 귀머거리, 녹내장, 갑상선 이외 총 287종이 수록되어 있음.

골담초환	산수유환	어성초환
재료명: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가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재료명: 산수유열매, 옥수수수염, 복분자, 오미자, 구기자, 토사자, 사상자, 복령, 마가목열매, 뽕나무뿌리껍질, 참당귀, 천궁, 우슬, 오갈피, 두충, 질경이, 산사나무열매, 맥아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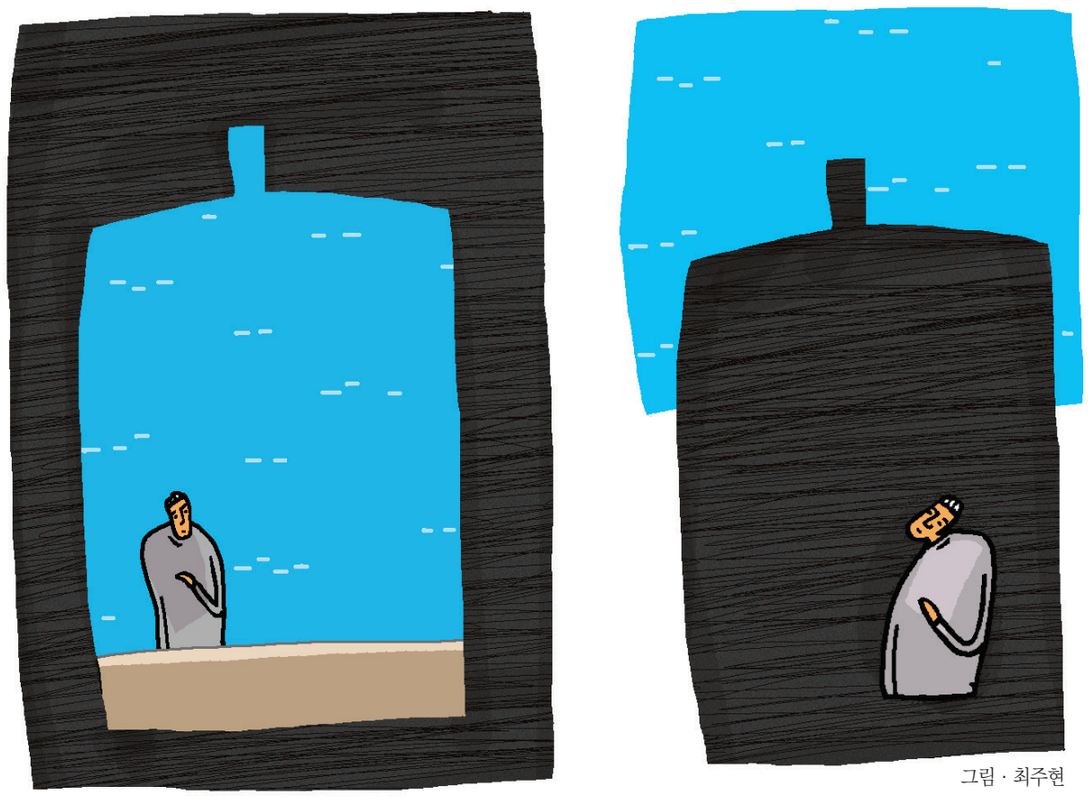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이미령의
스토리텔링 경전에세이 ❼ 관세음보살보문품 ②



▶한줄 요약
관세음보살은 중생 곁에 늘 머무는 부처님과 다르지 않다. 세상의 소리를 지그시 관찰하는 것을 인생목표로 삼은 분이라서 '관세음'인 것이니 우리는 마음 놓고 그 분을 생각하고 그 이름을 부르면 되는 것이다.

겁먹지 말라… 그대 뒤엔 관세음보살이 있다


그림 · 최주현

이름값을 한다는 것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름 하나씩 더 가지고 있습니다. 입문자를 위한 기초교육을 마치면 스님에게서 법명을 받거나 오래 전에 스님에게 법명을 받은 사람도 많습니다. 대체로 이름이란 내가 "이 이름으로 해주세요"라고 콕 집어서 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름을 지어주는 사람 마음인 경우가 많지요. 태어나면서 부모에게서 받은 이름도 그렇고 절에서 받은 이름도 그렇습니다. 또 법명은 하나만 지니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불자들은 여러 스님에게서 법명을 받아서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서 쓰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그 이름값을 하고 사는가 입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는 손수 옥편을 펼쳐서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아름다울 미(美), 구슬 소리 령(玲). 아름다운 구슬 소리는 세상에 청아하게 퍼질 것이고, 마음이 괴롭거나 우울하고 불안한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편안해질 것입니다. 맏이로 딸이 태어났으니 둘째는 아들이기를 내심 바라셨겠지만 28세의 젊은 아버지는 둘째 딸에게 이런 이름을 붙여주셨지요. 그 이름 덕분인지 나는 사찰이나 불교교육기관에서 마이크를 들고 불교를 이야기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고, 방송 진행도 제법 오래 했습니다. 이름 그대로, 말하는 일을 업으로 삼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아름답고 귀한 붓다의 가르침을 전하는 일이니, 아버지 바람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놓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가 지어주신 그 이름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법명이라 생각합니다.

뜬금없이 이름 타령이냐고요? 관세음보살 보문품(줄여서 보문품이라 하겠습니다)은 이름 풀이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신중하고 진지한 구도자인 무진의보살이란 분이 부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관세음보살은 무슨 까닭에 관세음이라고 부릅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많은 이들이 온갖 괴로움을 겪을 때 관세음보살이란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곧 그 음성을 듣고 모두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때문이다."

지난 호에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세상(世)에서 외쳐대는 살려달라는 소리(音)를 듣고(聞→觀) 그들 모두를 구해주는 능력을 지녔기에 관세음이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서 보문품에서는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세상의 소리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자신에게 실망할 순간에 염불하세요

첫째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쩌지 못한 재난을 만났을 때입니다. 불이나 물, 바람과 같은 자연재해를 만났을 때, 혹은 흉기를 든 악한을 만났을 때나 내 몸이 수갑이나 형틀 등과 같은 것에 묶여 혹독한 고통을 겪을 때입니다.

둘째는 번뇌가 자글자글 끓어서 속 시끄러워 번민하다 그만 번뇌에서 놓여나고 싶을 때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하지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이 따라주지 않지요." 내 마음에서 치밀어 오르는 욕심이나 성냄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어떤 것에 대한 갈망이 너무 커서 애태우다 그만 마음이 시커먼 재가 되어버릴 정도인 경우, 또는 누군가를 향한 분노가 솟구쳐 올라 밤새 들척이다 스스로 지쳐 자괴감에 빠져 버리는 경우입니다.

셋째는 바라는 것이 있을 때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 힘으로 소유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인력으로 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보문품에서는 아들이나 딸을 원할 때라고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 경전이 쓰일 때만 해도 불임클리닉은 없었으니 원하는 자식을 낳고 싶으면 그저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에게 비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재난에 처했을 때, 번뇌에 시달릴 때, 바라는 것이 있을 때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 절감합니다. 자괴감에 빠지고 살아야 할 의미를 잃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이 없는 존재였나, 무기력하고 쓸모없는 존재였나 하는 실망감에 압도당합니다.

재난, 번뇌 등 온갖 어려움 닥칠 때
관세음보살 명호, 소리 내 외쳐보길
든든한 의지처 있다면 겁날 게 없다
모든 사람들을 관세음보살로 여기면
세상은 두려움 아닌 환희로 가득해

하지만 이럴 때 머릿속에 딱 한 가지를 떠올리라고 부처님은 일러줍니다.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소리 내어 부르라고요.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는 것이 염불(念佛)입니다. 염불은 부처님(佛)을 생각하는(念) 건데,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는 것은 틀리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중생 곁에 늘 머무는 부처님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지그시 관찰하는 것을 인생목표로 삼은 분이라서 '관세음'인 것이니 우리는 마음 놓고 그 분을 생각하고 그 이름을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글쎄, 부르라니까 불러보기는 할 텐데 난 이런 거 별로 체질이 아니라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자주 만납니다. 그런 분에게 나는 이렇게 안내합니다.

"그리 절박하지 않은 것 같으니 그렇다면 관세음보살 염불하지 말고 스스로의 힘으로 헤쳐가시면 됩니다."

보문품에서는 부처님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관세음보살을 공경하고 예배하면 복이 헛되지 않으리니, 중생은 모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들어야 한다."

이름을 받든다는 말은 그 이름을 늘 소중하게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기억한다는 말은 늘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무릎이 깨져라 기도하지 않더라도 머릿속으로 '관세음보살이라는 분이 있다, 내가 살다가 너무 힘들 때 그 분이 도와주실 거다'라고 기억하기만 해도 그 복이 쌓인다는 것입니다. 든든한 의지처가 있는 사람은 쫄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다 완전히 망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헛발질을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하지만 내 뒤를 받쳐주는 이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 오히려 힘든 이웃의 언덕이 되어주기까지 합니다. 이만한 복이 또 어디 있을까요.

세상에 겁먹지 마세요

혹시 오늘 누군가가 당신을 굉장히 짜증나게 했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는 숱한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상황에 놓이는데 어떤 경우는 나를 극도로 긴장시킵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내가 가장 힘들 때나 내게 가장 취약한 상태를 어떻게 알아차렸는지 꼭 그 부분을 건드려서 나를 더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불같이 화를 냅니다. 화를 내고 난 뒤에 화를 가라앉히고 잠시 생각해보면 상대방이 아닌, 나의 허약한 부분 때문이란 걸 깨닫는 경우도 많습니다. 같은 사람, 같은 상황도 어제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오늘은 유독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 한 번쯤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살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내가 처하는 모든 상황이 내 편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자신의 화를 돋운 상대방을 탓하겠지만, 마음공부하는 사람은 이럴 때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내가 마음이 불편한 이유가 무엇인지, 저 사람의 어떤 말이 나의 어떤 곳을 찔렀는지를 말입니다. 내 마음이 늘 편치 않은 이유를 그 사람 때문에 찾아보고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마음공부가 따로 있겠습니까? 이렇게 자기 마음을 자꾸 들여다보고 살펴보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은 한 뼘씩 크고 깊어집니다. 이쯤 되면 그 사람 탓이 아니라 그 사람 덕입니다.

보문품에서는 말합니다. 관세음보살은 어떤 이를 일깨우기 위해 자유자재로 그 몸을 변화시켜서 그 사람 앞에 나타난다고 말이지요. 그러니 절의 벽화에서 만나는 고고한 자태의 관세음보살님만이 관세음은 아닌 것입니다. 나를 화나게 한 저 사람, 나를 힘들게 만든 그 사람은 내 마음그릇을 키우게 하려고 나타난 관세음보살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온통 나의 적인 것만 같아서 문을 열고 나가기 무섭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들 나보다 잘 살고, 다들 나보다 활기차고, 다들 나보다 뛰어난데 다들 나를 잡아먹지 못해 안달인 것만 같아서 두렵습니다. 그런데 보문품은 말합니다. 두려워할 것 없다고요. 그 사람이 관세음보살일 수도 있다고요. 지금 내가 가장 피하고 싶은 저 사람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가에 따라 나는 성장할 수도 있으니, '덕분입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라고요. 세상은 나를 공격하는 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관세음보살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을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겁먹지 마십시오. 관세음보살은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없애주기 때문에 시무외자(施無畏者)라는 이름 하나를 더 가지고 있는 분이지요. 마음에 관세음보살을 담고 입으로 그 이름을 외며 세상을 향해 문을 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경전이야기꾼, 불교강사〉

평안한 하루 휴심침향

침향의 향기는 예로부터 향로에 피우는 것만으로도 천지인의 기감을 깨닫는 묘약이라고 하여 정신세계를 맑게 하며 상기된 신체의 이완과 심신의 안정을 취하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자비사 '휴심침향'은 한국환경산업 기술원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과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안전 확인을 받았습니다. 휴심침향을 만드는 모든 과정은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 천연재료를 숙성하여 수작업으로 제조한 제품입니다.

법당, 기도처, 요가·명상처, 가정, 사무실 등 다양한 곳에서 피울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인증제품 : 코드번호 FB22-12-0233


종합향

■ 문의전화 : 033-375-2100
010-9245-2357
■ 주 소 : 강원 영월군 주천면 황산벌길 157-6
■ 홈페이지 : ok114.co.kr/0333752100
■ 계좌번호 : 농협 351-1101-8874-03

• 종 합 향 : 100.000원
• 불 향 : 80.000원
• 가루향(도향) : 70.000원
• 선향 大 : 70.000원
• 선향 小 : 30.000원
• 침향비누 : 15.000원


종합향


선향


불향


가루향 & 침향비누

'부처님 무지개로 나툰 가피도량'
천안 연화정사
'소원성취 도량에서 새해 기운을 얻어가세요'



2023년 8월 22일 새벽 6시, 법화경 기도 중 보리부처님이 무지개로 나투신 천안 연화정사는 소원 성취 기도가 항시 진행되는 법화 도량입니다.
연화정사 주지 지혜 스님은 치악산 상원사 일대에서 스님으로 문수기도를 이어오던 중 2002년 천안에 연화정사를 건립하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연화정사에서 새해 부처님 나누신 현장을 보시고, 소원 성취의 기운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 내방객 및 기도동참 불자님께는 직접 만든 지장수 보시합니다. 구입 문의도 환영합니다.





연화정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우신새터길 77호 신행상담 010-7455-6742 (지혜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나고 드는 조작이 모두 나로부터임을 안다면 절대 속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한자리에, 항상 한자리를 하면서도 또 한자리를 한 것 같습니다. 우주의 섭리와 더불어 우리 생활이 같이 돌아가면서도 너 나가 있듯이, 너 나가 있으면서도 한자리 하고, 한자리를 하면서도 한자리가 아니고 한자리가 아니면서도 한자리를 할 수 있는 깊은 뜻, 그 깊은 뜻에 의해서 우리는 움죽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해 드리는 것은 말로 그냥 떨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 법이 돼서 여러분한테 이익이 가고 여러분 생활에 지침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책을 보고 어떠한 이론이나 가지고 생활에 지침이 없게 한다면, 내 행동에 지침이 없고 내 몸에 지침이 없고 내 가정에 어떠한 보람이 없다면, 삶의 뜻을 잃는다면 아무 소용 없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위로나 하기 위해서 책을 보는 게 아니라 또는 잠시 잠깐 위로를 받기 위해서 여기 오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피땀을 흘려 가면서 단돈 얼마라도 벌어서 살 양으로 쫓기고 쫓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도 딱한 일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러는 반면에 여러분이 헛된 꿈을 꾸고 헛된 말을 듣고 헛되게 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진심으로, 항상 말씀을 드렸지마는 또 한번 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여러분이 공부하는 자세는 여러 가지가지가 있습니다. 허나 제가 길을 인도하는 방식은 세 가지가 포함돼서 한데 공존하고 있는 그 자체를 일심(一心)으로 둔다는 뜻입니다. 마음속에 언제나 광력이나 자력이나 전력이 그대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지수화풍에 의해서 그대로 거기 바탕이 되기 때문에 언제나, 오신통이 항상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책정하는 마음에, 즉 누진통에 그대로 근본적인 구슬이 그냥 굴러가고 있고 회전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는 반면에 우리는 어떠한 것을 산란하게 두는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마는 잠재의식 카세트에 수억겁을 거쳐 오면서 잠겨 있던 그것이 솔솔 각본대로 풀려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모르고 그냥 '아이구, 무슨 팔자가 이래서, 무슨 운명이 이래서 이렇게 다가오는가. 너무나 가혹하지 않은가.' 이러지마는 가혹하다고 하기 이전에 여러분이 정해 놓은 겁니다. 정해 놓은 거를 그대로, 한 것만치 거기서 각본대로 나온다고 제가 항상 말을 했죠. 거기다가 되놓으면 그 테이프에 앞서 녹음된 거는 없어진다고요. 여러분한테 방편을 준다 하더라도 진실되게 방편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방편이자 이건 현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놓는 데에 어떠한 망상과 어떠한 문제, 공부가 잘되는지 못되는지를 가늠을 못 하고 있노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들여놓고 내놓고 하는 그 자체가 들여놓는 데도 한 치의 틈이 나질 않고 내놓는 데도 한 치의 틈이 벌어지지가 않습니다. 오직 거기서 나고 거기서 드는 겁니다. 그러니 어떠한 생각을 했든지, 어떠한 행을 했든지, 어떠한 말을 했든지 자기가 중심을 잡아서 잘해 나가야만이 된다는 뜻입니다.

중심을 잡아서 잘해 갈 수 있는 것은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이라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소나 말이나 돼지 같은 것은 세 가지의, 즉 사람이 지각이나 청각이나 감각 등 다섯 가지 여섯 가지를 충분히 가졌다면 말이나 돼지나 소들은 세 가지 종류밖에 안 가졌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그 소를 보는 순간에 소는 바로 내 마음에 의해서 같이 둘이 아닐 때에 비로소 인간의 충족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소뿐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기가 고기로 보이는 게 아니라 소는 내 살이 되고, 바로 그 소의 마음은 내 마음이 되고, 그 생명은 내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대로 요리가 돼서, 즉 말하자면 무명만 쳤을 뿐 소를 살린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운 방법으로 여러분한테 항상 이런 얘기를 해 드렸습니다. 모든 것에 걸리지 말고 하되, 인간으로 태어났으니깐 인간의 존엄성이나 인간이 해 나가는 모든 각도가 그르고 좋고 나쁘고 해롭고 한 것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잘 처리를 하시라는 얘깁니다.

옛날에 어떤 농부가 논을 보러 나갔습니다. 위로는 부모를 모시고 아래로는 자식을 기르고 농사를 짓고 이러다 보니까 참 마음은 착했지마는 그 도리를, 물론 그 도리를 몰랐던 것은 듣지도 못했기 때문에 부처님 법을 몰랐던 거죠. 그런데 가다가 보니깐 논두렁 풀 속에 큰 구렁이가 얼기설기 있으면서 자식을 낳아 가지고선 온통 한 무더기가 있더랍니다. 그거를 그냥그냥 두고 가도 좋으련만 그걸 왜 삽자루로 그냥 붕덩붕덩 끊어 버리고 갔겠습니까.

그것이 한 가정을 다 파괴를 시켜 버린 거나 똑같은 얘깁니다. 작고 클 뿐이지 또 모습이 다를 뿐이지 마음이야 어찌 사람이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이나,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나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그 인연으로 인해서, 인연줄에 의해서 병신 손주들을 다섯이나 낳았습니다. 작은아들이 낳아도 병신이 되고 큰아들이 낳아도 병신이 되고, 이거는 자식들이 온전하게 되질 않아.

내가 만나는 여러분 중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일이, 비밀로 놔두지마는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게 한 가정에 하나만 됐어도 좀 덜하겠습니다. 한 가정에 셋씩이나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피 토하고 죽을 일이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죽일 수도 없고, 이런 문제들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런 문제를 볼 때에 벌써 '그것은 어떤 점에서 7대째 내려오는구나' 하는 거를 알면서도 말을 못 합니다. 왜 못 하느냐? 여러분한테 그 말을 하게 되면 이게 쇼크가 되고 또 그게 잠재의식에 감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머리에서 지워주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그런 업덩어리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게 과거로부터 쫓아 나온 건데, 과거의 인연줄로 인해서 쫓아 나온 건데, 쫓아 나온 그 자체를 우리가 다시금 거기다 놓는다면 그것이 묵살되지 않느냐고 몇 번이고 말해 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죄업을 많이 지었다 하더라도 반야심경에 있듯이, 공즉시색 색즉시공이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몸과 마음이 어찌 둘이겠느냐. 물질과 마음이 둘이 아니니 어떠한 문제든지 마음에서 나오는 건 마음에다 되놔라.' 이런 뜻입니다. 둘이 아니다. 몸이 일할 때는 마음과 몸이 둘이 아닌 것이요, 또 마음으로 생각할 때는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부(父)와 자(子)는 어디 있는가? 불(佛)과 법(法)이 둘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해야만 되는가. 부는 부처라고 한다면 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와 자가, 생각

☞ 20면으로 계속



그림 · 최주현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생각이든 행이든 자기가 중심을 잡고 잘해 나가야 합니다

☞ 19면에서 계속

할 때는 부는 자가 돼 주고 가만히 있을 때는 자는 부가 돼 줍니다. 그러니깐 둘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인공(主人空)이라고 하는 자체가, 짤막하게 우리 몸으로 비유해서 세운다 하더라도, 몸이 돌아가는 거는 마음으로 인해서 돌아가고 마음이 돌아가는 건 생명으로 인해서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부와 자, 승보인 몸뚱이, 부와 자가 움죽거리는 바람에 이 몸뚱이가 둘이 아닌 까닭에 그대로 움죽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하나가 없어도 아니 되죠. 우리가 마음 내는 분별이 없어도 목석일 것이고 우리 몸뚱이가 없어도 남 보기에 보이지 않고 내가 할 수 없으니 그건 무효고, 생명이 없어도 아니 돼.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삼위일체로 구성돼서 회전을 하니까, 주인공! 어떤 거를 세워서 나라고 할 수 없으니 주인공이라고 한 거고, '공(空)이다', '없다'라고 한 겁니다. 반야심경에도 역시 꽉 차서 돌아가기 때문에 '공이다'라고 했지 없어서 '공이다'라고 허공을 가지고 그냥 말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숨 한 번 들이쉬고 내쉬고 할 때에 여러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그 까닭에 공기가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숨쉬기를 '만든다' 하면 벌써 그건 아닙니다. 한도가 있는 것은 인위적입니다. 그러나 우린 자연적으로 생명이 호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공기가 들고 나서 우리는 호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게 뭐, 별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마는 그게 아닙니다. 조금도 에누리가 없고 얼마나 무서운 도리면서도 자비한 도리인지 모를 겁니다. 요만큼 하나 샐 틈이 없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마는 우리가 마음 씀씀이를 쓰는 데에 전체가, 작은 거든지 큰 거든지 좋은 거든지 나쁜 거든지 거기서 다 나옵니다. 틈이 없어요.

요거를 하나 얘기를 할까요. 제가 예전에 산중에 들어가서 돌아다닐 때에 목적지도 없이 돌아다녔습니다. 이 세상에 진리는 목적지가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시발점인가 하면 종점이고 종점인가 하면 시발점이 돼서 도저히 그것은 분간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대로 그냥 다리를 떼어 놓은 것이죠.

떼어 놓다 보니깐 어느 산중에 근근 들어갔는데 때에 따라서는 참, 장난이라고 할까요? 장난이 아니라 공부라고 할까.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는 서슴지 않았습니다. 어떤 고통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가다가 어느 절이나 어느 집에 들어갔습니다. 하룻밤만 재워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람 같지 않으니깐 내쫓았습니다. 내쫓아도 안 나가면 그냥 떠다 박질러서 그냥 내쫓죠.

그러면 그 사람이 원망이 되는 게 아니라 웃음이 나는 겁니다. 왜 웃음이 나느냐? 글쎄, 왜 일부러 가서 거기서 자고 싶지도 않은 거를, 이 산 울 밑에 어디 잘 데가 없어서 거기 가서 일부러 잔다고 해 가지고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서 발길에 차이고 떠다 박질러지고 넘어져서 피가 나고 그러느냐 말이에요.

그걸 가만히, 엎드려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깐 어떤 생각이 났느냐 하면은 야, 저 사람에게 괜히 내가 죄를 짓게 하고…, 나는 나대로 우습기만 한 겁니다. 그래, 어디 잘 데가 없어서 저 천막이나 쳐 놓고 있는데 가서 자자는 거냐 이겁니다, 응? 천막은 본래 쳐져 있고 본래 탁 터져 있는데, 그건 한생각에 달려 있는 건데. 아, 그거 얼마나 편안해. 세금 달라는 소리도 없고, 와서 자란 말 자지 말란 말도 할 거 없고 그런데, 풀 속을 헤치고선 거기 가서 턱 드러누우면 만사가 편안한 것을, 글쎄, 그게 무슨 짓이냐 말이야.

그리고 또 뭘 얻어먹자고 들어가는 거야, 또. 얻어먹긴 뭘 얻어먹어? 아, 맨 먹을 건데. 이 세상에 먹을 게 없는 데가 어딨어? 모든 풀이 다 먹을 거라. 그런데 먹을 거를 그렇게 찾고 다니면 먹을 게 안 나와. 먹을 게 보이지도 않고, 또. 먹을 걸 찾지 않고 어차피 한 번 죽을 거 해골이 있고 뼈다귀 있는 데로 가겠다 이런다면 아예 먹을 게 나오죠. 해골들이 다 쫓아다니면서 해 줘. 그러나 내가 죽지 않겠다고 살겠다고 먹을 걸 짊어지고 다니거나, 자겠다고 어디 가서 구걸을 하거나, 노비를 얻거나 이런다면 절대 그것은 생기질 않아. 그리고 저승엘 들어갈 수도 없고. 산 몸으로 어떻게 저승엘 들어갑니까? 산 몸을 가지고 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거야. 마음이 죽어야 들어가지.

그래서 야단을 맞고 싱그레 웃고선, 본래는 그러한 마음을 굳이 가지고 갔던 게 아니기 때문에 '아하, 내가 예전에 누구한테 듣기에 이것이 바로 탁마요, 이것이 바로 탁발이요, 이것이 바로 선법의 도리를,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로구나!' 하고선, 스스로 나를 끌고 다니는 내 참나가 고마워서 말입니다, 싱그레 웃고서 '야, 이렇게 다친 이 무르팍은 금방 낫겠지.' 하고선 그냥 갑니다. 산으로 올라갈 땐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그전에도 그런 말을 벌써 몇 번째 했으나 되풀이하죠.

> 우리가 몸과 마음이 어찌 둘이겠는가.
> 물질과 마음이 둘이 아니니
> 어떠한 문제든지
> 마음에서 나오는 건 마음에다 되놔라.

큰 묘지에다가 등을 기대고 자려고 떡 앉았으니까 아, 거기서 머리를 풀어 산발을 하고 나와서 신발 한 짝 훔치러 왔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린 줄 아십니까? 묘지는 큰 우주의 근본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묘지, 묘산은. 이걸 뜻으로 배워야지 어떠한 물질로다가 배우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엉뚱하게 그냥 물질로 가 버리고 말아 버려요. 뜻으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신발 한 짝은, 이승에 발 한 짝 저승에 발 한 짝을 디뎌야 왕래를 하죠.

그런데 그걸 처음에 듣기에는 그냥 별안간 각중에 그렇게 일어나니까 내가 너무나 놀라서 막 뛰었습니다. 그냥 막 뒤로 가는데, 그믐밤에 뒤로 가면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때도 어린 마음이니깐 그렇겠죠. 그래서 가다가 주저앉아 궁뎅이를 찍고 보니까는 그냥 얼마나 아프던지 눈에서 불이 번쩍 나면서, 번쩍 나는 순간에 뭔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어, 샐 틈이 없구나! 귀신이고 뭐고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왜? 나한테서 나왔다 나한테로 들고, 나한테서 나왔다 나한테서 들고 그러는데 그 자리의 조작이지 딴 데서는 조작이 없어, 도저히.

그걸 아셔야 됩니다. 딴 데서 들어오는 조작이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자리입니다. 나고 드는 조작이 거기라는 거를 알게 되면 절대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속아서 이리 팡 치고 저리 팡 치고 하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석존께서는 속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항복을 했고 자기가 항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턱 앉아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샐 틈이 없이 여기에서 나고 드는데, 날 때도 샐 틈이 없고 들일 때도 샐 틈이 없는데 아니, 각중에 뭐가 나서….' 하고선 딱 앉아 있으니까 물리가 터지는 겁니다. 우주의 섭리라든가 이런 문제가 전부 마음으로부터 오관을 통해서 다 섭리가 터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머리에서 계발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마음에서 그렇게 들이고 내는 게 빈틈없다는 그 사실에, 즉 뿌리 없는 기둥이 하늘을 받치고 빙글빙글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내가 자꾸 길러야 합니다. 그래서 오관을 통해서 지혜로운 마음과 또는 물리가 터져서, 참, 용이 됐어도 물이 없어서 헤엄을 못 치다가 물을 만나 헤엄을 마음대로 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정해서 여러분한테 고난을 갖다 줬나, 업보를 갖다 줬나, 칼산지옥을 갖다 줬나, 아수라지옥을 갖다 줬나, 응? 여러분한테 오간지옥을 누가 갖다 줬겠습니까? 여러분이 만들어서 그렇게 여러분이 각본대로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에는 팔자 운명이라는 거, 삼재라는 것이 없다.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고 이러는 것도 간단하게 내 마음으로 둥글려서 한 떡이라면, 떡을 하나 집어 먹었다면, 떡이란다고 또 떡으로 알지 마시고요. 보이는 떡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 떡을 말하는 겁니다. 전체 떡을 보이는 떡 하나로다 비유를 할 수 있다 이 소립니다.

그 떡 하나를 놓고서 내가 왜 제사를 지내라느냐 하면 뜻이 깊습니다. '주인공' 할 때는 전체가 둥글어집니다. 여러분은 각자, 각기 주인공 하면 그저 나 하나의 개별적인 걸로 알지 마세요. '주인공!' 하면 벌써 전체로 돌아갑니다. 이 위력이 얼마나 당당하고 신비한지 아주 참, 무슨 말로도 할 수 없는 도도한 겁니다. 전체로 둥글리는 그 마음 하나라면 절을 꼬박꼬박 백팔배를 안 해도 한생각에 한 번 절한 것이 한꺼번에 만 번이 될 수 있고, 천 번이 한꺼번에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일일이 따져서 칠성각에 절하고, 여기 절하고, 저기 절하고…. 그 많은 중생, 이 우주에 꽉 찬 그 생명들한테다가 다 절하려면 얼마를 해야 되겠습니까? 벌어먹지도 말고 절만 해도 다 모자라요. 그러니 그저 단 한 번에 뿌리를 뽑을 수 있는 그런 전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절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백팔배하고 만배 할 거를 단 한 번에 둥글려서 딱 하나를 세우시란 말입니다. 그래 놓고 자기에게 급한 게 있으면 '주인공, 당신밖에는 못 해!' 이걸 둘로 둬서는 아니 돼. '당신밖에는 내 몸을 고칠 수가 없어. 내 몸이 아니라 당신 몸을 당신이 고칠 수밖에는 없어, 당신이 형성시켰으니까. 그렇게 해서 시자를 끌고 다니는 것도 주인이 끌고 다녀야잖아.' 또 안 되는 게 있으면 '당신밖에는 할 수가 없어!' 그러곤 믿어. 감사하게 된 거는 감사하다고 믿어.

이렇게 한다면 가정은 얼마나 풍부해지며 얼마나 조화를 이루며 생동력 있으며 또 자식한테는 뿌리가 튼튼하게, 싱싱하게 되며 위로는 묵은 빚을 갚게 되겠습니까. 묵은 빚을 갚음으로써 다시금 그 부모가 햇빛으로 나올 때에 정말이지 통장을 가지고, 싱싱한 뿌리를 가지고 이 세상에 다시 나옴으로써 자기는 자기대로 또 그것이 거름이 된다 이 소립니다. 잘 이걸 음미해 본다면 우리는 남의 소리만 듣고 이러고저러고 하지 않을 겁니다.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87년 4월 19일 정기법회 법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대행선사 법훈록 그냥 목조건이야!

"업이 있다 없다 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에, 오늘 그걸 알아내면
과거부터 끌고 오던 그 업은 순식간에
봄이 오면 눈 녹듯이 다 사라져버리니까 말입니다.
과거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이 문제입니다
내일도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지금, 오늘이 문제입니다."

-본문 중에서-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르치신
대행스님 법음의 정수!

"실생활에서 자기 마음 관觀하는 것을 일러줘서
자기 나무가 자기 뿌리를 믿고 찾을 줄만 안다면
그것은 보배를 찾아주는 것이나 같습니다."

규격 신국판 (154*200) 페이지 232쪽 출판사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정가 15,000원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김영애 법사의 안심뜰

⑦ 응무소주 이생기심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것도 욕심이다

아침마다 온라인 줌(ZOOM)으로 함께 〈금강경〉을 공부 중인 민희(가명)님은 사건이 있던 그날 밤부터 마음이 주체할 수 없이 아팠는데, 다음날 마침 온라인으로 하는 100일간의 108배와 〈금강경〉 공부 안내를 보고는 '나를 위한 공부구나' 싶어 동참하게 되었다고 한다. 정말 인생은 타이밍이다! 〈금강경〉 법문을 읽다가 마음에 와 닿는 구절에선 울컥하며 말을 잇지 못하고, 아픈 상처가 떠오를 땐 한동안 울먹이던 그녀가 그날의 에피소드를 털어놓았다.

"저는 형제가 저 혼자뿐이에요. 고모님이 한 분 계시는데 슬하에 남매를 두셔서 그 사촌동생들과는 친형제처럼 지내왔어요. 얼마 전 남동생 생일이어서 전화를 걸었더니, 동생들 부부동반으로 한창 저녁을 먹고 있더라구요. '동생 생일에 갈 걸 그랬다'하는 아쉬움에 전화로 제 마음을 얘길 했더니 고모께서 딱 한마디, '오면 되지, 왜 못 와? 성의가 없어서 그러지'하시는 거예요. 제겐 그 한마디가 비수처럼 꽂혔어요. 제 딴에는 많은 걸 챙기며 지내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성의가 없다'는 한마디만 남는구나 하는 생각에 공든 탑이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아직 마음공부가 덜 됐구나. 지금도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제 설움에 막 눈물만 나네요."

남이 들으면 고모한테 한마디 들은 게 뭐 그리 대수인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민희님께는 힘든 일이었을 것이다. 부모형제간처럼 소통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날선 고모의 한마디가 얼마나 충격이었을까.

"그동안 고모님 댁에 많이 베푸신 공덕으로 지금 부처님 법문을 공부하게 된 게 아닐까 해요. 그날 고모님의 그 한마디가 민희님에게 비수로 다가오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공부할 마음도 안 내셨을 거 아니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고모의 말에 가슴 아파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공부하는 열정을 낼 수 있었을까 싶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금강경〉을 공부하게 되어 오히려 감사해요. 하지만 인연을 끊을 생각도 했던 터라 아직 고모께 전화드릴 마음은 안 생기네요."

괴로움의 정체가 뭔지, 그 괴로움의 원인이 뭔지 민희님은 아직 알지 못했다. 고모에 대한 서운함이 너무 커 내 마음의 괴로움은 고모에게서 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고모의 말 때문에 내가 이렇게 괴로운데 어떻게 괜찮은 척 다시 또 전화를 할까?'라는 마음. 하지만 원인은 내게 있고 모두가 내가 뿌린 씨앗이다.

내가 살뜰히 챙기던 친척에게서
"성의 없다"는 말 듣고 상처 받아
무엇을 바라고 챙겨온 건 아닐까

"지금 중요한 건 그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내 마음을 보는 것이에요. 민희님 입장에서 상대방을 챙겼다고 하는 행동들이 저는 오히려 참견이나 간섭일 수도 있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부모조차도 이미 장성해서 가정을 이룬 내 자녀들에게는 독립된 가정이기 때문에 이러쿵저러쿵 간섭하기 어렵고,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성의 없다'는 말에 상처를 입으셨다고 했는데,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민희님이 항상 성의 표시를 한 걸로 보이겠죠. 그러니 성의라는 단어가 나온 게 아닐까요? '내가 지금까지 상대가 요청하지 않아도 알아서 성의 표시를 해왔구나. 성의라는 단어는 결국 나한테서 비롯된 것이구나' 생각해보세요."

〈금강경〉엔 무주상보시(無主相布施)의 가르침이 나온다.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而生歎心)이라는 유명한 법문. 마땅히 머문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머문 바 없이'는 '내가 주었다는 생각 없이' 주는 마음을 내라는 뜻이다. 바라지 말고, 생색내지 말고, 돌아올 것도 상정하지 말고 보시의 마음을 내라는 가르침.

"우리는 흔히 기브앤테이크, 주고받기에 익숙하죠. 주고 나면 하다못해 고맙다는 말로라도 은근히 그 대가를 기대하고 말이에요. 한탑 스님께서는 〈금강경〉의 이 말씀을 '주고 또 주라'는 쉬운 표현으로 항상 법문해 주셨어요. 주고 나서 받을 생각 말고 '또' 주라고요. 그저 주기만 하라고요. '지금까지 많이 베풀었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머문 바가 있었구나. 고맙다고 인사 받고, 잘한다고 칭찬받고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내안에 있었구나. 그건 그들을 위해서 한 걸까, 나를 위해서 한 걸까?'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살피는 일이에요. 서운함의 뿌리는 결국 '나'거든요.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나'라는 게 있는 유위법은 꿈이요 환이요 물거품이요 그림자 같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나무아미타불 염불하며 내가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해요."

서운함, 미움, 원망심, 두려움 등 그 모든 것의 뿌리인 '나'라는 게 나올 때마다 그저 나의 참생명이 부처님생명임을 믿으며 나무아미타불 하라시던 한탑 스님의 음성이 들려온다. 나무아미타불!

〈문사수법회 법사〉

건강 365

⑬ 통풍

통풍 원인은 요산…술·육식 피하세요

관절이나 관절주변에 결정(크리스탈)들이 침착하여 다양한 증상을 보이는 질환을 의학용어로 결정유발관절염이라고 한다. 결정유발관절염을 일으키는 흔한 결정은 세가지 정도인데 이중 요산나트륨(Monosodium urate, MSU)에 의한 질환을 통풍이라 한다. 통풍은 기원전 5세기경 그리스 의학자 히포크라테스가 기술한 문헌에 나올만큼 오래된 질환이다. 당시에는 주로 부자들이 걸리고 통증이 매우 극심해서 'The disease of Kings(왕들의 병), The King of disease(질병의 왕)'라고 불리기도 했다. 통풍은 류마티스질환 중에서도 유병률이 높은 편이며 현대사회에서 그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어 오늘은 통풍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한다.

통풍이란 무엇인가

통풍은 단백질이 분해되는 과정 중 퓨린 대사의 이상으로 체내에 과다하게 축적된 요산이 결정화되고 이를 면역세포인 백혈구가 탐식하면서 관절과 관절주변 조직에 반복적으로 염증을 일으키는 전신적인 만성대사질환이다. 이로 인해 심한 관절통과 관절의 변형이 일어날 수 있고, 고요산혈증에 의한 만성신장병이나 요로결석이 발생하기도 한다.

왜 통풍환자가 증가하는가?

통풍은 일반적으로 남성의 30~40대에서, 여성은 50~60대에서 많이 발병하게 되는데, 이유는 여성은 여성호르몬에 의한 요산 배설이 증가되기 때문에 폐경전에는 남성에 비해 낮은 요산농도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풍은 3~4 대 1의 비율로 여자보다 남자에서 유병률이 높으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편이다. 전세계적으로 통풍의 유병률은 0.1~10%로 다양한데, 공통적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유는 노령인구의 증가, 식습관의 변화, 콩팥질환의 증가(말기신부전, 이식 등) , 고혈압, 대사증후군, 비만 등의 대사질환의 증가, 청량음료와 같은 액상과당의 과다복용, 이뇨제나 저용량 아스피린 사용의 증가 등으로 생각되고 있다.

통풍의 증상

혈중 요산수치가 높다고 해서 다 통풍은 아니며, 통풍 발병이 없는 경우 무증상 고요산혈증이라고 말한다.

급성 통풍 발작의 경우 첫 발작은 약 80%에서 대부분 하나의 관절을 침범하며, 엄지발가락 관절을 침범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 대개 밤이나 이른 아침에 엄지발가락의 부종,발적, 열감을 수반하며 극심한 통증(어떤 환자는 애낳는 것보다 아프다고 하더이다)을 일으키며 24시간 이내가 가장 극심한 통증에 도달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러나 초기에는 대부분 치료를 안해도 수일에서 수주내에 증상이 완전히 호전된다.



급성 통풍 발작이 반복되다 보면 그 간격이 점점 짧아지게 된다. 고요산혈증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요산이 관절주변에 통풍결절로 침착하게 되고 만성결절통풍관절염 단계로 진행하게 된다. 이런 결절은 전신의 다양한 부위에서 생길 수 있고, 결절 주위에 염증을 발생시키며 관절의 손상이나 변형, 장애를 유발하기도 한다.

통풍의 합병증

고요산혈증에 의하여 신장합병증(요로결석, 신부전)을 일으킬 수 있고, 통풍환자는 일반인구에 비해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어 통풍은 관절통증 때문만이 아니라 이러한 전신질환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치료가 필요하다.

통풍의 치료

통풍의 치료 목표는 급성 통풍 발작을 가능한 빨리, 부드럽게 종결하고, 재발을 예방하여, 관절, 신장 또는 신체 다른 부위에 요산염이 침착하여 합병증을 발생시키는 것을 예방하는 것으로 한다.

급성 통풍 발작시에는 진통소염제, 콜치신, 스테로이드 등의 약제를 패취, 경구제 또는 주사제의 형태로 사용하여 치료한다. 다만, 아플 때만 치료를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일부 환자에서는 통풍결절에 의한 만성통풍관절염이 발생하게 되므로 진단 당시 이미 통풍결절이 있거나 1년에 2번이상 급성 통풍 발작이 발생하거나 신장질환이나 요로결석의 병력이 있다면 통풍 예방 약제 및 요산저하제를 지속적으로 복용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통풍의 식이요법

진료실에서 환자들이 술을 많이 먹으면 또는 고기를 많이 먹으면 통풍이 생기는지 종종 물어 보시는데, 젊은 연령에서는 이전보다 과체중과 과도한 단백섭취(치킨, 고기, 다양한 가공 단백질 식품 등)와 연관한 통풍환자가 증가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술이나 과식(특히 고기나 생선 등 단백질)이 통풍의 위험인자인 것은 맞으나 통풍을 일으키는 요산의 섭취와 배설에 대해 영향을 주는 요인은 술, 고기 외에도 다양하기 때문에 특히, 노인의 경우 과도한 단백질섭취 중단은 영양의 불균형을 일으킬수 있으므로 극단적인 저단백식이 및 지나친 소식은 권장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통풍환자는 술, 과식, 가공음료수에 들어있는 과당, 탈수 등을 피하는 것이 좋으며, 지방이 적은 음식, 유제품, 야채, 충분한 물 섭취를 권장한다.



박지혜
거인병원 내과클리닉 과장



전법 일기

꿈꾸는 대학생 법회 스님도 더 배워간다

대학생 지도법사를 하면서 꿈꾸는 일들이 많아졌다. 대학생들에겐 장점이 많기 때문이다. 순수하게 스펀지처럼 받아들이고, 생각보다 더 기발한 아이디어와 진중한 사유 체계가 이들에게선 느껴진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불교를 대하는 태도가 스님인 나로 하여금 스님의 상을 벗게 만든다.

2024년을 시작하며 대학생 법우들과 해외봉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침 종단에서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불교문화행사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공모가 있어 도전해보기로 했다. 다행히 주변에 10년 넘게 스리랑카 해외봉사를 꾸준히 하고 있는 스님이 계셔서 조언을 구했다. 스님께서는 의료봉사와 문화교류를 하고 있는데 대학생들이 같이 봉사를 한다면 더 풍부해지고 좋을 것 같다며 현지 초·중학생 대상으로 학습지원 봉사와 학교 벽화 그리기 봉사를 제안하셨다.

법우들의 반응은 매우 좋았다. 방학을 이용해 해외봉사도 하고 다른 나라의 불교도 경험하면서 현지 대학과 교류의 시간을 갖게 되면 얼마나 즐겁겠는가! 여기에 학생들에게 아침 명상과 자자 포살 같은 불교적인 청규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았다. 다만 문제는 비용이다. 법우들이 항공비와 숙박비를 자부담한다 하더라도 체류비와 활동비 등을 모아야 했다. 이 과정이 숙제였는데 생각 외로 법우들이 다양한 모연 방법과 봉사활동 홍보 채널들을 알고 있었다.

기업별, 국가에서 하는 청년 해외봉사기구 KOICA, 특히 크리에이터와 함께 하는 해외봉사는 후원을 받기 쉽다는 정보 등등…. 처음엔 '공모전에 당선되면'이란 생각에서 시작한 계획이 설사 안 되더라도 구체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다가갈 수 있겠다는 확신으로 바뀌었다.

출가 후 산사에 지내며 20년 넘게 세상과 등지고 살았다. 갑자기 은사스님께서 3년간 하고 싶은 것 해보라는 말씀에 도심지에 월세로 포교당을 시작한 게 소년원 법회와 대학생 법회로 확대됐다. 특히 대학생 법회를 하며 새로운 꿈을 실현하려 애쓰다보니 지금은 세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었다. 좀 더 나은 삶을 사는 법 중 하나가 젊은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라는 어느 심리학자의 강연을 들은 적이 있다. 일에 접근하는 방법이 기성세대와는 달리 쉽고 즐겁게 그리고 과감하다. 물론 대학생들에게도 스님이 줄 수 있는 큰 장점도 있다. 위기에 쉽게 무너지지 않고 자기감정에 매몰되지 않는 수행자로서의 태도다. 두 상반된 관계가 참 좋은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낸다.

어느덧 공모전 결과가 발표되었다. 아쉽게도 탈락이란다. '으악~~~!!'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넘어지고 상처받고 힘들어도 이 또한 과정이다. 아직 결승점에 도달하지 않은 것뿐이지 실패한 게 아니다. 다른 방법을 모색하며 더 견고한 성을 쌓을 수 있고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다. 이게 젊음이고 대학생의 가장 큰 장점이라 단언한다! 속은 쓰리지만….



성신여대 불교동아리 지도법사
시현 스님



김권태의 **요즘 학교는** ③ 현존수업

다만 지금 여기에 살 뿐!

해가 지기 전까지 출발점으로 되돌아오면 간만큼 땅을 다 차지할 수 있는 마을이 있었다. 사람들은 모두 안간힘으로 더 멀리 내달렸지만, 아무도 제때 돌아오지 못했다. 한때 어두운 새벽에 별을 보며 출근했다가 캄캄한 저녁에 별을 보며 퇴근하는 일이 잦았다. 집은 오직 씻고 잠을 자는 공간이었으며, 오래 고민하고 산 좋은 오디오가 있어도 음악을 듣지 못했고 좋은 자전거가 있어도 마음껏 달려보지 못했다.

산이 좋아 산 가까이 이사를 했음에도 등산 한번 하지 못했다. 뭔가 거꾸로 사는 느낌, 내 삶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객이 된 느낌이 들었다. 음미하지 않고 성찰하지 않는 삶이란 되돌아오지 못해 다 놓쳐버린 땅처럼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나만 홀로 뒤처지는 건 아닐까?' '나만 홀로 이 세상에 소외되는 건 아닐까?', 현대인들의 내면 깊숙이 똬리를 틀고 있는 두려움이다. 이를 '포모 증후군(FOMO Syndrome)'이라고 한다.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Fear Of Missing Out)'의 앞글자를 딴 새로운 사회병리현상이란다.

현대인들은 다들 쓸데없이 바쁘고, 쓸데없이 두렵다. 그리고 바쁨에 대한 보상심리로 무엇을 시켰는지도 모를 택배를 받아내고, 또 그것마저도 바빠서 열어보지 못한다. 이는 탐욕의 문제가 아니라, 실은 실체 없는 두려움의 문제다. 우리는 두려움이 시키는 대로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며 소진할 뿐, 내가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 제 그림자가 두려워 달아나다 끝내 기운이 빠져 죽은 장자에 나오는 사내와 같다. 너른 그늘에 숨어 그림자를 그치게 할 줄 모른다.

'소외에 대한 두려움' 병리현상 부각
두려움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기만 해
우리는 현존하는 방법 깨우쳐야 한다
이는 삶, 죽음을 보며 영원이 되는 일

너른 그늘은 '현존(現存)'하는 일이다.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일이다. 그것은 내 삶을 음미하는 일이며 나를 성찰하는 일이다. 그래 살아있다는 느낌이 가득하며, 풀벌레 소리 하나에도 생의 기쁨으로 가슴이 벅차오르는 일이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현재는 쉼 없이 흘러갈 뿐이니, 다만 지금 여기에 살 뿐이다.

그래, 모든 과거도 모든 미래도 나의 것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경험하는 일이다. 깨끗한 혓바닥처럼 온전한 감각으로 세상을 맛보는 일이며, 다양한 경험들이 나이테처럼 진실로 나를 성장시키는 것임을 아는 일이다.

그래, 하루하루의 다채로운 감각들을 온전히 맛보며 다음 하루를 설레는 일이다. 한 조각 뜬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삶을 아는 일이며, 한 조각 뜬구름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 죽음을 아는 일이다. 그래 삶과 죽음 모두를 보며 무시무종의 영원이 되는 일이다. '영원'이 믿는 자의 것임을 아는 일이다.

해마다 현존수업을 한다. 죽음을 떠올리며 자신의 가장 진실한 가치를 찾아내고, 접촉하고 있는 신체 감각 느낌의 호오(好惡)를 알아차리며 떠도는 마음을 지금 여기로 데려다 논다. 가득 찬 물컵을 흘리지 않게 서로에게 전달하며, 자신의 마음이 '의도·주의·집중'으로 환해지는 현존체험을 한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며, 또 무엇으로 경제적 독립을 이루고, 이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지' 자신만의 본분사를 찾는다. 내일 지구가 망한다 할지라도 오늘 아이들과 함께 할 나의 현존수업이다.

〈동국대사범대학부속중학교 교사〉

기자칼럼

대학생 불자들의 '특별한' 수행정진

최근 대학생 불자들이 함께 수행하며 의견을 공유하는 특별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 생겼다고 해 우연히 눈팅(게시물을 읽기만 하는 것)의 기회를 얻었다. 출가열반재일을 맞아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가 운영하는 '대불련 수행정진의 방'이다.

이 방은 마음을 낸 이들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지만 나름 엄격한(?) 규칙이 정해져 있다. 참가자들은 출가재일인 3월 17일부터 열반재일인 24일까지 각자의 방식으로 일주일간 수행한다. 반야심경 사경, 108배 등 무엇이든 상관없지만 매일 꾸준히 참여해야 한다. 수행과정과 소감은 사진, 영상, 글 등을 통해 인증한다. 함께 수행하는 법우들을 위한 응원과 공감도 필수다. 현재 55명의 대학생 불자가 참여, 수행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조용하던 채팅방은 저녁 시간이 되자 활기를 띄었다. 감사일기, 명상, 절수행 등 다양한 수행과정이 소개됐고, 그 속엔 하루 동안 느낀 감사함이 담백하게 녹아있었다. 맛있는 밥을 먹어서, 친구들과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눠서, 편안한 하루를 보내서 등 일상에도 감사할 이유가 너무나 많았다. 믿는 대로 보인다는 말이 있다. '감사함'을 체득하기 위해 마음을 훈련하는 이들에게는 세상도 정말 그렇게 보이나 보다. 소감으로 "오늘 참 여러모로 몸도 마음도 힘들었지만 여러분과 함께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108배를 하게 됐다. 처음엔 집중이 안 됐지만 108배 후반부에는 감사의 마음으로 절을 했다"는 한 학생처럼 '절'마저도 감사한 일이 됐다. 채팅 공간은 누군가에게는 수행을 시작하는 계기로, 또 누군가에게는 법우들과 소통하며 위로받고, 몸과 마음을 성장하는 곳으로 충분해 보였다.

싯다르타 태자가 왕궁의 화려함을 버리고 구도의 길에 나서 45년 설법 이후 열반에 들 때까지. 탐진치에 흔들리지 않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간 부처님의 삶을 되돌아보며 부처님의 가르침에 다가서기 위한 대학생 불자들의 노력이 더욱 값지다. 이들이 만들어갈 한국불교의 밝은 미래가 기대된다.



김내영 편집국 기자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일일시호일

"움직이지 않는 팔보다 고향가족 먼저 떠올라"

스리랑카 드라하 씨, 골절 · 근육파열 부상
치료비 · 고향 부모님 생계 걱정에 눈물만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070.4707.1080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3.5% 보살로 살아가자

현불논단



성제 박준석 교수
위덕대 불교문화학과

석가모니 부처님의 열반 이후에 무량한 게송이 밀교 경전에 수록돼 남천축국 철탑 안에 봉안됐다. 그러나 철문은 굳게 닫히고 쇠사슬로 겹겹이 봉쇄돼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은 이 문을 열 수 없었다. 천축의 불법이 쇠퇴해갈 무렵, 덕 높은 아사리 한 분이 이 탑에 이르러 진언을 외우자 비로자나불이 비로소 그 몸을 드러내었고, 이윽고 허공 중에 문자로서 설법을 나투었다. 범상치 않은 법문임을 알아차린 그는 차례로 그것을 종이에 옮겨 적었는데, 서사가 끝나기가 무섭게 허공의 문자는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아사리는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고 염송해 탑문이 열리기를 서원했고, 7일 동안 탑을 돌며 염송한 후에 흰 겨자씨 일곱 알을 던졌는데 놀랍게도 문은 드르륵 소리를 내며 열렸다. 어두컴컴한 탑 안에 갇혀있던 여러 신(神)들은 이리저리 날뛰며 노여워했다. 진귀한 꽃들이 탑의 덮개 부분에 그득히 줄지어 걸려 있었는데 조심스레 탑 안으로 발을 옮기자 탑문은 곧바로 닫혀버렸다. 그윽한 향기가 진동했고, 갖가지 등(燈)에서 뿜어져 나온 광명으로 사방이 환하게 밝혀졌다.

한 걸음 한 걸음 안으로 조심스럽게 발을 옮기자, 갑자기 어디선가 경전을 독송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자세히 들어보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여러 대중이 찬탄하는 듯한 음성이었다. 환청과도 같은

〈금강정경〉에 남천축국 철탑은
수행자 자신의 몸과 마음 상징해
중생으로 살지 말고 보살로 살라

이 소리는 며칠이 지나도록 끊이지 않고 계속됐는데, 이상하게도 마치 밥 먹는 동안의 잠깐 사이의 일처럼 느껴지는 것이었다. 아사리는 제불보살이 깨우쳐주신 우주와 인생의 지혜를 기억해 잊지 않았는데, 문득 탑에서 나오니 예전처럼 도로 문이 닫혀버렸다. 그러나 그의 손에는 여러 게송을 서사한 경전이 들려져 있었으니, 이것이 바로 밀교의 소의경전인 〈금강정경〉이었다.

〈금강정경의결〉이라는 문헌에서 밝히고 있는 전설과도 같은 이 남천축국의 철탑은, 어쩌면 수행자 자신의 몸과 마음을 상징하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왜냐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만법을 섭수하는 공덕의 그릇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불법을 체(體)로 하고 세간법을 그림자로 해 항상 진리와 가까운 곳에서 호흡하고자 하는 우리가 아닌가. 7일간의 탑돌이 끝에 일곱 알의 겨자씨를 던져 탑문을 연 순간 향화(香華)·등명(燈明)이 눈 앞에 펼쳐지고 진리를 찬탄하는 음성이 들려왔듯이, 일주간을 불공하는 마음으로 용맹정진한 끝에 찾아오게 될 그 공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장원하리라.

어두운 곳을 밝히고, 닫힌 문을 여는 것은 비단 아사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진리의 불모지에 사찰이나 전당을 신설해 현대인의 닫힌 마음의 문을 여는 인연을 짓는 일은 스승·신교도를 막론하고 불자라면 누구나 동참해야 할 종교적 사명이 아닐까.

바다가 썩지 않는 이유는 단 3.5%의 염분 덕분이라고 한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100명 중 97명이 어리석은 중생일지라도, 단 3~4명만이라도 지혜로운 이가 있다면 이 세상은 그런대로 유지가 된다는 뜻이리라. 귀한 인간의 몸을 받고 태어나 중생으로 살지 말고, 이왕이면 지혜로운 보살로 사는 길을 인연하도록 서원하고 정진해야 할 것이다.

비트코인, 꿈 속 어린애 놀이

세간과 출세간



지승도 교수
한국항공대 소프트웨어학과

'우리들 만나고 헤어지는 일들이 어쩌면 어린애들 놀이 같아~'

유행가 가사처럼, 요즘 벌어지는 세상사는 철없고 납득하기 어려워 보인다. "비트코인? 애들 불장난치는 걸 어른이 말려야지, 보고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수년전 뜬금없이 등장한 가상화폐 열풍에 각종 매체에서 떠들던 단골 멘트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불장난이 아니라 그야말로 불장(상승장)이다. 그때는 옳고 지금은 틀린 걸까? 진실은 사랑처럼 움직이는 걸까?

소프트웨어에서 시작되어 인공지능, 가상현실, 메타버스, 디지털트윈, 블록체인 그리고 가상화폐에 이르기까지 현대사회를 이끄는 동력은 단연 디지털이다.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실세계에만 익숙한 우리에게 디지털은 낯선 세계일 수밖에 없다. 실세계만 진짜고 디지털은 가짜라는 선입견을 지우기 어려운 이유다.

뇌과학은 감각기관으로 입력된 대상 정보가 어떠한 전달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전전두엽에 이르러 대상을 인식하는지 소상히 밝히고 있다. 수천억 개에 달하는 뇌세포 사이의 길고도 먼 정보 전달의 여정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왜곡을 토대로, 지각과 인식 사이에 개입되는 언어적 변환, 그리고 입맛대로 가공되어 저장된 기억으로부터 인출된 정보를 거쳐야만 눈앞의 대상은 비로소 인식된다고 뇌과학은 말한다. 우리

연일 상승 중인 가상화폐 시장
금, 가상화폐 모두 개념만 존재
실제·가상세계 따로 존재 않아

가 실세계라고 믿는 것이 진실에 있어서는 컴컴한 두개골 속 스크린 위에 펼쳐지는 영화와 다르지 않다는 얘기다. 그것도 감독과 주연 모두 자기 자신인 자작극이다. 붓다께서는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신다. 일체가 연기된 것이기에 꿈과 같고, 환영과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와 같다고.(一切有爲法 如夢幻泡影·〈금강경〉)

한편 뇌과학이 인식 주체에 관한 진실이라면, 양자역학은 인식 대상에 관한 진실을 다룬다. 의식의 개입 없는 독자적 대상이란 결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양자역학의 결론이다.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금덩이만이 최고가 아니다. 개념으로만 존재하는 비트코인이지만 금덩이를 능가한다. 누가 뭐래도 금은 진짜, 비트코인은 가짜 아니냐고? 아니다! 우리는 눈앞의 금덩이를 직접 본 적도 없고 볼 수도 없다. 개념으로만 볼 뿐이다. 비트코인처럼!

붓다가 본 진리는 공성이다. 실체 없으며, 상호의존적이라는 뜻이다. 금덩이도 비트코인도 꿈속 어린애 놀이와 다르지 않다. 실세계 따로, 가상세계 따로가 아니다. 너 따로, 나 따로가 아니다. 공색여여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윤회계 존재를 세 가지 양태로 구분한다. 생시, 꿈, 그리고 죽음과 탄생 사이의 중음이다. 이 셋은 '불이(不二)'다. 생사일여, 몽중일여, 숙면일여인 '불이'의 실상 진리를 통찰하기 위해 세 상태 각각에서도 알아차림을 유지하는 의식의 계발을 최상의 수행법으로 삼는다. 비록 실체는 없지만, 상호의존적이기에 불이다.

무엇을 상상하든 현실이 된다는 점에서 무한 가능성의 진리다. 동시에 실체처럼 생생한 느낌과 의식과 행위를 수반하기에 저지른 업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발효된다는 점에서 무한책임의 진리이기도 하다. 오랜 논란거리인 우문으로 마무리한다. 현답은 독자의 몫이다. "윤회는 있는 걸까? 없는 걸까?"

社 說

조계종 조직 개편, 미래를 위한 준비

조계종 중앙종회는 3월 19일 열린 제230회 임시회에서 이번 회기 핵심 사안으로 평가된 종헌 개정의 건을 상정해 무기명 비밀투표에 부쳐 가결했다.

이에 따라 교육원과 포교원은 내년 4월 1일자로 종헌에서 삭제된다. 1년여의 유예기간 동안 총무원은 중앙종무기관 조직 개편을 위한 세부 작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교육원과 포교원을 통합해 총무원 1원 체재로 개편하는 것은 시대 변화에 원활하게 대응하기 위함이다. 일각에서는 삼원의 통합으로 총무원장에게 권력이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이는 1994년 종단개혁의 핵심에서는 비껴나가 있다.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으로 삼원을 분리한 것은 종단 살림과 승가교육, 전법사업에 전문성이 요구됐기 때문이다.

탈종교화로 인한 불교 인구와 출가자 감소는 더 이상 교육원과 포교원이 별원 형태로 있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도리어 각 원별로 자체 사업에만 몰두하다보니 행정력이 분산돼 3원 독립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나왔다. 교육원, 포교원으로 나눠진 종단 연구소들도 하나로 통합해 종단의 아젠다를 세울 수 있는 진정한 '싱크탱크'로 거듭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앞으로 1년의 시간은 조계종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다. 이제는 종도 전체가 머리를 맞대어 나아갈 방향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진격의 '대학생 전법' 더욱 확산되길

대학생 전법 열기가 어느 때보다 뜨겁다. 3월 17일에는 봉선사에서 3개 대학 4개 불교동아리를 창립해 이를 기념하는 법회를 열었다. 특히, 양주 서정대는 국내 학생과 외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불교동아리가 각각 창립했고, 기독 종립 대학인 신한대에는 50명이 넘는 회원을 모아 정식 동아리로 등록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봉선사는 4개 대학 5개 불교동아리 창립을 견인해냈다.

3월 20일에는 동국대 단과대학에서는 처음으로 사회과학대학 불교동아리 '템플애플'이 창립됐다. 사회과학부 학부생·대학원생 등 총 84명이 주축이 된 '템플애플'은 스님 법문과 템플스테이·사찰음식 체험 등을 통해 불교의 가르침을 배워나간다는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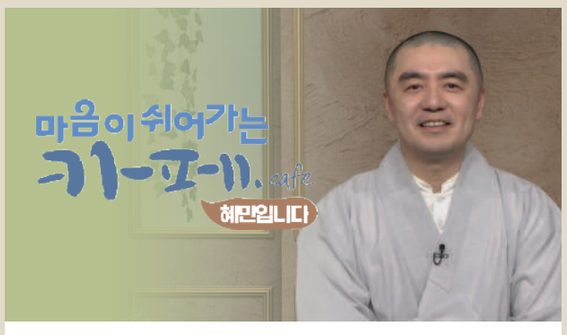
금정총림 범어사의 경우 3월 16일 '대학생전법단 지정 법회'를 봉행하고, 대학생 전법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지도법사 부재의 상황에 놓인 부산대 불교바라밀회를 지정 후원할 뜻을 밝혔다.

또한 범어사는 오는 3월 30일 대불련 부산지부 소속 7대 대학 합동법회로 전법 역량을 모으고, 오는 5월에는 부산교대 불교동아리 창립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3월 23일 상월결사 인도순례를 회향하는 자리에서 울린 해봉당 자승 대종사의 "부처님 법 전합시다" 원력은 전법 불사의 씨앗이 돼 대학생 전법의 새싹을 틔워냈다. 이 새싹을 꽃과 열매로 키워내는 것은 전법에 대한 사부대중의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이다. 대학생 전법 열기가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이사 : 혜도 스님 총괄국장 : 박재완 편집인 : 신중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한국불교의 미래 BTN 불교TV
초심자부터 참선 수행자까지
모두에게 길잡이가 되어줄 신규 프로그램



마음이 쉬어가는 카페 혜민입니다
방송시간 : 매주 (월)12:00, 22:30 / (토)19:30



송담스님의 이뭣고
방송시간 : 매주 (수)19:00 / (목)08:30 / (일)21:00



불교사용설명서
방송시간 : 매주 (금)09:30, 21:30 / (일)22:00



전설의 법문
방송시간 : 매주 (금)12:00, 23:15 / (일)13:00

BTN 채널안내 | GENIE TV 233번 Btv 295번 U+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 케이블 문의 : 02)3270-3300

2024 어싱Earthing 제품 특판

어싱, "지구 표면 존재 에너지에 우리 몸을 연결하는 것!"

어싱이란? 어싱은 야외에서 맨발로 걷거나 앉아 있고 누워 있으며 대지의 자연적인 치유 에너지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어싱의 창시자 'Clinton Ober'는 맨발로 땅을 밟고 걷는 것에 인체를 회복시키는 무언가가 있음을 깨닫고
10여 년 관찰과 실험 끝에 '어싱'(Earthing) 프로그램을 만들어 미국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어싱의 가장 쉬운 방법은 '맨발걷기'입니다.
하지만 아파트 주거문화가 보편화된 현대인들은 나무가 자라는 높이(4층) 이상에 살기에 대지의 자연에너지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맨발로 땅을 밟는 것이 필요합니다. 황톳길, 숲길, 모래사장길을 맨발로 걷는 것이 어싱입니다.
어싱은 최소 30분 이상 하여야 하며 건강한 사람은 주 4회, 건강을 위해서는 3시간 이상 꾸준히 맨발걷기를 하셔야 합니다.
어싱 제품은 이러한 어싱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제품입니다.
땅의 음이온이 전달되는 접지기능을 넣고 맨발걷기와 비슷한 효과를 주는 신발, 그리고 매트는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어싱을 하게 합니다.

"길과 내가 하나가 된다!"
行禪 전문 신발

New
캔바스 수행화

특판가 : 45,000원 (무료배송)
(사은품 : 무압박 양말 증정)

수행화



- 발을 통해 자연이 온몸으로 느껴져 행선에 적합합니다.
- 천연 지압 효과를 통해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 발 볼이 넓어 다른 신발 대비 발가락 움직임이 편합니다.
- 승복과 일치하는 색상으로 언제 어디서나 부담이 없습니다.

· **색 상** : 멜란지그레이 · **사이즈** : 233~280mm
· **특 징** : 발 볼과 발등이 넓은 편안한 맨발같은 신발
밑창은 짙은 회색으로하여 위, 아래 조화를 추구하여 제작한 수행화
· **소 재** : 캔바스(내부에 고무로 내피를 덧되 방풍, 방수가 되는 4계절용)

"신은 듯, 안 신은 듯 맨발같은 신발"

어싱 접지 슈즈 2024 신상

지구와 연결되는
EARTHing(접지) 효과
발볼 넓은 신발, **맨발** 같은 신발
KSNS 적용 신발

어싱 슈즈는 발 볼이 좁거나 보통 넓이인 분들이 세련되고 날렵한 신발을 신고 싶을 때를 위하여 제작된 신발로 둘레길, 황토길, 캠핑용, 런닝용 신발로도 좋습니다.



어싱슈즈
특판가 65,000원 (무료배송)
※ 사은품 : 어싱 양말



어싱 트레킹화
특판가 65,000원 (무료배송)
※ 사은품 : 어싱 양말
※ 소재 : 도전특수고무 밑창 + 네오프렌(잠수복 재질)



베이지

어싱 매트·베개·방석 특판

할인

오직 들꽃잠이 엄선한 그래핀 신소재로
전하는 깊고 진한 우리 몸의 가장 건강한 열 에너지



그래핀 어싱 치유매트(매쉬) S ~~판매가 1,880,000~~ ⇒ 할인가 1,780,000
그래핀 어싱 치유매트(매쉬) Q ~~판매가 2,250,000~~ ⇒ 할인가 1,980,000



그래핀 어싱 베개 (아치형) [어싱(접지)코드 포함]
~~판매가 120,000~~ ⇒ 할인가 84,000



좌훈 음파 케겔 운동기
~~판매가 1,200,000~~ ⇒ 할인가 1,080,000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